

구리문화 11

154



구리시인창도서관



EM022170



구리문화원

여

백

099.115다
문 96
J.1152

구 리 문 화

제 11 호



구리시 장자못 (사진. 이덕만)

장자호수공원

장자(長者)못의 전설

스님의 탁발바루대에 쇠뿔을 한바가지 퍼준 장자(부자) 시아버지의 모습을 본 마음씨 착한 며느리가 탁발바루대를 샘으로 가져가 깨끗이 씻은 후 보리쌀을 시주하였다.

이를 기록히 여긴 스님이 某年 某月 某日 某時 가마솥에서 물이 날 테니 그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산을 향해 올라가야 난을 피할수 있다고 알려준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때가 오자 산을 향해 오르다가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내려 집에 있는 가족이 생각나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禁忌 : Taboo)를 어기고 뒤를 돌아보아 돌이 되었고 시아버지인 장자(長者)가 살았던 집은 천발을 받아 못(池)이 되었다는 것이 장자못의 얽힌 사연이다.

고대소설 "옹고집전"과 한말속의 소설 "돌"도 장자못을 소재로 한 것이다.

장자못의 전설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금기(Taboo) 설화의 하나이다.

문화의 참 생명은 정체성(正體性)에 있음



구리문화원장
김 순 경

한 겨레의 운명을 결정짓는 근원적 힘은 그 민족의 문화적, 예술적 창의력이라고 문예진흥선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의 요체가 문화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세기를 文化의 世紀라고 합니다.

문화가 그 민족의 얼이 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문화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리문화誌 제11호에서는 구리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관해 심도있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지방문화의 정체성 확립에는 모름지기 역사적 고증(考證)과 시민적 공감(共感)이 근본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에 대한 외경정신(畏敬精神)이요 문화에 대한 시민적 권리관(市民的 權利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화관으로 사실왜곡(事實歪曲)이 아닌 實事求是의 철학으로 조명하고 啓導하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리문화는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의 생활습관에서 이루어진 삶의 모습이요, 정신인즉 어느 특정인에 의해 하루아침에 형성되거나 변질 될 수 없으니 이것이 바로 문화에 대한 외경정신인 것입니다.

맹목적인 복고풍의 문화도, 분별 없는 모방문화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文化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함께 새로운 문화창달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실증되어 가는 도의(道義) 선양의 정신문화도 함께 함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리문화 제11호에 玉稿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구리문화”誌가 지역문화의 꽃을 피우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남양주교육장
김 중 두

탐스런 목련꽃 향기 그윽한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구리시 문화의 향기를 가득 피워 담아낸 “구리문화 제11호”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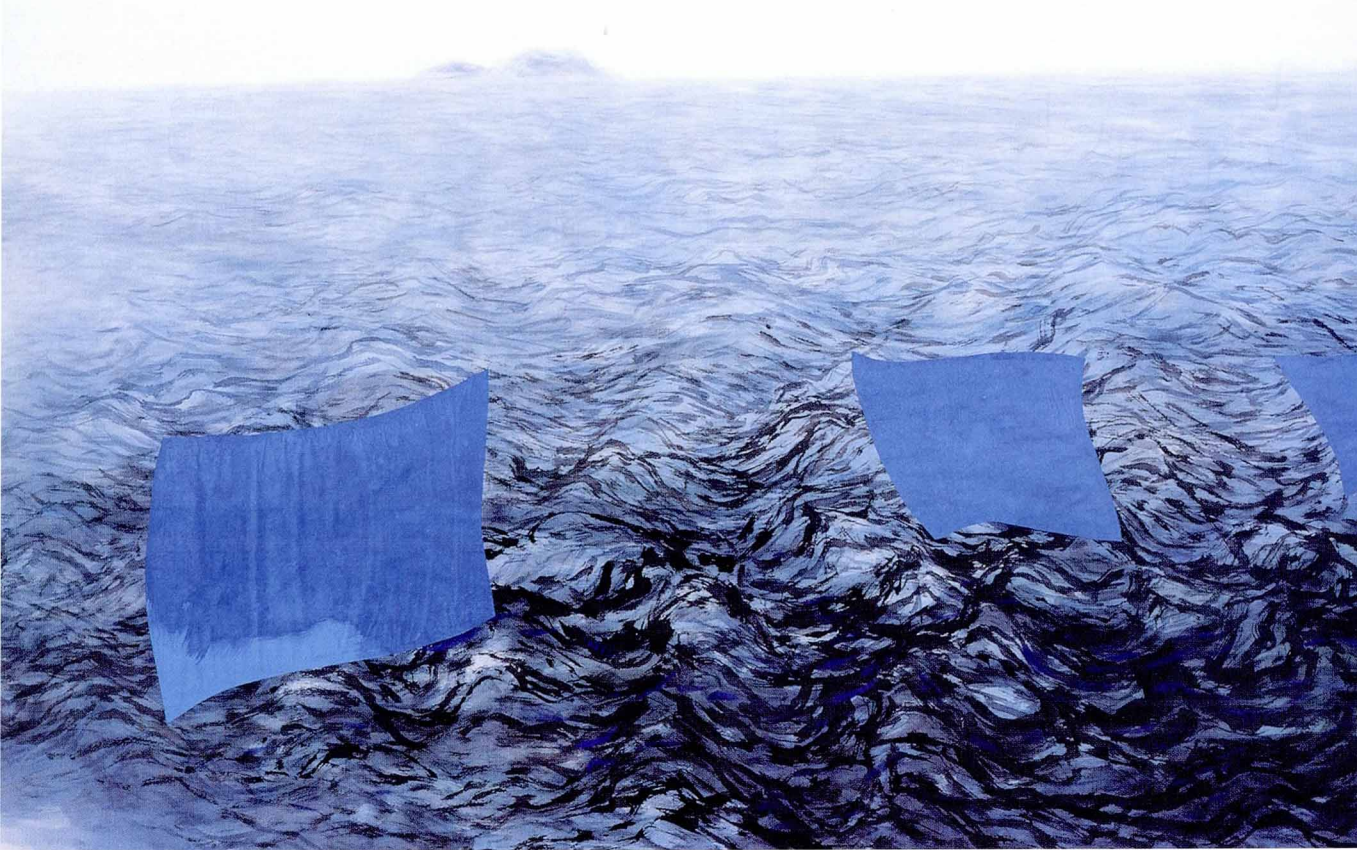
우리 구리시는 한민족의 오랜 역사의 중심에서 자랑스런 조상의 얼이 깃든 문화유산이 다양한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아울러 지리적으로는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지로서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 희망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증가는 도시 발전의 긍정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개인·집단 이기주의 등 지역 정체성을 잃어가는 부정적 측면도 있어, 수준 높은 새문화의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는 인간의 ‘생활양식’으로서 시·공을 초월하여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를 지식정보화 사회와 더불어 新문화의 시대로 규정하기도 하는데, 신문화를 강조하는 까닭은, 바야흐로 문화가 인간생활의 근간이라는 점은 물론이고, 또한 그 차체로서 국가적인 경쟁력을 지닌 가치로 떠올랐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국가간의 문화교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간, 계층간의 과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우리 구리시의 문화가 자생력을 가지고 여타 지역의 문화와 경쟁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보다 더 큰 위상을 지녀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리문화가 수준 높은 지역정체성을 확립하는 바탕 위에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꿈과 비전을 갖는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정신문화를 가꾸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리시가 교육과 문화를 중시하고 정신과 물질을 함께 조화롭게 추구하는 성숙한 시민문화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구리문화 제11호”는 지역의 문화 발전을 획기하는 우리 구리 시민 모두의 바램을 담아내었습니다. 오늘의 이 뜻깊은 발간이 장차 구리시의 새로운 문화창출과 시민 생활의 정신적·물질적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구리문화 제11호”의 발간을 우리 교육가족 일동과 함께 축하드리며, 김순경 구리시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다이야기

그 곳에 바다가 있었다.

삶은 그 바다 기슭에 기대어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희망같기도 하고 해가 뜨면서 사라지는 절망같기도 했다.

몇년전 봄. 강원도 고성 휴전선 최북단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까지 해안선을 따라 남하하면서 나는 바다를 보았다. 새벽의 바다, 아침의 바다, 오후의 바다, 밤의 바다, 비오는 날의 바다, 그리고 바람부는 날의 바다……. 그토록 다양한 바다의 표정에 나는 전율했다.

이듬해에 다시 해안선을 따라서 남해를 돌았고 이어서 서해안을 더듬어갔다. 북쪽의 해금강을 가 보았고, 보길도, 노화도, 청산도, 약산도 등 완도의 열한개 섬중에서 아홉개를 다녀왔다. 삼면의 바다와 열개의 섬…… 그리고 생명이 없는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섬 안좌도. 많은 것들이 그 바다에서 낳고 자라고 또 그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것이 바다의 전부는 아니었으나 적어도 바다와 그 기슭에 기대어 사는 생명의 일부는 본 셈이다.

수평선을 사이에 둔 하늘과 땅이 똑같은 모습으로 맞닿아 있듯이 삶과 죽음의 모습 또한 그렇게 똑같이 닮아 있었다. 바다에서 죽은 젊은 어부의 넋을 위로하는 애잔한 굿판결에서 바다를 향해 힘겹게 배를 띄우는 노 부부의 신선한 삶을 목격하던 날 나는 그 바다 너머에서 또다른 바다를 보았다.

그들에게 바다는 무엇인가? 삶인 동시에 죽음이고 절망인 동시에 희망이기도 했다. 바다는 늘 거기에 그대로 있었으나 우리 자신의 분별없음이 우리 스스로를 죽여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폭풍우가 가라앉은 다음날에 보면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넘치는 생명력으로 출렁이고 있었다.

창랑 배 순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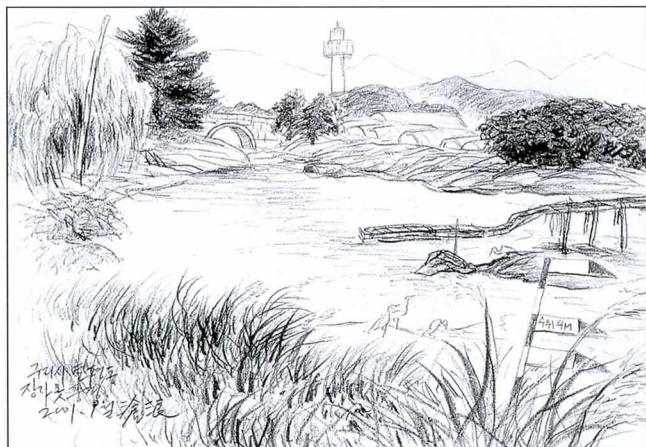


희망을 띄우다- I

바다와 고양이



“아차산에서 한라산까지 더하여 백두산까지” 스케치 전에서



토평동 장자못 풍경(2001. 9)



아천동 산14번지 명빈 김씨 묘에서



창랑 배 순 덕

〈프로필〉

1956년생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1989 중앙미술대전(호암갤러리, 서울) ~ 2001 동방의 빛전(예술의 전당)외 미술전 다수

1992 구리문화원 초대전(구리시)

1995, 96, 2000 동국회화전(덕원갤러리 · 도올아트타운, 서울)

현 하남문화대학 미술부 강사 구리문화원 미술부 강사

2003 대한민국사진대전특선작



숯가마



이 덕 만

〈프로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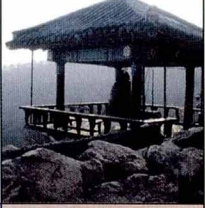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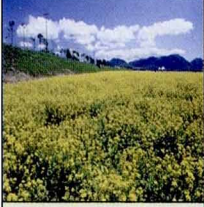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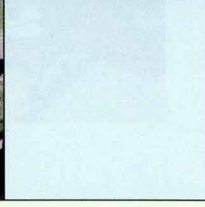

대한민국 사진대전 입상 제12 · 17 · 18 · 20 · 21 · 22회 특선
한국사진작가협회 전국회원 작품전 제35회 심결상(수상)
경기사진대전 제38회(우수상)
사협 제2기 촬영 지도위원 부회장
사협 남양주 지부 감사
구리문화원 사진반 감사

구리문화 11

목 차 & CONTENTS

		02 발간사 / 김순경(구리문화원장)
		03 축사 / 김종두(남양주교육장)
		04 바다이야기 / 배순덕
		06 스케치전 / 배순덕
		07 시잔특선작 - 숯가마 / 이덕만
		10 화보 / 문화원 활동
		12 詩 - 고독한 작업 / 홍재인
		14 구리시의 어제 / 사진제공. 김원태(구리문화원 부원장)
		18 文化의 21世紀 / 안영기(구리문화 편집위원장)
		21 경기도 역사인물을 찾아서 / 이이화(역사학자)
		27 구리지역문화 그 정체성과 해법 / 임이록(경춘신문 발행인)
		34 고구려에는 38선이 없다 / 최종택(고려대교수)
		40 청소년 놀이와 음식문화의 어제와 오늘 / 이병탁(전 부양초교교장)
		46 백제의 미소를 찾아서 / 손태일(구리문화원 부원장)
		51 日本 文化記行 / 글. 안영기, 사진. 김원태
		59 孝
		61 지역문화의 전통문화 활성화 방안 / 최래옥(한양대 교수)

목 차 & CONTENTS

84	수증사 / 고순례(구리문화원 사무과장)	
87	한강둔치 / 최복희(한국문인협회 회원)	
90	구리타워 / 김충현(풍양신문 편집국장)	
93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	
95	구리시청소년 수련관 / 안윤달(전 구리종교장)	
98	구리문화원 동정 제4대 구리문화원 김순경원장 취임 구리문화원 홈페이지로 오세요 2003 임원명단 · “구리문화”誌 편집위원 명단 구리문화원 후원회 · 문화학교 운영위원 2003년도 제8기 구리문화학교 개설	
102	문화학교 안내	
104	I ♡ (love) Guri	
106	서예전람회 특선작 / 홍재인	
107	제12회 백일장 수상작 / 글 108 사진으로 보는 백일장 110 키재기 하자 / 김필주(백문초2-4) 111 물놀이 / 황예슬(백문초 4-2) 112 엄마의 손 / 황하정(구리초 6-1) 113 고향가는 마음들 / 백수진(인창중 1-8) 114 가만히 앉아 눈을 감으면 / 정진선(인창중 2-10) 115 아빠의 고향길 / 배화연(구리여중 3-4) 117 휴전선에 눈이 내리면 / 진성지(토평고 1-11) 119 새벽, 밤 그리고 노을 / 이해란(토평고 2-6) 120 나의 자리 / 정숙자(교문동 한양A)	
121	제12회 백일장 수상작 / 사진	
122	제12회 백일장 수상작(최우수) / 서예	
123	제12회 백일장 수상작(최우수) / 그림	

>> 문화원 활동



구리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및 작품발표회



구리문화원 작품발표회 (서예)



문화학교 제8기 개강식



성년의 날 기념 및 성년대재연



구리문학원 제11기 정기총회



제8회 고구려 온달장군 추모제향



유물 유적 사진전(동구릉편) 및 전통북 전시회



고독한 작업



홍재인

(한국 문인협회 회원)

혼자가 되면 물빛 그물을 친다
가난한 마음이지만 어디에도 없는 바다에
내 조용한 그물 밤마다 풀어 놓는다
새벽이 되면 송사리 하나 안 걸린 빈 그물에
바다 내음 고향 내음 바람소리 그물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가슴엔 낯달이 하얗게 걸려있다
어제는 힘들게 건어 올렸더니
산한 자락 말없이 웃고 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하지 못한 언어들
파란 잉크 적시며 반듯한 원고지 채울
은빛 비늘 펄떡이는 그 날 위해
오늘도 그물 어깨에 매고 바닷가를 걸어간다



〈구리시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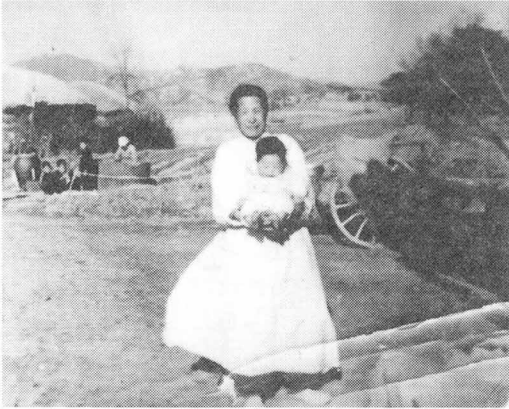
동구능 솔바람의
영묘한 숨결위에
찬연하고도 독창적인
지방문화와 향토예술을
꽃피워간다.

(구리시민현장 중에서)

구리시의 어제

지금은 빌딩숲으로 둘러싸인 구리시. 어제의 모습에서 향수를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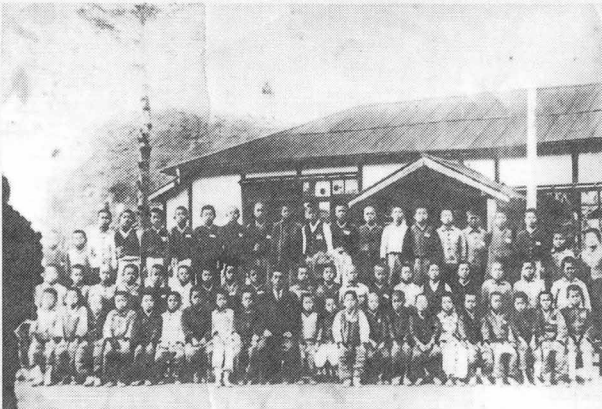
(사진제공. 구리문화원 부원장 김원태 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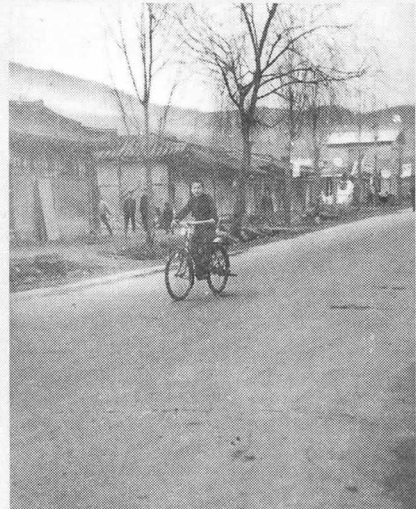
1954년 광나루 어촌마을



1950년대 미음 나루터



1940년대 인창초교 제2교사
(현 교문사거리 구리농협 자리)



1960년대 교문사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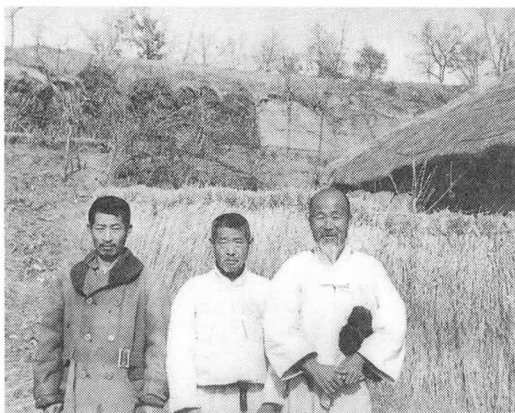
구리시의 어제



1950년대 자동차 정비공장
(현 중앙예식장 맞은편)



1950년대 왕숙천
(원내는 초대 구리새마을지회
지회장을 지낸 김응춘씨)



1960년대 수택동



일제시대 담배가게
(현 중앙예식장 맞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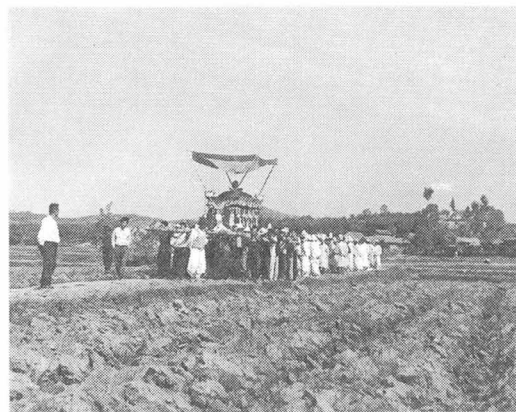
구리시의 어제



1960년대 수택동 방앗간



1988년 올림픽 성화가 구리시를 지나고 있는 모습
(현 LG백화점 앞)



1964년 장례행렬 모습
(현 일화제약터)



1960년대 우미네
(현 위커힐길 검문소)

구리시의 어제



1960년 현 교문초교자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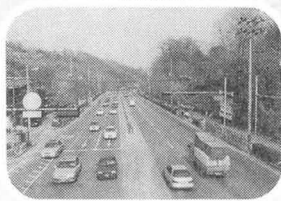
1960년대 교문동 버스정류장



1974년 대성암 범종



1950년대 망우리 고개
(트럭을 타고 서울로 넘어가는
모습이 향수를 느끼게 한다)



현재의 망우리 고개

文化의 21世紀



안·영·기
(구리문화 편집위원장)

- 정신적 복지로서의 문화
- 물질적 산업으로서의 문화

一. 序

우리는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그 “문화”란 무엇인가?

우리말 큰 사전에 보면 문화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첫째로 학문이 나아가서 사람이 깨어 밝게 됨

두 번째 위력이나 형벌보다 문덕(文德)으로 백성을 가르쳐 인도함.

세 번째는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의 이상(理想)을 실현하려는 활동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의 총칭으로 특히, 학문, 예술, 종교, 도덕등 인간의 내적 정신활동의 소산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文化”는 무지(無知)나 미개(未開)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무지를 깨우쳐 밝게 하고 물리적 강제가 아닌 순리와 가르침의 덕으로 세상을 이끌고 생활 이상인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정신운동 또는 그 소산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문화”란 뜻 속에는 교양과 지성, 정서의 함양이란 개념이 함축되어 있는 차원 높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부른다.

왜 우리는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가?

아마도 거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의미로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20세기 물질문명에 대한 반동으로 풍성한 삶을 향한 정신적 복지로서의 문화, 다른 하나는 물질적 산업으로서의 문화의 세기를 의미한다 하겠다.

二. 정신적 복지로서의 문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선진국들이 복지국가 노선을 추구하면서 문화진흥이 국민복지의 일부분으로 수용되게 되었다.

엘빈·토플러의 “제3의 물결”(the third wave)에서 제1의 물결시대인 농경사회에서는 원초적 생존(生存)인 “뺨”이 문제였고 “제2의 물결” 시대인 공장굴뚝 산업사회에서는 한 단계 올라선 “인간다운 최저생계”가 문제였다.

그런데 “뺨”이 문제였던 제1의 물결시대에서의 이른바 “문화”는 하나의 고급스런 사치였으나 뺨이 해결되고 “인간다운 생활”을 추구하려는 제2의 물결시대에는 “문화의 생활화”를 그리고 후기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접어들면서는 문화가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운데 하나로 등장하면서 “생활의 문화화”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삶의 질 향상은 물질적이고 경제적 풍요라는 고전적 생존권의 개념을 넘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과 함께 자기실현의 욕구가 충족되고 영유되어야 한다는 문화복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문화는 국민복지의 일부분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은 오늘날 경제발전으로 인한 각종 공해, 도시문제, 자연파괴등의 폐해로부터 친환경적 인간다운 생활로 자기 계발과 자기실현 욕구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회고하건대 지난 20세기는 물질문명의 풍요와 찬란한 과학기술 진보의 업적을 이룬 세기였다.

그러나 풍요와 진보의 치수만큼 행복과 평화를 안겨주지는 못했다.

풍요는 본질적으로 나태와 타락으로 “인간”을 앗아갔고 발전과 진보는 필연적으로 경쟁 속에 약자와 열등자의 희생을 요구했다.

물질적 풍요가 정신적 빈곤을 초래했고 발전과 진보가 소외와 갈등을 낳아 사회를 삭막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20세기는 “인간”을 잃어버린 세기였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함은 바로 이러한 인간성을 회복하여 정신적 풍요를 찾아야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할 수 있다.

물질문명의 풍요도 건전한 정신문화의 뒷받침이 없이는 그 풍요를 구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三. 물질적 산업으로서의 문화

엘빈·토플러의 “제3의 물결”인 정보화시대에는 정보와 지식이란 전혀 다른 의미의 문화와 접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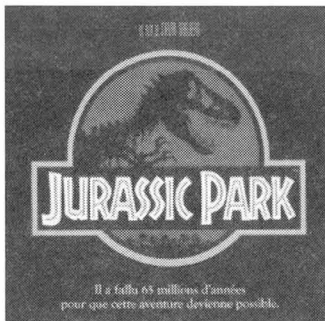
이 말은 단순한 물질위주의 산업화 사회에서 고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 지식산업, 문화산업이 각광을 받는 시대를 맞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21세기는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게 됨으로서 세계 모든 국가는 21세기 전략산업으로 3T산업을 내세우고 있다.

IT(Information Technology : 정보기술) BT(Bio Technology: 생명공학기술)

NT(Nano Technology : 극미세기술)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ST(Space Technology: 항공우주기술) ET(Environment/ Energy Technology : 환경/에너지기술)가 첨가되더니 이제는 CT (Culture Technology : 문화콘텐츠 기술)가 국가전략분야로 선정되어 대대적인 투자를 쏟고 있다.



〈쥬라기 공원〉

문화는 돈이다. 문화야말로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지닌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이기 때문이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쥬라기 공원”영화 한편이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 150만대 수출에서 벌어들인 돈보다 많다는 것은 이미 옛말이 되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최대 수출산업이 이미 우주항공산업에서 “문화산업”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문화산업이 엄청난 부를 창조하면서 세계산업판도를 재편하는 핵으로 세계는 이미 문화전쟁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영화, 음반, 게임, 관광산업등 문화관련 사업이 창조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양산하면서 경제의 중심축으로 등장한 것이다.

국가 경쟁력의 요체가 바로 「문화」인 것이다.

이렇듯 21세기는 정신적 풍요와 함께 물질적 풍요를 구가하고 추구하는 문화의 시대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화가 人間 삶의 質을 향상시키는 정신운동이라 할 수 있다면 문화는 “물질에서 정신”으로 “所有에서 存在”로의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 역사 인물을 찾아서



이·이·화
(역사학자)

1) 전제의 말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어서 정치 경제 행정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그 지정학적 조건과 입지로 말미암아 우리 역사에 영향을 끼친 가장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들 인물을 낱알이 거론하는 것은 번잡할 것이다. 오히려 시대정신을 구현한 인물을 중심으로 간단한 출신과 행적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범위는 고려시대부터 일제시기로 잡되 현대에 살고 있는 인물은 일단 평가를 유보해야 할 것이다. 또 서울은 여러 지역 인사들이 모여들었으므로 경기 출신이 아니면서 서울에서 활동한 인물은 가급적 배제하기로 한다. 또 정치가보다 학자 문인에 비중을 두어 소개할까 한다.

2) 고려 시대의 인물



〈왕건〉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개풍출신이다. 그는 이 지역의 호족을 친위 정치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자기 고향인 개성을 수도로 삼아 개경(開京)이라 불렀다. 1018년(현종 9) 처음 경기라는 용어가 쓰여졌다. 경기는 수도 주변이라는 뜻인데 畿甸과 비슷한 용어이다. 지금 경기도의 산하 기관으로 “기전문화재단”에서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고려 중기에는 경기 출신의 인사들이 척족정치의 중심이 되었다. 곧 안산 김씨의 김은부와 인주 이씨의 이자겸 등이었다.

고려 말기 경기출신의 최영을 중심으로 한 왕당파와 함경도 출신의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역성혁명파 사이에 투쟁을 벌인 끝에 역성혁명파가 성공하여 조선왕조를 세웠다.

3) 조선 전기와 중기의 인물

조선 전기 우리는 두 인물을 들 수 있다. 황희는 파주에 살았다. 그는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는 시기에 벼슬살이를 하면서 탁월한 정치적 리더십과 청렴결백으로 치국의 도에 충실하였는데 세종의 문화치적은 황희의 뒷바침이 따랐다. 더욱이 그는 우리 나라 정치가의 한 전범이 되었으며 청백리(淸白吏)의 상징



〈황희〉



〈조광조〉

으로 우리름을 받았다. 다음 용인출신인 조광조는 사림정치의 토대를 잡았다. 그는 유교 이상정치를 표방하면서 보수 반동적 기득권 세력의 타도에 나섰다. 결국 몽매한 군주에게 소박을 맞아 실패하였으나 그의 의리정신은 길이 이름을 남겼다.

조선 중기에는 먼저 세 사람을 거론할 수 있겠다. 개성출신의 서경덕은 氣一元論者이다. 그는 모든 현상을 기로 형성된다고 보아 주리론 또는 이기론자의 이론을 배격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에서는 조선에서 주자학을 祖述하지 않은 유일한 창의적 학자로 보아 그의 문집을 인쇄하여 四庫全書에 넣었다.



〈이이〉

다음 이이는 파주출신이다. 그는 서경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는 정치가로서 관리의 나태와 부정부패를 질타하였고 파당을 짓는 행위를 나무랐다. 그의 학문 경향은 주기론이다. 곧 관념적 理보다 현상적 氣를 중심에 두었다. 기를 통해 민중의 고통을 해결하되 이상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논지이다. 그의 정치적 영향과 학문 이론은 하나의 획을 그어 退溪와 쌍벽을 이루었다.

이이와 동향이요 친구인 성혼은 조금 우파의 경향을 보였는데, 율곡과 논쟁을 벌이고 때로는 갈등관계에 있으면서도 근본적인 우주관이나 인생관이 다르지는 않았다.

한편 서울과 주변을 넘나들면서 살아온 권율과 이덕형과 이항복은 유능한 정치가요 합리적 인물로 추앙을 받았으며 임진왜란 때 모두 큰공을 세웠다. 이덕형과 이항복은 어릴 때부터 동문수학의 친구로 관계에 나와서도 우정을 돈



〈권율〉



〈이덕형〉



〈이항복〉

독히 하여 많은 일화를 낳았다. 용인 등지를 근거지로 한 이정구도 온건한 선비 또는 문장가로 이덕형 이항복과 함께 명망 높은 정치가였다.

다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김포출신인 허준이다. 그는 서자였으나 〈동의보감〉을 완성하여 광해군에게서 최고위 품계를 받았으며 조선 의학사에 우뚝한 업적과 공명을 남겼다. 그의 저술은 조선보다 북경에서 먼저 간행되어 중국 의술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4) 조선 후기의 인물



〈허준〉

조선 후기에 들어, 풍운아 허균은 허준과 동향이였다. 그는 학문 종교의 자유, 신분의 타파 등을 외치다가 죽음을 당하였다. 그는 오늘날 〈홍길동전〉의 저자로서가 아니라 진보적 사상가로 높이 평가 받는다. 오늘날 그 有名度에서는 누구보다도 뒤쳐지지 않는다. 강릉에서는 출생지로 따져 신사임당 이이와 허난설헌 허균을 함께 기려 선양사업을 벌이고 있다.

18세기에 들어 현실 개혁을 외치는 실학자들이 일어났다. 실학파의 중심 인물은 거의 경기 출신으로 광주 양주 양평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그들은 우파라 불리는 이익 안정복 정약용 권철신과 좌파라 불리는 박지원 이덕무 홍대용 박제가 등이다. 이들은 근기(近畿) 지방에 살면서 당파를 초월하여 현실개혁을 주창하고 부정 부패의 타도, 봉건가치의 불식 등을 외쳤다. 양반을 없애고 노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외쳤으며 번잡한 의례를 고치고 풍수설 따위 신비주의를 배격



〈홍대용〉



〈정약용〉

하는 이론을 내기도 하고 여러 문화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 인물인 정약용은 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추었고 박지원은 문학 양식을 빌어 대중 정서에 호소하였다. 이 실학운동을 조선 후기 사회가 유리 현상을 빚은 시기, 우리 나라 사상계와 개혁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어 유럽의 문예부흥에 비유한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도 가장 소중한 역사적 유산이 되고 있다.

5) 조선 말기의 인물

그런데 실학자들과는 달리 조선 후기, 근기지방에는 시대를 역행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곧 과거와 벼슬 등 인사정책과 정치권력의 독점 현상을 주도한 것이다. 18세기부터 문벌이 등장하였다.

곧 문벌들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는데 경기 일대에 형성된 문벌은 연안 이씨, 경주 이씨, 풍산 홍씨, 남양 홍씨, 반남 박씨, 풍양 조씨, 전주 이씨, 여흥 민씨 등으로 20대 문벌 중 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들 문벌은 모든 것을 독점하려 정조의 개혁에도 저항한 끝에 19세기 마침내 독점체제를 이룩하였다. 19세기 척족정치의 장본인인 안동 김씨는 논외로 하고 반남 박씨, 풍양 조씨, 여흥 민씨가 그 중심에 있었다.

더욱이 풍양 조씨인 조대비와 여흥 민씨인 민비는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갈등을 유발하여 우리 역사를 파행으로 치닫게 하였다.

권력의 화신이 된 두 계열은 민영환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라에 공헌한 인물이 거의 없었다.

이들은 탐관오리로 지목되거나 친일파로 지탄을 받았다.

그 시기 이항노는 조광조 이항 이이의 학문과 정신을 이어 받아 양평에서 근기지방의 많은 제자를 기르고 때로 일제에 항거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의 제자들, 곧 포천출신의 김평묵과 최익현 등은 가장 열렬한 항일운동을 펼치면서 많은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너무 보수적 경향을 띠는 논지를 펴서 역사적 논란이 일고있다.

6) 식민지 시대의 인물



〈민영환〉

한일합병의 전주곡인 을사조약이 이루어진 뒤 먼저 순국 대열에 들어선 이는 홍만식 조병세 민영환이었다.

이들의 자결은 전국의 애국 지사와 유림에게 충격을 주고 영향을 끼쳤다.

그런 뒤에 이항복의 후손인 마석에 농장을 두었던 이석영을 비롯하여 이회영 이시영 등 형제들이 온 재산을 팔고 제일 먼저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는 등 열띤 독립투쟁을 벌였다.

식민지 시대 양평출신 여운형과 평택출신 안재홍 등은 결코 변절하지 않고 국내외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여운형은 상해 임시정부 태동의 주역이 되었고 안재홍은 민족통일단체인 신간회 결성의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흔히 여운형을 좌파, 안재홍을 우파로 평가하는데 근래에 여운형은 중도 좌파, 안재홍을 중도 우파로 보면서 둘 다 민족주의자로 평가한다.



〈여운형〉



〈안재홍〉



〈신익회〉

두 인사는 식민지 시대와 해방 공간에서 주역이 되었다.

그 동안 두 인물은 소외를 받아왔으나 근래 재평가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주목된다.

특히 여운형은 통일정부 수립 운동을 벌이다가 암살되어 민중으로부터 추앙을 받았으며 안재홍은 군정장관으로 있으면서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여 명망을 얻었다. 광주출신의 신익회는 독립투쟁을 벌인 뒤 이승만 독재에 맞서 투쟁하여 민주적 정치가로 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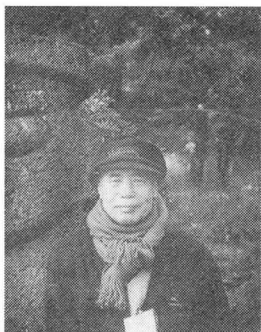
또 강화도 출신의 조봉암은 진보 정당을 창당하여 이승만 독재정권의 타도에 나섰다.

여운형 안재홍 조봉암은 그 동안 역대 군사정권에서도 기피 인물로 꼽았으나 근래에 재평가 작업과 함께 각기 출생지에서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 마무리 말

인물의 평가는 아주 복잡하고 시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지난 시대 경기 인물은 어떤 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기회와 혜택을 누렸다. 인물의 배양도 환경이나 토양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오늘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경제적 기반도 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평준화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이라고 해서 꼭 많은 인재, 훌륭한 인물이 배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무튼 자기 고장에서 배출한 역사적 인물을 추적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후손들에게 하나의 교훈을 줄 것이요 자부심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이화(67. 구리시 아천동)

글쓰기는 1937년 대구에서 유학자인 야산(也山) 이달(李達) 선생의 넷째아들로 태어났다.

어린시절 부친을 따라 대둔산에 들어가 한문공부를 했으며, 청년기에는 동아일보사·민족문화추진회·서울대 규장각 등에서 근무하며 한국학 연구에 전념했다. 이때는 민족사·생활사·민중사를 복원하는데 열정을 쏟았으며, 오늘의 관점에서 역사인물을 재평가하는 인물연구에 주력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우리 역사를 재미있고 친근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찍이 역사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역사문제연구소장·『역사비평』편집인으로 활동하면서 한국근현대사 연구에 힘을 기울였으며, 특히 '동학농민전쟁 100주년 사업'을 주도하여 이를 학문적으로 재평가하고 대중적으로 알리는데 크게 공헌했다.

지금은 우리 역사의 깊이와 넓이를 품요롭게 담아낼 한국통사로서 "한국사 이야기"(전24권) 집필에 전념하고 있으며, 그외 다른 저서로 『동학농민전쟁 인물열전』 『이야기 인물한국사』 『조선후기 정치사상과 사회변동』 『역사와 민중』 『허균』 『역사인물이야기』 『역사풍속기행』 등 다수가 있다.

구리 지역문화 그 정체성과 해법



임 · 이 · 톡

경춘신문 발행인
한국만화가협회 부회장
혈맥, 배달나라 저자

1) 시작하면서

필자가 소설「혈맥」을 1993년부터 2년동안 스포츠서울신문에 연재하게 된 때는 그럴만한 동기가 있었다.

군사정권시절 일제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 세웠던 조선총독부에 오천년 역사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전시하고 중앙박물관이라는 껍질을 덮어 씌웠다. 일부 사학자들과 뜻있는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군사정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박물관의 문을 연 것이다. 실로 땅을 치며 통탄할 일이었다.

중국의 동북부와 만주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걸쳐 거대한 영역을 지배하던 우리 배달민족, 서기전 2333년 환웅거불단(桓雄居弗檀)의 아들로 태어난 단군이 천제(天帝)에 즉위하면서 나라이름을 주신(朝鮮)으로 개천(開天)하여 단군조선을 건국하였고, 서기전 206년 부여국 천황 해모수(解慕漱)로부터 가우리후(高句麗王)로 책봉받은 고진(高辰)이 선조들이 빼앗겼던 요하(遼河)일대의 영토를 회복시켰다. 고진의 손자였던 고두막루 천황의 서손 고주무(高朱蒙)는 혼란했던 북만주를 평정하고 대고구려(大高句麗)를 세우지 않았던가! 그 후 광개토태왕에 이르러 북으로 거란을 정벌하고 서로는 중국대륙까지 뻗어나가 연나라를 떨게 하였으며, 고구려의 혁명아 연개소문에 의해 노도처럼 밀려드는 수십만의 당나라 군사를 물리치고 당태종을 전사시킨 위대한 민족의 역사가 있다.

여기에 천년의 사직(社稷)을 이어왔던 신라, 중국의 산둥반도에 외백제를 세웠고

일본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백제의 찬란했던 역사유물을 조선을 통치하며 관부로까지 사용하려 했던 조선총독부 건물에 전시한 군부정권의 행태에 반기를 들면서 소설 「혈맥」을 집필하게 된 것이다.

그 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한반도의 중심부에 자리잡은 경복궁의 강령전, 교태전 등 무려 4천여 칸에 이르는 우리 문화재를 헐어내고 지어올린 조선총독부 건물에 치욕스럽게 전시되었던 유물들이 옮겨지고 그 건물은 1995년 8월 15일 영욕의 세월을 뒤로 한 채 역사의 뒀칸으로 사라졌다. 지금 제자리를 찾은 경복궁의 자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구리시는 문화적으로 축복받은 도시이다. 1천년의 역사를 가졌던 신라의 수도 경주, 그리고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와 부여를 제외한다면 구리시만큼 유적과 유물이 많이 발견된 곳도 많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조선을 건국했던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을 비롯하여 17위의 왕과 왕비의 유택인 동구릉은 우리 나라 최대 규모의 능침지로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위대한 문화유산을 물려받은 우리가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들을 활용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2) 구리 문화의 정체성

자료를 보면 구리면이었던 지난 1963년도 인구는 10,595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2003년 현재 20만명을 넘어섰다고 하니 40년 사이에 무려 19만여 명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급격한 인구증가는 출산으로 인한 자연적 증가가 아닌 대부분 사회적 증가라고 볼 수 있다. 70년대 후반까지는 그 인구의 증가가 미미했던 반면 8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되는 사회구조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택지개발로 인한 서울 및 수도권 인구의 역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다른 지방에서 옮겨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리 문화에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갖겠냐는 것이다.

그들의 상당수는 주거공간이 구리일 뿐 대다수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몸엔 구리의 전통문화가 배어 있지 않다. 아니 구리 시민으로서의 문화적 자긍심을 찾아나설 만한 명분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씨조선 500년의 역사가 숨쉬는 동구릉에 대한 자긍심 또한 부족한 것이다.

어린 아이들 중에는 상당수가 구리시에 동구릉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동구릉에 역대 어느 왕이 안장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시는 물론 문화원에서도 나름의 노력이 없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겠으나 그동안 동구문화제가 범시민적인 행사로 연출되지 못하고 이씨 문종의 종친회 수준에 머무르게 했던 점도 간과(看過)할 수 없다 하겠다.

고구려 문화유적의 발굴 역시 구리시가 면(面)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아차산 고구려유적에 대해 발굴조사는커녕 관심조차 갖지 못했다. 그 후 구리면이 급격한 인구증가로 시로서의 면면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1986년 남양주군으로부터 독립하여 시로 승격되었고 1991년 구리문화원이 설립된 이후 몇몇 향토사학자에 의해 아차산에 대한 학술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1994년 2월 23일에 이르러서야 조사단이 구성되었다. 그 해 4월 22일 한국토지개발공사 학예연구원이었던 심광주 선생에 의해 아차산 능선에서 고구려 유적지를 처음 발견하였고 15개 지역에서 고구려 유적지를 확인하였다. 그 후 구리문화원이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용역을 주어 역사교과서를 수정해야 할 만큼 많은 양의 고구려 유물과 유적을 발굴해 냈고 남한에서는 고구려 연구의 핵심유적지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민선 2기 시장으로 취임한 박영순(전)시장은 제1회 구리 고구려국제학술회의를 주최하였고 구리시를 고구려 도시로 변신시켜 고구려 마을을 조성하고 유적지와 박물관 그리고 동구릉을 잇는 관광벨트를 만들어 본격적인 문화관광의 도시로 탈바꿈시킬 원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앞선 의욕으로 인한 저항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것은 그 동안 구리문화예술제로 열리던 문화행사를 구리 시민들에게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시키지 못하고 무리하게 고구려문화예술제로 바꾸어 개최한 점이다.

필자는 그 동안 지역언론을 이끌어 오면서 문제점으로 집행부의 홍보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

구리시민의 지역사회 의식구조를 일부 기술(記述)했듯이 지역사회의 역동적 변화에 가장 민감한 시민은 토착민들일 수 밖에 없다. 어느 지방이나 이주해온 주민

들에 비해 토착민들은 보수적일 수 밖에 없으며 이주민들에 의한 급격한 변화를 이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구려 도시로 탈바꿈시키려던 당시의 집행부가 간과했던 것 같다.

또 하나 지적한다면 구리문화원과의 연대관계이다. 구리 고구려문화예술제를 전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구리문화원을 형식적 참여수준으로 국한시켰다.

그 결과 민선 3기에 이르러 고구려 프로젝트에 강력한 제동이 걸렸음에도 상당수의 구리 시민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현 문화원 역시 앞장서서 고구려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지 못한 배경이 되고 만 것이다.

만약 구리문화원이 앞장서 이러한 사업들을 이끌어 왔거나 토착민과의 충분한 대화가 선행됐다면 과연 민선3기 집행부가 고구려 프로젝트를 중단시킬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3) 동구문화제 vs 고구려문화제

먼저 우리는 지역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시민의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구성요소는 지리적 공간 속에서 함께 생활하는 시민의 사회적 관념과 동조의식 그리고 참여의식과 공통된 귀속감 등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개념은 지리적, 행정적 경계의 구분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 문화적 특성에 의한 구분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현대사회에서의 문화상품개발은 절대적이며 구리문화의 활성화는 우리의 당면 과제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동질성 확보가 우선한다. 여기에는 주민의 참여의식과 공통된 귀속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문화의 공동체적 향유이다.

또한 구리시민들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구리시 고구려문화제”보다는 “구리시 문화예술제”라는 대명제 아래 고구려문화제, 동구문화제 등을 함께 연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동구문화제는 이씨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건국이념과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물질문명의 폐해로 무너져 내린 도덕과 윤리를 새롭게 일으켜 나가자는 취지 아래 1983년부터 이씨문종 종친을 중심으로 주최하고 있는 문화축제이다. 여기에는

주부백일장, 어린이사생대회, 태조고황제기 전국게이트볼대회 등의 행사가 이어지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충, 효, 예, 의 등 유교를 국가의 이념으로 삼아 우리 역사에 끼친 긍정적 영향을 상기시키는 일이다.

또한 민족혼을 새롭게 일깨우고 민족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자는 것인데 지적인 바 대로 이씨문중 종친회사업 정도로 비취지면서 구리시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지 못해 왔다.

해법이라면 올해 열리는 제21회 동구문화제는 종친회 중심이 아닌 문화원을 중심으로 집행부가 직접 참여하여 구리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구려문화예술제는 2000년 10월 6일 구리문화예술제를 탈바꿈시키고 출발한 민선2기 집행부의 작품이다.

아차산 제4 보루성 등에서 발굴된 군사유적 및 1천여 점의 유물을 중심으로 구리시가 고구려의 드높은 기상을 살려 구리시를 고구려가 살아 숨쉬는 도시임을 널리 알리고 구리시민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광개토태왕의 위대한 업적을 심어주어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구리시의 특화된 문화상품으로 개발시키겠다는 원대한 꿈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상당수의 시민들이 “구리시가 갑자기 고구려의 도시”로 바뀐데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구리문화예술제 범위 안에 고구려문화제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었다.

그 반론의 이유로는 첫째 구리시가 고구려와 역사적인 관련성은 있으나 역사적으로 볼 때 약 80여 년간 통치한 근거(삼국사기)밖에 없기 때문에 고구려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며, 둘째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강조하는 테마파크 조성시 문화재 발굴에 한계가 있으며, 셋째 구리시에서는 동구릉이 있고 동구문화제까지 열리고 있는데 고구려의 도시임을 강조하면서까지 구리문화예술제를 고구려문화예술제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들은 단순히 홍보 부족에서 오는 반론 정도로 넘길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구리시가 고구려의 도시라고 부르기에는 그 문화적 연관성이 약하다는 지적은 대다수 시민들의 여론인 만큼 구리문화예술제라는 대명제 아래 고구려문화제와 동구문화제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데는 큰 의의가 없을 것이다.

4) 두 문화제가 함께 어우러지기를 바라며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의 분권화가 어느 정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개념이 지역공동체의 개념에 더 가까워질 것이며 지리적, 행정적 경계로 구분되던 지역의 개념이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된 문화상품으로 바뀌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 구리시에는 장자못과 한강둔치 자연학습장은 물론 구리타워가 있고 동구릉이 있는 천혜(天惠)의 고장이다. 여기에 일천여 점의 고구려 유물과 유적이 발굴된 아차산이 우리 고장을 감싸고 있다.

이제 문화원과 구리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조상들이 물려준 위대한 유산을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정신적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문화특화사업을 펼쳐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족사를 복원한다는 의미부여와 함께 고구려인의 강한 기상과 섬세한 예술성을 살려 민족사의 교육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구려 민속촌과 민속촌 내에 고구려 역사전시관의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일관되게 하는 말은 5천년의 장구한 역사에 비해 그 역사를 함께 해 온 유적이 적다는 것이다. 서울 근교에는 고작해야 몇몇 고궁뿐인데 고구려 민속촌과 박물관이 건립된다면 서울에 도착한 관광객들은 모두가 구리를 거쳐 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동구릉과 구리타워, 장자못은 물론 한강둔치의 자연학습장으로 이어지는 관광코스로는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어렵다.

문화원과 구리시는 하루빨리 고구려 민속촌과 박물관을 건립하고 사적 제193호 동구릉의 역사적 사실을 고찰할 수 있는 조선왕위역사박물관도 함께 건립하여 우리 민족의 장구한 역사와 웅대한 유적과 유물들을 전세계인들에게 자랑하자. 그렇게만 된다면 구리시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 뛰어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가진 자랑스러운 도시가 될 것이며 고구려민속촌과 동구릉 그리고 구리타워와 장자못으로 이어지는 관광코스는 한국 제일의 관광벨트가 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관광산업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임을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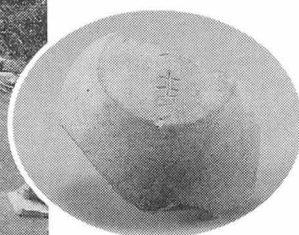
아차 산의 고구려 유물 ·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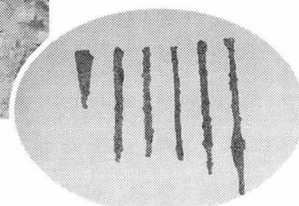
아차산 보루 저수시설



명문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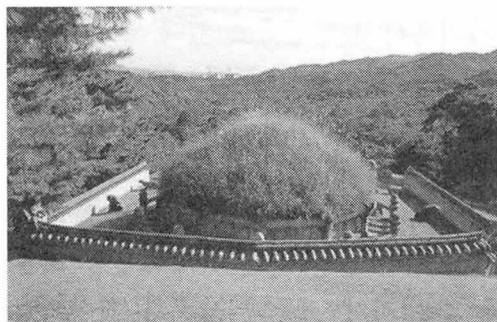


명문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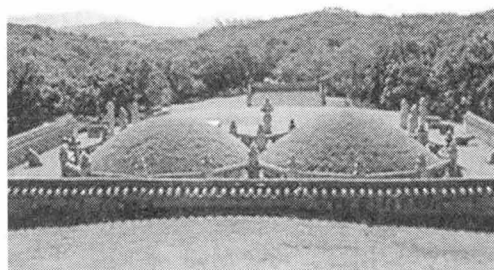


각종 화살촉

조선의 숨결이 살아숨쉬는 동구릉



건원릉(태조 이성계 묘)



원릉(영조대왕 묘)

고구려에는 38선이 없다

아차산에서 발굴된 고구려 유물·유적의 중요성 제고

최 · 중 · 택

(고려대 교수)

(아차산 고구려 유물 유적 발굴 단원)

지금부터 1500여 년 전인 475년 9월에 고구려왕 거련(巨璉:장수왕)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와서 백제의 왕도 한성(漢城)을 포위하였다. 백제의 개로왕(蓋鹵王)은 성문을 닫고 능히 나가 싸우지 못하였다. 고구려는 군사를 네 길로 나누어 양쪽에서 공격하였고, 또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놓아 성문을 불태웠다. 고구려의 대로(對盧:벼슬이름)인 제우·재증걸루·고이만년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북성(北城)을 공격하여 7일만에 함락시키고, 남성(南城)으로 옮겨 공격하였다. 성안은 위태롭고 두려움에 떨었다. 개로왕은 곤궁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기병 수십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가 서쪽으로 달아났다. 과거 개로왕의 신하였다가 고구려에 망명한 장수 재증걸루 등은 왕을 보고는 말에서 내려 절한 다음에 왕의 얼굴을 향하여 세 번 침을 뱉고는 그 죄를 꾸짖었다. 그리고는 왕을 포박하여 아차성(阿且城) 아래로 보내 죽였다.

이상은 『삼국사기(三國史記)』백제본기(百濟本紀) 개로왕 21년 조에 나오는 백제의 한성 함락 기사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최근 한강 북안의 구리시와 남안의 서울 시에서 이루어진 발굴조사를 통해 이러한 역사기록이 뒷받침되고 있다. 위 기사에서 북성은 한강 남안의 풍납토성(風納土城), 남성은 몽촌토성(夢村土城)으로 추정된다. 아차성은 아차산성(阿且山城)을 가리키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은 여러 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하여 백제의 도성으로 밝혀지고 있다. 아차산성은 몇 차례의 시굴조사가 있었으나 아직 고구려와 관련된 유물과 유구가 본격적으로 조사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한강 북안의 구의동을 비롯하여 아차산의 주능선과 용마봉의 능선에서는 20여기의 고구려 보루가 확인되었고, 이중 일부는 그 구조가 상세히 발굴되었다.



그림 1. 아차산 고구려 보루 분포도

구리시와 서울시의 경계를 이루는 아차산 일원에는 백제의 한성(漢城:풍납토성·몽촌토성 일원)과 한강을 사이에 두고 많은 보루가 배치되어 있다. 구리시와 구리문화원의 지원으로 아차산 4보루와 시루봉보루는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아차산의 보루들은 두줄로 배치되어 있는데, 옹마산의 보루들은 중랑천변을, 아차산의 보루들은 왕숙천변을 관할하던 것이다. 발굴조사를 통해 구리동보루에는 10여명, 아차산 4보루에는 100여명의 고구려 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아차산 일대의 고구려유적에 대해서는 1994년 구리시와 구리문화원에 의해서 처음으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지표조사를 통하여 15개소의 고구려 보루가 확인되었다. 이들 보루는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봉우리의 정상을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는데, 이는 주변 지역 특히, 한강 남안의 몽촌토성과 풍납토성 일대를 조망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들 보루들은 아차산과 용마산 줄기를 따라 2줄로 배치되어 있으며, 보루들 사이의 거리는 400~500m 가량으로 비교적 일정한 편인데, 각 보루는 목책(木柵)이나 석축 등의 시설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19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 동안 구리시와 구리문화원의 의뢰를 받은 서울대학교박물관 조사단에 의해 아차산 제4보루와 시루봉보루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중 아차산 4보루는 그 구조가 잘 남아있었다.

아차산 4보루가 위치한 곳은 해발 285.8m의 작은 봉우리로 남북으로 뻗은 아차산 능선의 가장 북단에 해당된다.

이 봉우리는 남북으로 긴 말안장 모양을 하고 있으며, 가운데가 약간 들어가고 양쪽 끝은 두 개의 작은 봉우리 형태를 하고 있다.

이 장타원형 지형의 둘레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데, 경사면을 따라 3~20단의 석축 성벽을 쌓아서 보호하였으며, 정상부의 평탄지에 온돌시설을 한 건물지가 배치되어 있다.

성벽의 총 연장은 210미터에 불과하지만 성벽 남서모서리와 동벽 중앙부에 사방 5m 가량의 치(雉)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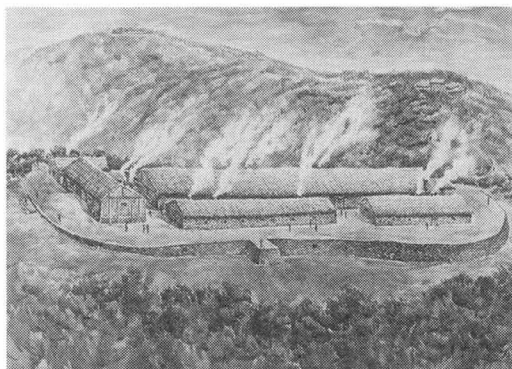


그림 2. 복원된 아차산 4보루 전경

아차산 정상에 위치한 보루로 1997년과 1998년에 걸쳐 발굴되었다. 7기의 건물이 축조되어 있으며, 100여명의 군사가 주둔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지 내부에는 1기 이상의 온돌과 저수시설 및 배수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는데, 다른 보루들도 이와 비슷한 구조로 추정된다. 뒤편에 용마산에 설치된 두 기의 보루가 보인다.

「후부도루형(後部都魯兄)」이 새겨진 토기접시를 비롯하여,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고구려의 한강유역 경영에 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성벽 안쪽에는 7기의 건물이 축조되었다. 모두 장방형의 평면을 하고 있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돌과 점토를 섞어 쌓은 담장식 벽체이고, 그 위에 맞배식 지붕을 덮었다. 이 중 1호와 3호 건물지가 특징적인데, 각각의 구조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호 건물지는 유적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동서 15m, 남북 8m 가량 된다. 이 건물지는 다른 건물지와는 달리 동서 방향의 장축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건물들 보다 1.5m 정도 높은 위치에 축조되어 있다. 따라서 건물지의 북쪽과 동쪽, 서쪽은 석축을 쌓아 바닥 높이를 맞추고 있다. 이 건물지의 남벽 중앙부는 원래 지형이 높았던 관계로 석축은 쌓지 않았으며, 벽체 바깥쪽으로 지름 20cm 가량의 기둥구멍이 남아 있다. 기둥구멍의 간격은 1m 정도이며, 일부는 남서 모서리 쪽의 석축 밖으로 계속되고 있어서 석축 밖으로 기둥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건물 내부에는 동서 방향의 보를 받치던 초석이 1개 남아 있으며, 건물지 중앙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두기의 온돌이 배치되어 있다. 이 건물지는 가장 높은 곳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닥 면이 잘 보존되어 있었으며, 온돌 주변에서 1점의 명문토기를 포함하여 30여점의 토기와 많은 양의 철기가 출토되었다. 이 건물은 위치 상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며, 방향도 다른 건물들과 다르며, 아차산 제3보루와 이어지는 입구 쪽에 설치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지휘관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3호 건물지는 이 유적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물지인데, 동서 폭이 10m, 남북 길이가 45m 가량되는 대형 건물지이다. 건물지의 네 벽은 모두 할석과 점토를 섞어



그림3. 복원된 아차산4보루 온돌방 내부

아차산 4보루의 병사 10여명이 기거하던 온돌방에 절반 가량을 복원한 모습으로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방안에는 'ㄱ'자로 깔린 온돌고래가 있고, 한 쪽에는 낮은 시렁 위에 저장용 큰항아리들이 놓여있다. 두 개의 아궁이 위에는 철 솥이 걸려 있고, 그 위에는 뚜껑 덮은 시루가 올려져 있다. 아궁이 주변에는 여러 가지 생활용기가 정리되어 있고, 아궁이 왼쪽에는 불씨 저장소와 철제 닢이 있다.

서 쌓았으며, 동벽 가운데에 문비석(門扉石)이 1점 놓여 있어서 이곳에 주 출입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지 내부에는 중앙의 장축방향으로 기둥구멍과 초석이 배치되어 있어서 남북 방향의 보를 받치던 기둥이 세워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건물지 내부는 다시 여러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지는데, 온돌 시설이 있는 방 3칸과 2기의 저수시설 그리고 남쪽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방은 크기에 있어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방형으로 면적은 50m² (15평 내외) 가량 된다. 또 건물지의 동벽과 서벽 가운데에는 각각 1개씩의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용한 물을 밖으로 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온돌은 건물지 내부에서 확인되는데, 모두 12기가 확인되었다.

온돌은 「ㄱ」자형과 직선형의 두 종류가 있으며, 모두 외고래 형식으로 길이 30cm, 폭 10~15cm 가량의 板石을 세워서 벽체를 만들고, 그 위에는 역시 납작하고 긴 판석으로 뚜껑을 덮은 형태이다.

일부는 온돌 벽체의 상단부를 20cm 안팎의 할석과 점토를 섞어서 쌓은 경우도 있다.

온돌의 아궁이는 온돌고래와 직교하는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아궁이 좌우에 좁은 판석을 세우고 그 위에 길다란 이맷돌을 올려서 아궁이를 만들고 있다.

온돌아궁이 가운데에는 좁고 긴 돌을 세워 놓은 경우가 많은데, 아궁이에 걸린 솥의 밑바닥을 받치기 위한 시설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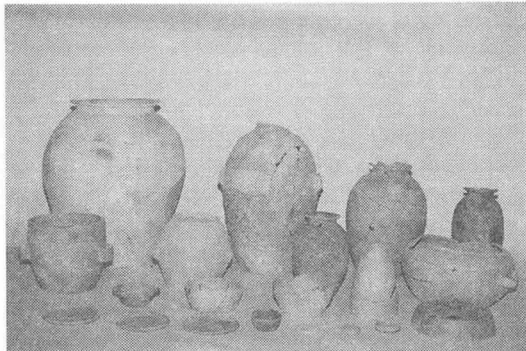


그림 4. 아차산 4보루출토 고구려 토기 각종

아차산 4보루에서는 트럭 2대 분량의 많은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6개월간 2천여명이 동원되어 복원한 결과 26개 기종, 538개체분의 토기가 확인되었다. 출토된 모든 토기가 고구려 토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선 태토(胎土)는 고운 니질(泥質)로 되어 있고, 표면색은 황갈색이나 흑색을 띠고 있으며, 소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표면은 만지면 손에 묻어날 정도로 약화되어 있다. 기종은 장동호류를 비롯하여, 호·옹류, 완류, 둥이류, 시루류, 뚜껑류, 이배류, 접시류, 직구옹류 등 고구려 중기의 대표적인 기종을 망라하고 있다. 모든 토기가 평저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호·옹류의 경우는 밖으로 말리듯이 외반된 구연부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 시루나 둥이류의 경우 특징적인 대상파수(帶狀把手)가 달려 있다. 제작기법이나 형태상의 특징으로 보아 이들 토기들의 중심연대는 6세기경으로 추정된다.

구의동보루의 경우 온돌아궁이에 두 개의 철 솥이 걸린 채로 발굴되었으나, 아차산 4보루의 경우 아궁이에 철 솥이 확인된 예는 하나도 없다. 또한 구의동보루에는 다량의 무기류가 완형으로 출토되었는데, 아차산 4보루에서는 파손된 무기 몇 점을 제외하고는 무기류가 출토되지 않았다. 이것은 구의동보루가 갑작스런 기습으로 인하여 전멸하였던데 비해 아차산 4보루에 주둔하던 고구려 군은 철 솥과 무기류는 가지고 철수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에 따라 출토된 무기의 숫자를 통해 구의동보루에는 10여명의 군사가 주둔하였으며, 아차산 4보루에는 100여명의 군사가 주둔하였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1994년의 지표조사에서부터 1997년부터 4년 간 실시된 발굴조사를 통해 아차산 일원의 고구려 보루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졌다. 출토유물의 분석을 통해 이들 유적은 475년 장수왕의 한성 공함을 전후한 시기에 축조되어 551년 나제연합군이 한강유역을 회복할 때까지의 80여 년 간 존속하였음이 밝혀졌다. 각각의 보루에는 대소 규모의 차이에 따라 10여명에서 100여명의 고구려 군이 주둔하였던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아차산 4보루와 시루봉보루의 발굴을 통해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당시 고구려 군의 편제 등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란 수확의 하나이다. 발굴된 유물들의 분석을 통해 고구려 토기와 철기류에 대한 새로운 분석도 가능해졌다. 무엇보다도 큰 수확은 구리시와 구리문화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이 두 유적의 발굴조사를 통해 남한에서 고구려 고고학연구

가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아차산의 고구려 보루 유적이 발굴되면서 임진강유역과 충남 대전, 충북 청원 지방에서 유사한 성격의 고구려 유적이 하나둘 발굴되고 있다.

그동안 남북분단이라는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우리 민족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의 하나인 고구려에 대한 연구는 북한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중국에 대한 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중국에서의 고구려 연구도 일부 시도되었지만 이 역시 정치적인 상황으로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아차산 4보루의 발굴 성과는 북한의 개설서에도 반영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다.

최근 평양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4점의 국보를 포함한 고구려 유물들과 벽화고분 모형들이 서울에서 전시되고 있다. 아차산 고구려유적을 발굴하고, 북한에 가서 고구려 유물을 인수해와 서울에서 전시회를 준비한 필자로서는 남다른 감회가 있다. 전시회 준비중에 누군가가 “고구려에는 38선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 우리 민족 공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인 고구려를 위해 북한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평양에서 유물과전시물을 정성스레 준비하였고, 남한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이를 서울로 가져와 전시를 하였다. 지난 3월 1일 3·1민족대회에 참석한 북한의 대표단 일행도 이 전시를 함께 관람하고 이구동성으로 고구려와 통일을 말했다. 통일을 위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고구려의 역할은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이처럼 중요한 고구려 유적이 구리시의 아차산에 밀집분포하고 있다. 이중 2개가 발굴되었으나 아직 해명되지 않은 여러 문제를 밝히기 위해 앞으로의 추가발굴이 필요하다. 또한 발굴된 유적을 포함한 아차산 일원의 고구려유적을 묶어 사적공원화 하는 등 보존 대책의 수립도 절실하다. 이미 정비를 마친 한강 남안의 백제유적지들과 연계한 답사코스의 개발도 고려해 볼만하다.

청소년 놀이와 음식문화의 어제와 오늘



이 · 병 · 탁
(전 부양초교 교장)

1. 지구촌 어느 곳에서나 그 민족 나름의 전통적 생활양식과 행태는 각각 다르게 이어져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한반도 안에서도 고장마다 다른 민속양식이 있고 또 이를 계승 발전 시키려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5천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문화민족이기에 독특한 문화 양식이 많이 전래되어 왔다.

그런데 195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사회조직, 의례(儀禮), 민간신앙, 관습, 가옥, 가구, 의복 등 생활의 모든 행태가 다른 나라에 비해 급속히 변천되어 왔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 가운데 특히 이 시대에 사는 청소년들의 놀이와 음식문화는 어떠한 경향인지 살펴보고자 구리시내 초·중·고 남녀 학생들을 표본 조사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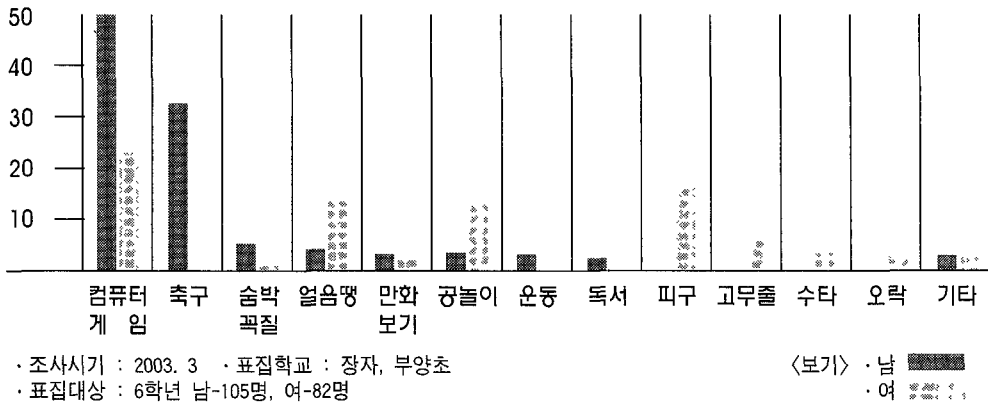
2. 놀이 문화

50세 이상 기성세대들의 성장기에 주로 남자는 연날리기, 제기차기, 찰매타기, 팽이치기 윷놀이 공차기등이며 여자는 널뛰기 그네타기, 줄넘기, 술래잡기, 사방치기등이었다.

그런데 오늘의 청소년들이 즐기는 놀이를 설문지를 통해 초·중·고등학교별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청소년 문화

〈초등학교 놀이문화 도표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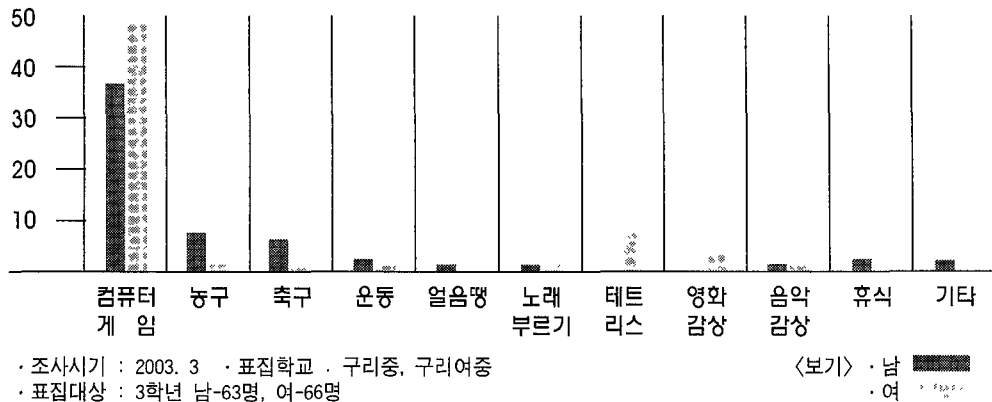


〈해석〉

- 1) 남학생의 대부분이 컴퓨터 게임(48%)을 즐기고 있으며 그 다음이 스포츠중 축구(30%)를 좋아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 2) 여학생도 역시 컴퓨터 게임(28%)을 즐기는 학생이 많으나 남학생보다 현저히 낮으며 다음으로 피구나 공놀이 종류를 좋아하는 경향이었다.
- 3) 민족의 고유 민속놀이인 숨바꼭질이나 고무줄 놀이를 즐기는 학생이 남녀 모두 13명(7%)으로 민속놀이가 점차 퇴조되어감을 알 수 있다.

한편 중학생의 놀이문화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 놀이문화 도표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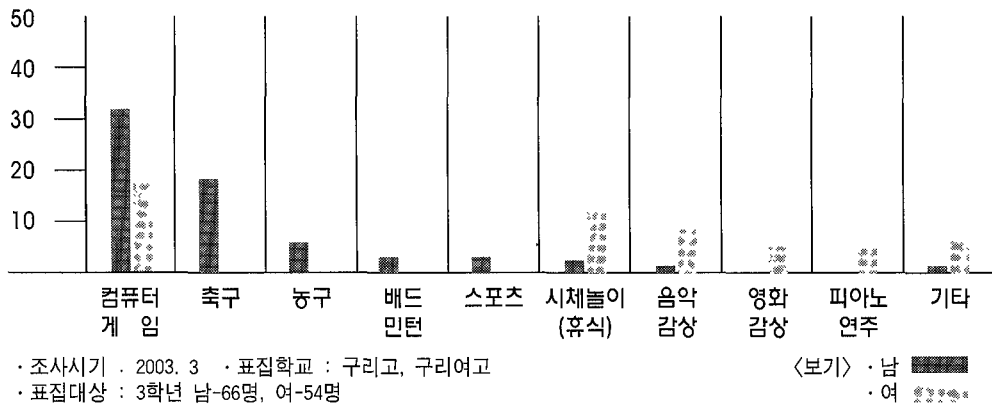
청소년 문화

해석>

- 1)남학생 대부분이 컴퓨터 놀이(59%)를 즐기며 다음은 농구 축구등 스포츠를 좋아하고 있으며
- 2)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컴퓨터 놀이(74%)를 즐기는 비율이 높은 것이 초등학교 여학생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3)특히 중학생의 남녀 대부분이 컴퓨터 놀이(67%)에 집중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놀이문화 도표Ⅲ〉



〈해석〉

- 1)남학생의 48%가 컴퓨터 놀이를 즐기고 있었으며 그 외의 학생은 축구, 농구, 배드민턴등 스포츠로 시달리는 학습의 피로를 벗어나려는 듯 체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보이며
- 2)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컴퓨터놀이(33%)가 현저하게 저조하고 시체놀이(잠, 휴식)나 음악, 영화감상(56%)등으로 학습의 피로를 회복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3. 음식문화

그렇다면 식생활 음식문화는 어떠한가?

해방후 6.25 전쟁은 한반도를 폐허로 만들어 굶주림과 질병등 외국 구호에 의존하여 살아왔던 기성세대들은 보리겨떡, 쑥개떡, 술재강, 산나물등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과거를 모르는 시대의 청소년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식생활(음식문화)을 즐기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여 조사하여 보았다.

(주:놀이문화조사와 같은 학교에서 조사한 도표임)

〈초등학교 음식문화 도표Ⅳ〉

남	음식명	김치지게	피자	햄버거	통닭	라면	불고기	떡볶이	스테이크	돈가스	만두	카레라이스	탕수육	스파게티	설렁탕	계란찜	된장찌게	기타	계
	학생수	15	15	12	9	8	7	6	4	3	3	3	3	3	2	2	2	8	105
	비율%	14	14	11	9	8	7	6	4	3	3	3	3	3	2	2	2	8	
여	음식명	김치지게	통닭	떡볶이	피자	칼비	햄버거	돈가스	스파게티	된장찌게	탕수육	짜장면	김밥	족발	순대	해물탕	감자탕	기타	계
	학생수	15	11	8	7	7	7	5	3	3	2	2	2	2	2	1	1	4	82
	비율%	18	13	10	9	9	9	6	4	4	4	2	2	2	2	1	1	5	

〈해석〉

- 1)남학생은 김치찌개나 피자를 좋아하는 학생이 다수(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20여종)의 음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여학생도 다양한 음식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특히 우리 고유의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학생(15%)이 많은 것으로 볼 때 아직은 토속적인 음식문화의 뿌리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음식문화 도표Ⅴ〉

남	음식명	김치지게	칼비	피자	떡볶이	돈까스	생선회	초밥	통닭	라면	햄버거	패스트푸드	아구찜	부대찌게	스테이크	스파게티	랍스타	추어탕	샌드위치	기타	계
	학생수	8	7	6	5	4	3	3	3	3	2	2	2	2	1	1	1	1	1	8	63
	비율%	13	11	10	8	6	5	5	5	5	3	3	3	3	2	2	2	2	2	13	

청소년 문화

여	음식명	피자	김밥	통닭	비빔밥	김치찌개	스파게티	떡볶이	육개장	된장찌개	생선회	부대찌개	우동	냉면	라면	만두	닭도리탕	초밥	해물탕	기타	계
	학생수	9	8	6	6	4	3	3	3	3	2	2	2	2	2	2	2	2	1	4	66
	비율 %	14	12	9	9	6	5	5	5	5	3	3	3	3	3	3	3	3	2	6	

〈해석〉

-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김치찌개를 선호하는 학생이 많고 좋아하는 음식의 종류가 초등학생보다 더욱 다양(24종) 하였다.
- 여학생 역시 다양한 음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특정 음식에 집중경향이 없고 비교적 종류별 고르게 분포되고 있으므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고등학교 음식문화 도표 VI〉

표	음식명	고기	김치찌개	피자	생선회	감자탕	통닭	갈비	삼겹살	닭도리탕	김밥	냉면	햄버거	돈까스	패스트푸드	초밥	기타	계
	학생수	9	8	6	6	6	4	3	3	2	2	2	1	1	1	1	10	66
	비율 %	14	12	9	9	9	6	5	5	3	3	3	2	2	2	2	15	
여	음식명	김치찌개	갈비	만두	비빔밥	통닭	김밥	삼겹살	순두부	냉면	곱창	돈까스	감자탕	라면	청국장	피자	기타	계
	학생수	11	5	5	4	3	3	3	3	3	3	2	2	2	2	1	2	54
	비율 %	20	9	9	7	6	6	6	6	14	6	4	4	4	4	1	4	

〈해석〉

- 남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육류(14%)로 학습에 피로를 느껴 자연적 영양섭취가 필수적일 것으로 예견되며
- 초·중·고 학생 대부분 선호하는 식품으로 피자를 꼽을 수 있으나 고등학교 여학생 54명 중에서는 1명(1.9%)만이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이한 점을 보이고 있다.

4. 맺는 말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새마을 운동을 기점으로 큰 변혁의 전환기를 맞으면서 특히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제반 생활양식의 변화는 서구화를 가속화했다.

특히 정보, 통신의 발달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을 컴퓨터 노예로 전락시키는 컴퓨터 증후군에 걸리게 했다.

그러나 컴퓨터의 전자파로 인한 청소년들의 시력저하 등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염려되는 바 크다.

식생활 문화도 피자, 통닭, 햄버거등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선호하는 등 영양과다 섭취와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현상(아이 성인병)도 우려되는 바 크다.



〈고싸움〉



〈제기차기〉



백제의 미소를 찾아서



손 · 태 · 일
(구리문화원 부원장)

역사는 교훈이요 문화는 생활양식이라고 한다. 때문에 옛것을 알고 새것을 익히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은 역사를 조명하고 일구어가는 기본 자세다. 역사문화의 창조자와 향유자가 인간이기 때문이다.

구리문화원은 옛 선조들의 삶의 모습과 정신세계를 돌아 볼 수 있는 역사체험의 기회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민족문화의 뿌리를 조명해보고 시민정서함양을 위해 년4회 전국문화유적답사 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그 첫 번째로 백제 불교문화의 꽃을 피웠던 충남 서산(瑞山) 지역을 찾았다.

“백제의 미소를 찾아서”란 주제로 2003년 4월22일 두 대의 버스에 나누어 탄 구리문화원 유적 답사반은 총 7,310m인 바다 위 서해대교를 지나 해안선을 따라 가면서 전문 가이드로부터 서산에 산재해 있는 역사와 문화유적에 관해 사전 설명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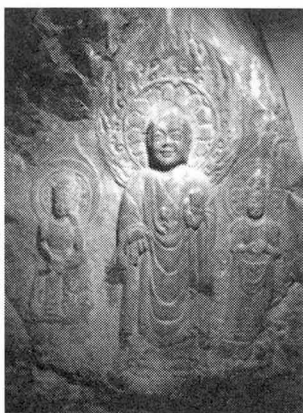
태안반도로 완만한 해안선에 이어져 있는 서산은 조류로 인한 온난한 기후와 비산비야(非山非野)의 낮은 산들, 그리고 완만한 평야가 바다 가까이 이어져 각종 해산물이 풍부하고 산동반도(山東半島)와는 최단거리에 위치하여 역사적으로 대륙문물의 전초기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서산은 천수백년동안 모진 비바람속에서도 원형을 잃지 않은 자태로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국보 제84호의 마애삼존불상을 비롯한 수많은 역사 문화유적이 보존돼 있는 곳이다.

구리문화유적 답사반이 처음 답사지로 택한 곳이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에 있는 마애삼존불상이었는데 이곳에 도착하니 瑞山文化院 김현구 원장님과 신상천 부원장님이 우리 답사반 일행을 따듯이 맞아 주었다.

특히 신상천 부원장은 해박한 지식과 노익장으로 보원사터, 개심사, 해미읍성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하며 안내해주어 서산문화원에 고마움을 느끼게 했다.

■ 마애삼존불상(국보 제84호)



〈마애삼존불상〉

우리 답사반이 처음 찾은 서산군 운산면 용현리에 있는 마애삼존불은 백제 최고의 불상으로 가야산 끝자락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는데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시냇물을 건너 불상입구에 세워진 해탈문(解脫門)을 지나니 속세의 온갖 번뇌를 벗어버린 듯 했다.

각아지른 듯한 암벽에 새겨진 마애삼존불상은 중앙에 석가여래입상, 왼쪽엔 미륵보살상, 오른쪽에 제화갈라보살상을 조각하였는데 특히 중앙 석가여래의 미소는 “백제의 미소”라 명명되어진 불상으로

구리문화유적 답사반의 답사주제를 “백제의 미소를 찾아서”로 한 것도 이때문이었다.

백제말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삼존불은 석굴이 아닌 자연 암반에 조성되었는데 특히 입가의 미소가 빛의 명암에 따라 바뀌는데 참 아름다움이 있었다한다.

그런데 태양빛을 받아야 그 천변만화한 웃음을 감상할 수 있다는데 지금은 전설에 간혀있어 조명에 의존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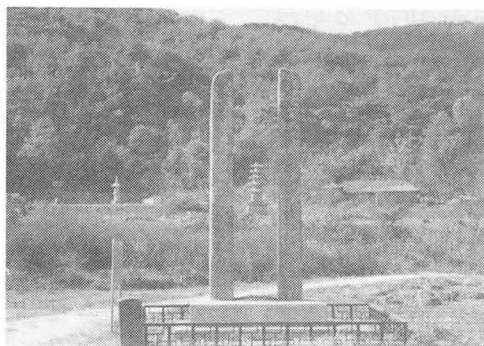
마애삼존불의 잔잔한 미소에 어린 뜻은 무엇일까?

산중턱 삼존불에서 내려와 삼존불 암반을 올라다보니 소나무 한그루 바위틈에 뿌리를 내린채 외로히 서 있다.

비바람 찬서리에도 꺾끗이 불변함은 우리 민족의 기상일까

낙낙장송되었다가 독야청청하려는 것이리라

■ 보원사터



〈보원사터 당간지주〉

마애삼존불에서 골짜기로 한마장쯤 올라가면 사적 제316호인 보원사터가 있다.

고란사라고도 불리어졌었다는 이 절은 마애삼존불의 본사라고도 하는데 밝혀진 것은 없고 지금은 절터만 남아있다.

보원사는 백제 멸망까지는 크게 융성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고려초 탄

문(900~975) 국사와 관련되어 중요한 사찰이었음이 탄문의 탐비명문에 의해 밝혀졌다.

보원사터에 우뚝 솟은 두 개의 당간지주(幢竿支柱)는 보물 제103호로 지정된 4.2m의 거대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보기 드물게 당간을 받치는 간대만 남아있는데 신라말~고려초에 세운 것으로 절에서 각종 행사시 탕화나 기(旗) 등을 높이 달아 매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보원사터 앞에 있는 5층 석탑은 8.9m에 이르는 고려초기 탑으로 추정되나 지금은 복원중이라 해체되어 볼 수가 없었다.

■ 개심사(開心寺)

보원사터를 답사한 일행은 개심사로 떠났다.

이 절은 수덕사의 말사로 백제 의자왕 14년(654)에 창건되고 고려 충정왕 2년(1250)에 처능대사가 중건하였다고 하나 확실한 자료는 없다고 한다.



〈개심사 대웅전〉

특히 개심사는 가람배치가 일주문→천왕문→해탈문을 거쳐 법당 마당에 이르는 일반 사찰과는 달리 안양루 옆을 돌아 누각 옆 계단으로 진입케 했는데 계단 위에 해탈문을 세운 점이 특이했다.

대웅전 서쪽으로 늘어선 요사채인 신검당은 개심사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초기의 연대가 확실한 건축물로 옛 선조들 주거양식의 고풍(古風)을 그대로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 해미읍성



〈해미읍성 진안문 앞에서〉

개심사를 떠나 답사의 마지막 코스로 해미읍성을 가는 동안 창 밖에 보이는 비산비야의 완만한 언덕과 평야가 아름다웠다.

빡빡한 일정 때문에 미처 가보지 못한 서산의 역사문화유적에 대해서도 신상천 서산문화원 부원장은 설명을 아끼지 않았는데 멀리 버스 창 밖으

로 보이는 태봉산의 명종대왕 태실비며 야산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누런 소 떼의 서산 농장등에 관하여서도 설명을 빼놓지 않았다.

해미읍성은 해미면 읍내리에 소재한 사적 제116호의 성으로 성종 22년(1491)에 축성 되었는데 조선시대 평지에 축성한 석성으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이다 성곽길이 1800m, 높이 5m, 성내 면적 4만1천평방m인 이성은 서해안 방비의 요충지로 국방상 필요에 의해서 축성되었다고 한다.

한때는 성벽 주위에 탱자나무를 심어 적병을 막았다하여 탱자성이라 불렀다고도 하는데 지금은 진남문에서 관아문에 이르는 진입도로 주변에만 일부 남아있을 뿐이다.

해미읍성에는 이순신 장군이 병사영의 군관으로 부임하여 10개월간 근무하였고 다산(茶山) 정약용선생이 잠시 유배되었던 곳이기도 한데 특히 천주교 박해 80년만에 1천명의 순교자가 처형된 성지로도 유명하다. 박해 흔적으로는

1866년 병인박해 때 잡혀온 천주교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철사로 묶어서 고문을 가했다는 6백년된 호야나무가 옛 옥사터가 있던 곳에 상처 흔적을 남긴 채 홀로 서있고 그 옆에는 천주교 순교비가 세워져 있다.

해미읍성은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많은 학생들이 역사체험으로 답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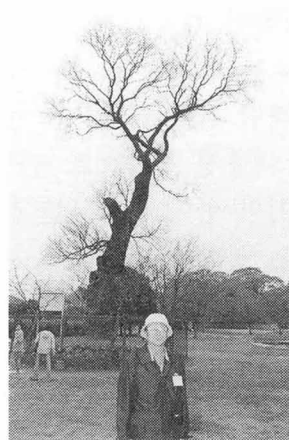
우리 답사반은 천주교 박해의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한 해미읍성을 돌아보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 역사의 현장으로 돌아간 듯한 역사체험을 만끽할 수 있었다.

문화유산의 생산과 소비자로서의 인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서 구리 문화유적 답사반은 해미읍성 문을 나섰다.

구름에 가려진 해는 질때가 되었건만 진안문(성문)위 망루에는 아직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역사의 현장에 눈을 돌리고 있었다.

“백제의 미소를 찾아서”란 타이틀의 역사체험에 뿌듯함을 느끼며……



〈천주교도들을 철사줄에 묶어 고문을 가한 흔적을 간직한 600년된 호야나무〉

제1회 구리문화유적 답사반은 瑞山에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놓았다.

日本 文化記行

글. 안 영 기
사진. 김 원 태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의 일본 관서지역 학술 탐사반 일원으로 인천 공항을 떠나 일본 간사이(關西)공항에 도착한 것은 2002년9월6일 정오였다.

바다의 도시라 할 일본 최대의 항구도시 오사카(大阪)항의 바다를 메꿔 만 들었다는 간사이공항은 규모나 시설이 크고 다양했지만 우리의 인천 공항에 는 미치지 못했다.

바다 위 구름다리(철교)를 지나 오사카 시내로 들어가는 넓지 않은 일본식 도로에 물흐르듯 질서 정연한 교통문화를 창 밖으로 내다보면서 준비해간 일본 관서지방 고대문화 안내 책자를 들쳐 보았다.

관서 지방은 한일 고대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한국문화가 전래해 일본문화 의 꽃을 피웠다는 아스카(飛鳥) 문화군(群)이 산재해 있는 곳이다.

빠듯한 일정상 점심 후 쉴 틈도 없이 처음 도착한 곳이 오사카성이었다.

• 오사카성(大阪城)

오사카성은 16세기 후반 천하를 통일한 도 요도미히데요시(豊臣秀吉)가 축성했다는 500년 역사의 오사카 최고(最古)의 건축물로 17세기 전란으로 소실되어 그 후 재건되었 으나 8층의 천수각(사진1)은 다시 소실되어 20



〈사진1-오사카성〉

세기 전반에야 완건 되었고 천수각에는 당시의 무기류와 갑옷, 민속자료등 역사자료가 전시되고 있었으며 특히 풍신수길의 일대기를 인형연극으로 재연해 놓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천수각 8층을 올라가는 동안 층마다 나이든 할머니들이 나무 층계를 깨끗이 걸레질로 청소하고 있었다. 오사카성은 단일 건축물로서는 우리나라의 성곽보다 크고 웅대하여 한 시대를 풍미하던 영웅들의 면모를 짚어 볼 수 있었는데 특히 우리나라 성곽이 산(山)의 지형지물을 이용한 산성(山城) 위주임에 비해 오사카성은 평지에 인공수로를 성 주위에 만들어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특히 성벽 하부의 축조법이 우리나라처럼 동일한 돌로 축조한 것이 아니라 5m이상의 거대한 돌로 하부구조를 튼튼히 쌓은 것이 특이했다<사진2>.



<사진2-오사카 성벽>

그런데 일본 문화유적답사를 통해 느낀 점은 어느 유적지를 둘러보아도 깨끗이 청소되고 정돈됨은 물론 관리인들의 친절도가 철저하여 문화유산들을 보존, 관리하는 일본 문화재 당국의 의식과 관람하는 일본 국민의 문화의식이 돋보였다.

· 아스카(飛鳥)문화와 백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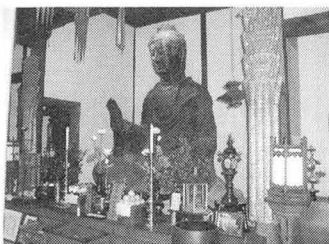
오사카성을 둘러본 일행은 나라(奈良)의 아스카 지역으로 향했다. 아스카(安宿, 飛鳥, 明日香, 阿須加라고도 함)는 나라현(奈良縣) 야마토분지 남쪽에 있는 분지로 백제 고구려인들이 이곳에 집단 이주하여(6세기경) 이지역의 지배세력이 되었던 지역으로 현재는 인구 7천명 정도의 농촌이지만 일본의 귀중한 문화유적지와 매장문화의 보고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곳의 문화는 한반도에서 온 개척자(渡來人 歸化人)들이 와서 남긴 문화인데 “아스카”를 안숙(安宿)이나 비조(飛鳥)라고 하는 것은 백제인

들이 와서 편히 쉬던 곳, 또는 백제인들이 철새처럼 날아온 곳이란 유래에서 나온 말로 明治유신 이후에는 명일향(明日香)이라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아스카는 백제의 아좌태자가 초상화를 그렸다는 일본 성덕태자의 출생지로 지금도 일본인들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곳으로 우리나라 부여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문화의 꽃을 피우게 된 아스카 시대는 보통 일본 추고(推古) 천황이 즉위한 AD592-645년까지를 말하는데 이 시대 문화를 일컬어 일본 최초의 “아스카 문화”라고 한다.



〈사진3-아스카대불상〉

이 아스카 지역에는 일본 최초로 지은 법흥사(AD596)가 있는데 이를 아스카사(寺)라고하며 이 절을 짓기 위해 일본은 백제에서 사원건축기사를 모셔왔으며 아스카사 본존 대불인 아스카 대불상(사진3)은 백제 사마달(司馬達)의 손자인 지리불사가 건립하였다고 한다.

아스카에는 동대사(東大寺)(사진4) 및 국영 아스카역사 공원의 석무대 고분(사진5)등 많은 유적들이 보존되고 있었다. 특히 교토(京都)에 있는 법隆사 등의 극치인 회화는 백제 뿐 아니라 고구려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추고 천황이 법隆사 불상(사진6)의 조영에 착수하자 고구려 영양왕은 황금 300냥을 보냈으며 아스카문화의 미술을 돕기 위해 고승 담징을 보내기도 했다.



〈사진4-동대사〉



〈사진5-석무대 고분〉



〈사진6-법隆사 불상〉

일본이 세계에서 자랑하는 백제 관음상과 광릉사의 미륵상(사진7)은 조각예술의 원숙함을 보여 주는 것으로 백제 아좌태자가 그린 성덕태자상(사진8)이나 고구려 담징이 그린 금당벽화나 약사상, 석가삼존상은 한국 석굴암의 불상 및 중국 운강의 석상과 함께 동양3대 예술품의 하나로 세계에 알려져 있다.



〈사진7-광릉사 미륵상〉



〈사진8-성덕태자상〉

· 일본의 농촌 모습

아스카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기 위해 오사카에서 나라(奈良)로 향하는 일본 농촌의 모습은 깨끗하고 정결했다.

쓰레기 하나 볼 수 없는 깨끗한 가로변이나 농로, 잘 정돈된 논밭과 과수원 그리고 일본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한 농촌 가옥은 진한 잿빛기와 일색으로 한결같이 화려함보다는 편의성을 앞세운 가옥 구조였다.

자연 속의 시골이면서도 자연을 정원으로 끌어들여 어느 집이나 나무 한 그루씩은 심어 놓은 자연속의 인공미가 가미된 농가 모습이다.

특히 일본의 주택문화는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쉽게 전통의 가치를 버리고 바꾸는 것에 비해 일본의 주택문화는 일본 고유의 전통방식을 유지하면서 현대 감각에 맞추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도시의 빌딩 숲 속에서도 일본의 전통주택을 쉽게 볼 수 있고 호텔에 가도 서구식 침실과 함께 전통주거 방식인 다다미방이 준비되어 있는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서울과 비교를 해 보았다.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지금 한옥을 찾아 볼 수 있는가?

지금 농촌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한옥, 그리고 그 안에서 살던 우리 고유의 생활문화, 정서등 우리의 주거문화가 통째로 없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일본 또는 일본인을 무조건 감정적으로만 평가 할 것이 아니라 배울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껌데기만 한국일뿐 알맹이는 모두 서구의 것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성해 볼 일이다.

한마디로 일본의 주거문화는 화려함 보다 편의성을 강조하며 자투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다.

짧은 기간 일본 농촌을 둘러보았지만 쓰레기 등 비닐더미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나 술취한 사람이 거리를 방황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일본 농촌의 모습은 잘 관리되고 정돈된 정말로 깨끗하고 정결했다.〈사진9〉



〈사진9〉



〈사진10-신사〉

이 곳에서 우연히 가족을 동반하고 관서지방을 관광하러 온 한국관광객을 만났는데 그가 하는 말이 “일본도시나 농촌에서는 조상숭배나 생활풍습 숭배의 신사(神寺)〈사진10〉가 많을 뿐 교회의 십자가는 전혀 볼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한 집 건너 교회가 있는 듯한 인상”이라고 빼있는 한마디를 전해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가히 교회 천국임을 느끼게 했다. 또한 일본도시나 농촌에서는 주거지역에 공동묘지(납골묘)가 혐오시설이 아닌 일반 절차럼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것 같다.〈사진11〉



〈사진11-납골묘〉

· 호류우지(法隆寺)



〈사진12-법룡사〉

나라(奈良)에 온 답사반은 법룡사(사진12)를 먼저 찾았다. 법룡사는 고구려 담징의 금당벽화가 있는 곳이라 더욱 관심이 깊었다.

법룡사는 아스카시대의 모습을 지금까지 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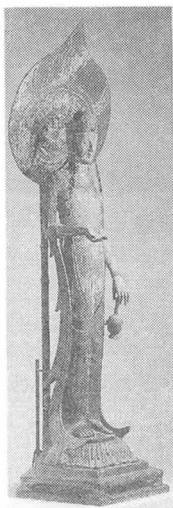
〈사진13〉

주고 있는 일본 최고(最古)의 목조 건축물로 백제의 아좌태자가 초상화를 그렸다는 일본 성덕태자가 부왕인 요메이(用明)천황의 뜻이어 AD607년에 건립한 140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절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리스트에 최초로 등록된 일본 세계적 불교문화의 보고〈사진13〉라 할 수 있다.

높이가 32.5m인 5층탑〈사진14〉에는 나라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석상군(石像群)이 있고 東면은 유마거사(維摩居士)와 문수보살의 문답, 북면은 석존의 입멸(入滅), 西면은 석존유골사리의 분할 그리고 미륵보살의 설법장면이 표현되어 있다. 특히 본존을 안치한 성스러운 전당인 금당(金堂)은 성덕태자를 위해 만들었다는 금동석가 삼존상이 안치되어 있고 사주의 12벽면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 금당벽화는 고구려 담징이 그린 그림이다.



〈사진14-법륜사 5층탑〉



〈사진15-백제 관음상〉

담징(曇徵)은 AD579-631(고구려 평원왕 21-영류왕 14)승려 화가로 “일본서기”에 의하면 AD610년 백제를 거쳐 일본에 건너가 채색과 종이, 먹, 연자방아등의 제작법을 전하였으며 일본 승려 호조(法定)와 함께 법륜사에 기거하면서 오경(五經)과 불법을 강론하고 금당벽화를 그렸다고 전한다.

그런데 이 금당벽화는 1949년 수리중 소실되어 현재는 모사화(模寫畵)가 일부 남아 있을 뿐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일본 학계에서는 이것을 담징의 작품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다. 또 법륜사의 백제 관음상〈사진15〉은 일본 불교 미술을 대표하는 불상인데 설명문에는 왜 백제라고 명명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이 백제 관음상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써 있는데 이는 고대 한국문화의 일본 전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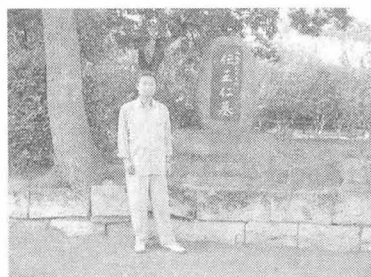
대목이다.

법륜사 뿐 아니라 일본 사찰들의 고대 금동불 형태와 유형은 한국 고대물과 동일내지 유사한 점으로 보아 일본고대 금동불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일본학계에서는 고대 우리나라 문화의 일본전수를 숨기고 있었다.

· 왕인(王仁)묘

나라에 있는 아스카 보존재단 연수원에서 일박한 후 교토로 향했다. 교토(京都)로 가는 중간지점인 히라카나에 왕인 공원이 있고 그 뒤에 왕인 박사의 묘를 둘러볼 수 있었다. 전 원도시의 주택가에 자리잡은 왕인 묘 입구에는 우리나라 영암군과 자매 결연을 맺었다는 글과 함께 “王仁墓”〈사진16〉라고 쓴 묘석이 정겨움을 더해 준다. 일본에서는 왕인을 “와니”라고 “고사기”나 “일본서기”에 표기하고 있는데 일본 문화의 시조로 숭앙하고 있다.



〈사진16-왕인묘〉

고대 일본의 야마토 조정은 아직기 선생과 왕인 박사에 의해 왕실의 각종 관공 문서가 기록되었는데 AD404년 오오진(應神)태자의 스승이 된 아직기가 1년후인 AD405년 왕인을 천황에게 천거하여 천자문과 논어를 가져와 가르쳐 아스카 문화의 꽃을 피웠다고 전한다.



〈사진17-천자문〉

묘석에는 천자문〈사진17〉과 논어의 첫 장이 각인되어 있어 한민족 문화의 일본 전수를 절실히 느끼게 했다.

그러나 왕인에 관한 한국의 사료는 없다.

오늘날 전남 영암의 왕인 사적은 “일본사기”나 “고사기” 그리고 구전설화에서 얻은 지식으로 사적지를 만들었다고 한다.

짧은 일정동안 관서 지방의 일본 고대문화를 접해 보면서 고대 우리나라 문화의 훌륭한 옛 정취에 자긍심을 느끼면서도 우리나라 문화유적지 주변에는 각종 유흥시설이 즐비한데 비해 일본 유적지 주변은 깨끗하고 정결하였다는데 씁쓸함을 느끼며 이만 필을놓는다.



일본 관서지방 문화답사중인
안영기 구리문화원 편집위원장과
김원래 구리문화원 부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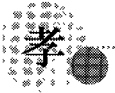
孝는孝를 낳는다

효(孝)는 인륜지본(人倫之本)이다.

신라 흥덕왕때 경주 손씨의 시조인 손순은 머슴살이로 어머니를 섬겼으나 늘 어머니의 맛있는 음식을 아이가 빼앗아 먹자 자식은 또 낳을 수 있으나 어머니는 다시 얻을 수 없다며 아이를 산에 묻으려 땅을 파니 기이한 석종(石鐘)이 발견됐다.

하늘이 손순의 효성에 감동하여 귀한 석종을 내렸으니 이것이 그 유명한 신라 삼기(三器)의 하나다.

그런가 하면 효자 상덕은 자기 넓적다리 살을 베어 부모를 봉양했기에 임금의 그의 집 앞에 정문(旌門)과 비석을 세워 효행을 기렸다는 효행담이 명심보감에 전해오고 있다.



가까이는 갑오개혁후 고종(高宗)이 몸소 상투를 자르고 단발령(斷髮令)을 내리자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라 하여 머리카락 하나라도 부모에게 물려받지 않은 것이 없거늘 상투를 자르느니 차라리 목을 자르겠다는 유생들이 줄을 잇고 있었다.

우리나라 효 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주변에선 이러한 효 사상이 뿌리채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 홀로사는 부모가 죽어 시신이 썩도록 자식이 알지를 못하고 재산을 탐내 부모를 난자질하여 죽이는 패륜범죄가 그렇다.

언젠가는 5남매를 둔 70고령의 노인이 홀로서 모셔왔던 90노모를 봉양할 길이 막연하여 목졸라 살해한 기막힌 사연이 우리를 슬프게 했던 일이 있었다.

내가 죽으면 노망의 늙은 노모를 누가 맡겠느냐가 살해의 변이었다.

누가 그 노인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우리사회 효사상은 어디로 갔는가? 전통적 대가족제도를 침몰시킨 산업사회 핵가족의 위세가 전통 윤리도덕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사회는 효가 무너지고 가정이 붕괴되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리고 있다. 이 시대의 아픔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효는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전통 사회건 산업사회건 또는 정보화사회건 문명사회를 이끄는 근본 덕목이다.

유교에서도 효는 인륜지본이요 예수도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했다.

누구나 늙는다.

때문에 우리는 모두 미래의 노인이요 노인문제는 바로 우리자신의 문제인 것인다 옛날 초(楚)나라 원곡이 당시의 풍습대로 할아버지를 산중에 저다버린 흉한 지계를 버리지 않고 후에 아버지를 버릴 때 쓰려고 되가져 왔다고 하자 아버지가 느낀바 있어 노부를 다시 모셔와 극진히 봉양했다는 원곡전이 효도의 효시가 됐다고 전한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자신이 효도를 받는 길이다.

태공(太公)이 이르기를「아버이께 효도하면 자식 또한 효도하나니 이몸이 효도 못하면 자식이 어찌 효도하리요...」

효 사상은 함양되어야 한다.

효는 효를 낳는다.

(글. 안영기 칼럼 중에서...)

지역문화정책의 전통문화 활성화방안

최래옥
(한양대 교수)

1 머리말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래 세계에서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거듭해 온 결과 이제 절대빈곤에 시달리던 빈국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 관한 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모범국가로 손꼽히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발전이 우리로 하여금 성취 결과에 대한 만족만큼이나 경제발전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도록 만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 30여년간 우리의 의식세계를 지배한 것은 경제와 정치였으며, 이로 인해 인간의 삶을 이 두 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데 너무도 익숙하다. 그러한 가운데 기존의 사고방식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도 표출되었다. 최근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의 고양은 그러한 경제발전 제일주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복지마저도 경제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준비하는 데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다. 사회복지 정책은 주로 고전적 의미의 경제발전이나 이를 추구하기 위한 산업 사회적 발상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산업사회를 넘어서는 세계사적 변화와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야기되는 국민들의 새로운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경제제일주의에 토대를 둔 개발과 권력의 분점을 넘어서는 이해와 관점이 형성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실상 오직 빠른 시간 내에 발전 혹은 성장만을 추구해온 정책의 결과, 지역의 균형 된 발전과 특성을 살리는 정책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치와 경제 중심의 지방자치가 과연 세계사적인 변화의 시대에 걸맞는 방향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

게 다루어지지 못한 채, 개발위주의 사고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방화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화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인류의 문명사적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고전적인 사고와 정책의 틀을 깰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은 세계사적 변화에 부응하려는 정책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방화시대의 진정한 국민복지는 과거와 같이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풍요만을 최고의 가치로 강조함으로써 나타났던 부작용을 치유하는 것은 물론, 21세기의 문명사적인 변화에 부응하여 경제와 정치를 중심으로 지방화를 바라보는 사고를 극복하며, 전국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를 유지하면서 향상된 삶의 질이 보장되는 일류 국가로 진입하려는 국가적 노력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회복지라는 표현을 받아들이면서도 문화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역문화 역시 이러한 문화복지의 기본적 이념을 따르는 것은 물론이며,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근본취지이다.

2. 문화권과 문화복지의 이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선진국가들에서 복지국가 노선이 지배적으로 되면서 문화 진흥도 국민복지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민주주의 국가의 필연적인 요구로서 국민을 위한 문화가 선명히 자리매김되면서, 국민들의 문화생활 참여 기회의 충실이 하나의 목표가 되었다. 복지국가 실현에 매진해온 영국의 경우, 복지국가의 이념적 추진자였던 케인즈가 바로 예술 진흥에 적극 기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화생활 진흥이 복지정책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예술의 자유 규정을 정신적 자유권의 하나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예술의 지원,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문화의 유지를 정부의 의무로 규정한 전후 독일의 기본법은 문화권의 신장에서 좀더 모범적인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문화권은 흔히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다. 「자유권으로서의 문화에 관한 권리」와 「사회권으로서의 문화에 관한 권리」가 그것이

다. 자유권적 문화권은 오늘날 대체로 헌법에 규정되고 있으나, 사회권적 문화권 이념은 새로운 개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자유권적 문화권은 무엇보다도 전체주의적 문화통제에 대한 반성으로 인해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권적 문화권은 국민의 문화영역에 관한 권리를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 문화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역할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기본법 제5조에 나타난 선언적 의미에서의 규정이 각 주의 헌법에서 좀더 구체화된다. 특히 바이에른(Bayern)주 자치법 제108조, 브레멘(Bremen)주 자치법 제11조 헤센(Hessen)주 자치법 제10조와 62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 자치법 제18조 1항,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주 자치법 제9조 1항, 슐레스비히-홀스타인(Schleswig-Holstein)주 자치법 제7조 1항 등에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다. 문화의 국가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는 이러한 정신적 자유권은 곧 「어떠한 문화를 어떻게 향수 또는 창조하는가」 하는 문제가 종교·사상·학문과 함께 모든 사람 개개인의 내면에 좀더 깊게 관계되는 일이며, 국가권력이 이에 개입.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신활동으로 규정되는 문화적 권리에서 예술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예술은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행복추구의 권리>, <사상·양심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 그리고 <학문의 자유>에서 보장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그 수단이 특별히 한정되어 있지않고, 연설, 신문, 잡지, 기타의 인쇄물, 라디오나 TV는 물론 그림, 사진, 음악, 연극 등 모두를 포함한다. 무엇보다도 「검열의 금지」는 헌법에 의한 적극적인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의 자율성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해서, 국가가 봉사적 차원에서 자율적 문화영역에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즉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은 기본원칙이며, 이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문화발전에 대한 국가의 봉사는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문화정책을 통해 문화에 개입하는 것은 문화의 자율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영역에서 국가가 시장경제체제를 인정하면서도 정책적 수단에 의해 경제형성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형성력을 인정함으로써 문화의 자율

성을 해치지 않고 상호발전을 꾀할 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진다.

사회권으로서의 문화권은 기본적 인권의 일부로서, 그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은 대체로 공공기관에 위임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적 기본권이 생존권의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해볼만하다. 예컨대 일본헌법 제25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고 했는데, 이 조문은 '생존권'으로 이해되면서 권리의 주체와 그 실현 방법에서 다른 기본적 인권의 경우 볼 수 없는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즉, 이와 같은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생활보장법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의 기준을 「최소한도의 생활수요를 채우기에 충분하며 그것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은 문화의 발달, 국민경제의 진전과 더불어 향상하는 것은 물론 다수의 불확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의 문화성에 관한 판단은 일단 경제생활면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발전과 함께 생긴 공해, 자연파괴, 도시환경의 악화, 더구나 과밀노동에 따른 과로사 등의 폐해가 인간다운 생존과 생활을 파괴하게 됨에 따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단순히 경제적인 생활보장만으로는 불충분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활권 개념은 생산과정에서의 노동자의 사람다운 생존의 요구와 운동을 배경으로 역사적으로 확립되어온 고전적인 생존권 개념을 기반으로 하면서, 나아가 현대사회에서의 생활파괴, 환경파괴 등 여러가지 도시문제가 격발하는 중에 의문시되어온 <시민의 본원적인 살 권리>를 새로운 권리론으로서 구축할 필요성과 함께 제기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현대사회의 인간 생존이 「생산과정에서의 수탈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소비과정 등을 통한 체제적 수탈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동시에, 「사람의 생존권을 노사의 대항관계상 전자가 취할 지분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생산과정에서의 존재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에 의해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에서의 정치·행정의 존재방식에 관한 발언권을 요구·행사하고, 사람의 포괄적인 생활조건을 확보하는것에 의해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좀 더 넓은 이론구성을 요청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활권의 이념은 대량생산-대량소비에 의한 현대사회의

메카니즘이 내포하는 여러 모순에 대해, 이에 저항하고, 억눌린 시민적 권리의 법리로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을 고려한다. 첫째는 방위적 측면으로서, 생활·환경파괴에 대항하는 생명·건강의 방위 근거가 되는 생활권이다. 둘째는 조건정비 또는 청구권적 측면으로서, 시민생활의 유지에 있어서 불가결한 공동생활 수단의 설치와 그 이용 등, 공공정비에 대한 청구권이다. 그리고 셋째는 자율적 상호조정을 포함한 자주창조적 측면으로서, 공화적 시민의 자주적인 풍요로운 지역사회만들기라는 능동적인 영위의 총체적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생활권은 환경권, 지방행정에의 시민참가권, 알 권리 등, 주민 운동이 발전해 가는 중에 모색되어온 현대적 시민의 권리청구의 법리를 생존권적 기본권의 발전선상에서 체계를 갖추게 된 것으로서, 지방자치체의 생활·복지·환경 정치의 근거가 되는 새로운 권리들의 전개로서 시사하는 바 크다. 이는 문화적 권리와도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는바, 여기에는 ①인간다운 풍요로운 생활의 존재방식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동정책을 청구할 근거로서 생존권을 생활권으로 발전시키는 관점이 명시되어 있고, ②노동과정 뿐만 아니라 소비생활 과정을 포함한 사회과정 총체에서의 현대 자본주의의 이윤추구 메카니즘을 공공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청구권의 행사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관점이 분명하며, ③생활권의 내용이 단순히 방위적 성격을 갖거나 환경정비적 공공정책의 근거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치적 공동적인 창조의 보장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화에의 권리를 고찰함에 있어서 그대로 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여기에서는 효율성, 획일성, 도시화-공업화에 의한 편리성 등 현대사회의 지배적 가치에 맥없이 편입되어 버리지 않고 주민의 생활원리와 사는 보람, 지역적 정체성이 모색되고 있어 지역문화창조 등 주민의 자주적 영위를 생활권적 법리에 의해 보장하는 지방자치체 행정의 존재방식이 초점을 이룬다.

나아가 모든 국민이 지역, 민족, 인류의 문화전승과 창조의 담당자이고, 교육역시 장래 사회에서 문화적 재생산의 담당자인 어린이의 성장발달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자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이때 교육받을 권리에 함축된 문화 생존권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된다. 교육 외에 문화의 다른 영역인 예술이나 학술도 예외가 아니다.

이처럼 생활권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기본권이 인간 생존 자체를 '좀더 나은 생활'로 향상시키려는 적극적인 지향과 가치 목적의 의의를 내재하고 있다고 할 때, 문화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여가권(세계인권선언 제24조)이나 학문, 예술의 성과를 향수하는 권리 및 자유롭게 사회의 문화생활에 참가하는 권리(동 제27조)등 헌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세계인권선언이나 인권규약을 적극 수용하는 국가적 입장에서 볼 때,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의 문화적 기본권 개념을 구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문화적 기본권" 조항들이 있다. 이는 '문화정책의 가치기준'과도 같은 것으로서,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 제22조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에 나타나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문화예술의 자유가 뜻하는 권리내용은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국가가 그 내용이나 목표를 결정하는 것을 거부하며, 적어도 예술의 영역에서는 국가의 '비동일화원리'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예술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며, 국가로부터의 존중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신적 생활의 가치' 영역을 구획하며, 문화적 생활영역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에 대한 권리도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전문에서 "문화의—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고 규정함으로써 특히 문화영역에서의 기회균등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 1항에서 "누구든지—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구체화되어 있다. 우리 헌법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라는 행복추구권에 관한 규정과 제34조 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한 조항도 문화의 사회적 기본권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권적 권리로서의 「문화적 기본권리」의 개념은 사실상 독자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전후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각국에서 모색되었던 개념이다. 유네스코의 문화권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이에에는 문화생활에 참

여할 권리, 문화적 자아정체성에 대한 권리, 국가적·민족적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권리, 창조성에 대한 권리, 문화적·예술적 생산품이 가져오는 도덕적·물질적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생기는 혜택에 관한 권리, 국제적 문화협정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세계문화발전 10개년 계획(1988-1997)이 표방한 네 가지 목표인 문화적 주체성의 확인, 발전의 문화적 차원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 문화생활에 대한 광범위한 참여, 국제적인 문화협력에의 증진 등도 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 중에서도 문화생활에의 광범위한 참여에 관한 부분은 문화복지의 중요한 이념적 근거가 된다. 나아가 고급문화의 향수를 대중들에게 확산해야 한다는 '문화의 민주화'와 각 개인들로 하여금 그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의 특수한 동기들에 따라 공동체의 문화적 생활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문화 민주주의'는 문화복지를 위한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특히 사회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개인 및 집단의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아울러 평생교육의 보편화와 교육의 민주화, 예술교육의 강화, 모국어 교육의 확장, 창조성을 북돋우는 방법들의 좀더 광범위한 적용, 불관용·성차별을 없애는 교육적활동들도 인간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로서의 문화권 이념을 표방하는 문화복지로서 추구되어야 한다.

학자에 따라서 인간성 유지라는 개념으로도 표현되는 이러한 권리는 재산과 소득, 기회, 권력, 그리고 지위라는 소외의 네 가지 사회적 결정요인과 연관되기도 한다. 이 인간성 유지의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욕구의 충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정한 복지는 달성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정신적 풍요를 국민복지의 중요한 조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앞에서 살핀 대로 문화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이며, 따라서 문화적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데에 근거하고 있다.

문화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것은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근거해서도 타당하다. 엘빈 토플러가 주장한 제3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21세기를 가정한다면, 인간의 삶에서 문화가 본질적인 것임을 알아내기는 어렵지 않다. 농업위주이던 제1의 물결이 지배하던 시기

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생존이 문제였다. 제2의 물결인 산업사회에서는 인간다운 최저생계가 목적이었다면, 제3의 물결인 정보화시대에서는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보인데, 이것은 결국 다른 의미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복지라는 개념은 오늘날 복지국가가 당면하는 위기적 상황의 극복을 위해 생산적 복지와 예방적 복지의 추구가 특별히 요청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높이 평가될 수 있다. 생산적 복지란 복지의 증진이 삶의 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경제의 활성화, 사회통합에의 기여 등에도 직·간접으로 기여하는 이른바 투자형 복지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와 복지의 조화로운 통일을 지향한다. 또한 예방적 복지는 일회적인 소비적 복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서, 소비적 성격이 강한 사후적 복지를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는 복지체계의 정립을 지향한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복지는 생산적이고 예방적인 성격을 갖는 복지정책이다.

문화복지는 궁극적으로 조화로운 복지사회의 실현을 지향한다. 국민의 욕구때 따른 적정한 서비스의 제공 및 효율적인 자원배분 등의 관점에서 문화복지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적 서비스의 충실을 기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세대내·간의 갈등의 해소는 물론 남을 돕는 것을 자아실현의 한 방법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사회적으로 생겨나고 확산되어 이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한다.

이처럼 정신적·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는 문화복지의 추진방향은 우선 변화하는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하여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탈 산업사회에서 해체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역의 정체성과 유기적 관계를 확고히 하는 방향을 지향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일정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개인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개인들은 과거와 다르게 자아실현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고 있으며, 향후 이런 경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가정은 사회의 가치관 전달과 질서유지의 최소 단위이면서도 후기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보편적으로 해체 경향을 보이고 있는 까닭에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핵가족화를 넘어서서 부분적으로 해체 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가정이 갖는 기능은 앞으로 현저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욱 촉진될 도시화는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

인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아실현과 더불어 가정의 고유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을 문화복지를 위한 또 하나의 주체로 삼는 한편, 가정의 의미와 기능을 변화하는 사회의 여건에 맞게 재해석하고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가정의 와해는 예방해야 되지만 동시에 가정을 친족 개념만이 아닌 넓은 의미의 공동체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역사회로 하여금 지방화의 촉진과 더불어 독특한 문화적 주체성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들 중에서도 높은 우선 순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지역과 가정의 참여를 통해서 나름대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독일의 경우 문화영역에 관한 기본적인 관할권을 연방국가로서의 특성상 연방이 아닌 각 주와 규모가 더 작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처럼 문화관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졌다고 해서 연방정부가 전혀 관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문화의 영역 가운데 교육시설, 교육계획 및 학문연구 같은 분야에는 연방정부가 깊이 개입할 수 있다.

이러한 연방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보충의 원리’라고 하는데, 국가권한 분배에 관한 이 원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각 주, 그리고 연방은 그 권한을 차례로 보충적으로 배분·행사될 수 있는바, 이런 활동들은 문화적 자유를 실현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독일 남부의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uerttemberg)주 자치법 제10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급부능력의 한계 내에서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복지(das wirtschaftliche, soziale und kulturelle Wohl)를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을 창출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목표 중 문화복지를 하나의 과제로서 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각 주의 자치법들은 대부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청들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구역의 형성시에는 도시공간질서의 요청과 지역적 관계, 특히 교통·학교·행정관계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가능한 한 문화적·역사적 관련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복지적 성격을 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독일 자아르란트(Saarland) 자치법 제134조 1항 제2문은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문화적 소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소산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문화에 대한 국민의 접근용

이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문화적 기반 시설의 확충이 또한 중요한 내용으로 부각된다. 문화적 환경조성과 문화적 '삶의 질'의 실효성 있는 확보를 위해 문화적 하부구조 시설의 확충은 문화복지 구현의 제도적 전제조건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의 복지적 측면을 반영한 독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물론 정책주체로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물론 역사적 경험은 서로 다른 우리가 이러한 사례를 그대로 따를 수는 없으나, 우리로서는 문화복지의 구체적 실천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도록 한다.

끝으로 문화복지의 실천은 민간 부문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방향을 지향하여야 하되 적어도 초창기에는 불가피하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영역의 주도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주도적이어야 하는 만큼 문화복지정책의 실행을 위한 재정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 자원봉사 제도의 활용은 문화복지의 구현을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 가운데 하나이다. 자원봉사제도는 단순히 재정부담의 분담이라는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참여를 통한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복지공동체의 구축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3. 지역문화복지의 의미와 정책 방향

여기에서는 지역의 개념을 일단 공동생활권에 기초한 지역사회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 이에 따르자면, 지역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지역성과 지역사회 의식이다. 다시 말해서 지역 사회의 구성요소는 동료의식, 역할 의식, 의존의식 등으로서, 사회적 유사성, 공통된 사회적 관념, 공통된 전통, 공통된 관습, 공통의 귀속감 등과 연관된다. 이를 영문으로 표기하자면 region의 개념보다는 community의 개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지역사회의 개념은 지리적, 행정적 경계선에 의한 구분도 가능하지만, 그보다는 사회적, 문화적 동질성, 합의, 자조 또는 다른 공동행위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형태에 더 가깝다. 지역사회의 특성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지리적·행정적 성격과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면, 문화 복지가 지향하는 지역의 개념은 일상생활에서 문화 및 여가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권역 중심의 지역을 기본 단위로서 고려하게 된다. 실제로 문화복지가 표방하는 정책의 기본방향 가운데 하나가 생활권역 중심의 문화/여가활동의 활성화이다. 그러므로 지역문화복지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활권역 중심으로 복지를 고려하는 한편, 그 시행을 위한 행정 단위의 지역개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복지가 지향하는 바는 지역 특성에 기초한 지역사회에서 문화활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하고 생활권역 내에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역문화복지가 뜻하는 지역문화는 주민자치의 기초단위 또는 일상생활권에서의 문화활동으로서, 이는 주민의 생활기반인 지역의 자연적 역사적 개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생활여건과 생활환경, 그리고 생활양식을 개선해 나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적으로 위안을 받기 위한 행동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문화복지를 행정적으로 시행하는 지역문화행정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사회·정치를 포괄하는 「주민자치에 의한 주민문화형성」이 주민의 목표인 동시에 지역문화행정의 목표이기도 하다. 즉, 지역문화행정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복지를 도모하고 문화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범세계적 흐름에 부응하는 지역문화육성을 위하여 행정은 지역문화의 자치화·자립화, 지역문화의 개성화·특성화, 지역문화의 다양화·다원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가 문화행정을 지향하고, 지역문화의 잠재역량을 발굴·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역문화발전계획을 주민과 더불어 지역단위에서 연구·개발·실천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나 시책을 하향식으로 시행하거나 중앙의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형태를 벗어남으로써 중앙행정의 위임이나 하청행정을 지양하여야 한다.

지역문화복지가 추구해야 할 기본방향은 근본적으로는 문화복지가 표방하는 이념적 지향을 따라야 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실천방향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지역은 과거처럼 중앙을 거쳐 세계와 의사소통하지 않는다. 각종 매체 및 정보수단의 발달은 지역 혹은 지방이 직접 세계와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으며, 오늘날 그것은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 도시와 농촌이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산 기반 위에 삶의 여건이 존재했던 것과는 다르게, 절대적으로 산업화, 도시화해 나가는 일반적인 경향속에 지방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율도시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을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이때 자율도시를 결정짓는 논리를 일반화한다면, 그것은 내발적 지역문화발전론이라고 요약해 볼 수도 있을 듯 하다. 내발적 지역문화발전론은 농촌에서의 여러 경험을 총괄하면서 생겨난 이론이라고 할 만한데, 예컨대 콤비나트유치등에 의한 외래형 개발과 대조를 이룬다. 그 논리를 특징화한다면, 대개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역의 기술·산업·문화를 토대로, 지역을 중요한 시장으로 삼고, 지역주민이 학습·계획·경영하는 형태의 발전이다.

둘째로, 환경보존과 쾌적성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복지와 문화를 종합한, 주민의 인권확립의 관점에서 본 총체적인 발전이다.

셋째로, 부가가치가 현지에 귀속하는 지역산업연관을 꾀한다.

넷째로, 주민참가의 제도를 만들어, 주민의 의지에 기초하여 자본과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자치권을 가진다.

이같은 내발적 지역발전론은 자치의 원칙, 자립의 원칙, 공동의 원칙, 인간발달의 원칙이라는 네 개의 원리로 정리될 수 있겠는데,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화도 가능하다.

- ① 경제인간에 덧붙여 인간의 전인적 발전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는다.
- ② 타율적·지배적 발전을 부정하고, 공생·인간해방의 사회를 목표로 한다.
- ③ 협동주의·자주관리·참가의 조직형태를 취한다.
- ④ 지역분권과 생태계를 중시하고, 자주성과 안정성을 특징으로 한다.

문화가 인간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형태라면, 지역문화란 지역의 잠재력(지역에서의 주민 자연 기술 자본 조직운동 등)의 실현형태이며, 결국 그것은 이러한 내발적 지역발전의 논리에 의해 활짝 피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토지소유와 토지이용을 공공화하고, 경제성장과 인구를 제어하며, 도시와 농촌의 기능을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전원도시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꿈이 있다. 이 새로운 도시발전의 원리는 한편으로는 높은 인간문화의 수단과 그 과정을 광범하게 보급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의 생명지속적 환경과

생활본위적 관심을 주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내발적 지역문화발전론은 일단 이미 있는 도시를 다시 만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도 논의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전략을 특히 문화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논의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문화정책을 도시재생 전략의 한 요소로서 활용한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의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공동체적 발전에서 발견되는 전략적 선택들과 연관된 심중한 딜레마들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딜레마들에 대한 투철한 인식 아래 문화정책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성공을 거둔다면, 이는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내지 문화적 발전의 우선순위들을 조화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때 무엇보다도 공공영역이자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도시의 미래와 문화정책에 관한 좀 더 넓은 주제들을 검토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그것은 문화정책이 도시로 하여금 다시한번 순수히 민주적인 공공영역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촉매가 될 수 있는지 하는 질문에 초점을 두게 마련이다.

공공영역으로서의 도시의 미래와 문화정책에 관한 토론은 주로 1990년대 서구에서 시민생활의 미래와 지역민주주의에 관한 토론과 연결되어 있다. 이 영역에서 다뤄진 두 개의 열쇠는 서구도시에서 저소득집단들의 사회적, 공간적 및 문화적 분리가 증가한가는 것과, 종족적 및 인종적 소수들을 시민 네트워크의 필수부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외국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후자에 관한 논의도 결코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로서는 오히려 전자에 관한 논의가 더욱 큰 관심거리이다.

다시 말해서, 문화정책 입안자들이 혜택받지 못한 사회집단들로 하여금 도시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자신들의 생각과 열망, 기술과 자원을 제시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이다.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앞으로도 대중문화나 지역문화 이상으로 고급예술들과 민족문화를 내세울 수 있는지 하는 문제이다.

물론, 1970년대 이후 문화정책의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부분문화를 격려하는 “문화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고급문화의 보급을 강조해 온 문화의 민주화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어져 왔다. 또한 문화다원주의를 진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보보다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가 좀더 효율적이라는 것도 인식되었다. 다시 말해서, 시정부들이 도시문화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심적이고 대체불가능한 역할을 지닌다는 인식이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화정책과 훈련·교육·조사와 발전에 관한 정책간에 유기적 연결필요성,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로서 “도시재생”과 “삶의 질”에 대한 좀 더 넓은 정의들의 훈련과 시정부의 협력작업을 위해 신중한 의의를 지니는 “문화 계획”의 채택 등이 문제와 관계된 유익한 변화를 가져 올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980년대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문화정책은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과 중앙 내지 지방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정도로 정치적인 합의를 이루어 낸 도시마케팅 전략을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문화정책은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공간적 의미함축들에서 논쟁의 여지를 남겨 놓을 수 있다.

그것은 전략적 딜레마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도심과 교외지역 중 어디에 문화적 설비들을 배치할 것인지, 소비자를 겨냥한 전략과 지역의 문화생산을 위한 지원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 건물들에 대한 투자와 지역의 문화생산을 위한 지원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등에서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 정책입안자들이 직면하는 딜레마들이기 때문에, 다소간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경제적 불공정은 많은 도시들에서 공간적으로 분명히 드러난다.

예컨대 1980년대 유럽에서는 저소득층이 도시 중심의 문화적 르네상스에 참여할 기회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매몰되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마도 이러한 사회집단들의 경제적 위치에서 보이는 좀 더 심화된 상대적 악화라 하겠는데, 그들은 장기적인 실업의 증가와 경제적인 재무구조와 연결된 기술퇴화의 중요한 희생자들이었다. 아울러 범죄 증가에 대한 공포, 가정에 기초를 둔 여가 성장에 비교할 때 급격하게 상승된 실외문화소비의 비용, 그리고 ‘공공’형식의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저소득집단의 감축 등도 심화되어 갔다.

문화활동이 꽃피는 생생하고 떠들썩한 도심과 날로 주변화되는 변두리 간의 늘어나는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대응방안 중 하나는 지역사회 근린시설의 창설로서 독일 함부르크시와 이태리 볼로냐시의 사례가 손꼽힌다. 함부르크시 정부가 창설한 근린문화센터들은 이용자가 매해 약 50만명에 이르는데, 어학교실로부터 록 콘서트와 정치집회에 이르기까지 그 이용 내역은 다양하다.

볼로냐시는 시의회가 1981년에 건립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재정비하여 전자음악, 비디오, 컴퓨터 그래픽스, 공예 및 그 밖의 부문의 작업을 꽃피게 하였다.

근린문화센터의 설립과 풀뿌리 문화활동에 주어진 지원은 도심에 기초한 문화설비에의 접근을 민주화하기 위한 전략과 효과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이 할인가격으로 문화시설에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하는 “타운 카드”의 도입, 도시 중심에 기초한 매력과 활동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보급, 그리고 순찰, 조명, 심야교통과 주차안전에서의 향상은 접근가능성의 강화를 위해 의미있게 공헌하게 될 것이다.

공간적 딜레마 중 또 하나의 전형은 도시의 특정지역을 문화지구로 개척할 경우, “신사화”(gentrification)의 돌격대원이라 할 예술가들이나 문화생산자들이 높아진 지가와 생활비용의 압박에 못이겨 그 “문화지구”로부터 추방당하고 마는 결과가 빚어진다는 사실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공간적 딜레마의 문제를 잠시 살펴보았지만, 소비 대 생산이라는 경제적 발전 딜레마, 그리고 ‘일시적’ 대 ‘영구적’이라는 문화투자 딜레마도 녹녹하지 않다. 전자에서는 에컨대 관광, 소매상가, 호텔 그리고 음식배달을 위해 자석의 구실을 하는 도시문화적 매력과 활동을 발전시키고 진흥해야 하는가, 아니면 출판, 영화, TV, 전자음악, 디자인, 의상, 그리고 특수한 기술과 기반시설을 요구하는 그 밖의 문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하는가 하는 딜레마가 눈에 띈다. 그런가 하면 후자에서는 이벤트와 활동이라는 ‘일시적인’ 프로그램(에컨대 페스티벌이나 그 밖의 문화적 활성화주도 작업)과 콘서트홀, 도서관, 박물관, 그리고 미술센터와 같은 ‘항구적인’ 시설투자 간의 선택이 문제된다.

서로 연관되는 이와 같은 딜레마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도시정책 내지 도시계획은 비로소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화라는 말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씌어진다. 일본도시문제회의 간사이회의가 1994년에 발족 10년을 맞이하면서 도시문화의 창조를 주제로 한 연구회를 가진 후 발행한 도시의 문화라는 책에서는 이를 <시민화된 지적 예술적 표현으로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교양을 매개로 하여 그로부터 감동을 체득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새긴 바 있다. 이 때 시민화하는 말은 은연중에 혼란스러운 도시공간과 방종한 시민행동에 양식, 미, 지, 예의 등을 도입하는 것을 뜻한다. 말하자면

시민에게 일정한 교양적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그 주류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이해할 경우, 그것이 문화와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는 때로 당대를 지배하는 규범에 대해 저항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화된 지적 예술적 표현의 구체적인 표현이 미술관, 문학관, 공연장 등과 아울러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작업으로 나타난다면, 이를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예컨대 예술과 도시형성, 기업문화와 도시형성, 극장문화와 도시형성, 축제와 도시형성, 도시와 문화행정 등이 논의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그 뿐 아니라 만화, 영화 등의 대중문화와 관광등이 지니는 문화적 가치도 논의되어야 하고, 심지어 도박 등의 오락이 지니는 의미도 논의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문화적 관점에서 도시공간의 정비를 추진해간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외형을 분식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인간적인 삶이 가능해지도록 뒷받침하는 것을 뜻한다면,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환영할 만하다.

사려깊은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게 하는 문화적인 도시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분명 도시계획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도시계획은 관 주도형보다는 민간주도형으로 추진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물론 민간주도형이 반드시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행정을 배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실제로도 불가능하다. 다만 시민사회의 논의구조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때 지역의 풍토가 만들어낸 역사와 전통, 풍습이 형성해온 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시민들의 문화적 요구에 대한 대응이 좀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요컨대 도시공간이 갖는 중요한 문화적 의미는 문명의 움직임 속에 내포되어 있는 새로운 도시문화의 씨앗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 씨앗이 싹터서 도시공간 여기저기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때, 시민들은 자신의 도시에서 문화의 활력을 느끼게 될 것인바, 여기에서는 체제, 반체제를 떠나서 이를 통해 정신적 고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 경우 중산계급의 일반적 도덕율에만 의존하는 시민사회보다는 상식을 넘어서는 소수의 창조적 무리들이 벌이는 예술활동을 받아들이는 시민사회 쪽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좀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도시문화론에서는 결국 자기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문화의 다변적 성격과 행동을 용인하는 한편, 스스로의 존재에 자신을 가지면서 마음의 풍요를 구하는 시민사회를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겠는지에 대한 논의가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는 살아 숨쉬는 존재로서 한 순간도 쉬임없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과거의 향기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정보화·고령화·세계화 등의 추세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문화를 상징건물 속에 가두어 놓지 않고 주거공간 안에서 숨쉴 수 있도록 하려는 배려가 절실히 요청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규모가 있는 예술축제나 향토축제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와 같은 행사들이 단순한 과시행정의 일부가 되지 않고 서민생활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문화 도시란, 말하자면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자 동시에 스스로가 예술작품으로서의 성격을 지켜나가는 도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격조 높고 풍부한 정서를 지닌 인간도시를 만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아쉬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다.

4. 지역발전의 기본전략

앞에서 우리는 문화권을 인간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그래서 국가가 그 실행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현대국가의 추세임은 앞서 알아본 바 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문제는 그 역할을 누가 담당하여야 하는가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문화복지의 실천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할분담에 관해 세계적으로 확정된 모델은 없다 단지 각 나라마다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지역문화복지에 관한 법적 제도적 사례를 우리는 독일에서 찾아볼 수 있었거니와, 지역의 문화복지는 문화에 관한 보편적 권리와 문화의 접근성 강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보편적 문화향유의 기회를 높이고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육성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

1) 지역문화예술진흥조례 채택

지방화시대에 지역문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의 기본틀을 제시할 수 있는 가칭 “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담을 주요 내용으로는 ①문화예술진흥정책의 기본 목표와 원칙, 시민들의 문화복지권 원칙 선언, 예술의 창의력과 자율성을 토대로 한 지원행정,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수요를 반영하는 문화행정 ②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④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문화관련 조직들간의 협력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등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다.

2) 지역별 문화예술 특화와 문화관광 마케팅

문화예술 특화전략이란 각 기초 자치단체별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문화예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지역의 문화적 이미지를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특화된 문화예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마케팅 활동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민간부문의 참여확대

문화복지를 정책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창의성 및 경영성을 토대로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즉 그동안 관료중심으로 전개되어온 문화행정의 기본틀을 과감히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이러한 제 3부문 조직의 비영리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부문의 역할과 기능을 ①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관리 및 지원 ②민간부문의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사업 전개 ③지역의 문화정보 및 해외의 문화정보 수집, 관리, 서비스 기능 ④국제문화교류 센터 설치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 ⑤도내 시, 군 등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문화 정보 서비스 및 상호 조정 업무 ⑥문화

정책 관련 조사연구 기능 등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 수요자 중심의 문화복지기관 운영 마인드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우선 종합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등 공공문화시설과 조직들은 물론 각종 체육 및 청소년 관련시설의 운영에서 정부관료제의 비능률성과 경직성을 극복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경영기법과 전문성을 도입하여 혁신함으로써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환을 통하여 자율적인 책임 경영과 고객지향적 경영체계를 갖추고, 창의적 기획과 마케팅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공공문화예술조직의 문화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문화예술회관을 특수비영리법인으로 틀을 바꾸어 새로운 경영 혁신을 시도하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공문화시설들은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을 도와 줄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상담제도 활용, 각 시설에 적합한 전문 문화예술 정보 구비, 비디오 라이브러리 설치 등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 지방화시대에서는 문화복지 관련 조직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역의 문화부문, 관광부문, 체육부문, 청소년부문의 각 조직과 정책프로그램이 상호 연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민간비영리조직인 지방문화원, 예총, 민간부문의 문화복지 관련조직 및 시설, 기업, 지역주민 상호간의 협동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한편 민간부문의 문화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기업과 문화예술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기업메세나 운동을 전개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역의 농협, 축협, 수협, 대한상공회의소, 금융권 등 공공부문의 문화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5) 생활 속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제공확대

앞으로 지역의 문화복지정책은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창작 욕구 및 능력을 높여 질 높은 생활문화를 주입 생활 속에 널리 확산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수요에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적극

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시민들의 문화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린 생활권에서 문화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과 같은 기본적인 문화시설이 있어야 하고, 도시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공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화시설은 그 자체로 예술적인 가치를 가진 시설로 건립해야 하며, 시설에 적합한 자료와 정보를 갖추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정보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노인, 어린이, 주부, 청소년,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문화수요를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문화프로그램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예컨대 일본 후쿠오카시의 종합도서관의 경우에는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집(탁아소 기능도 함), 어린이도서관, 청소년 도서관, 노인들을 위한 다다미방 설치, 장애자를 위한 점자도서관 및 접근시설 등 각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을 배치하고 있다.

셋째, 문화관련 시설 및 단체에 문화의 집 기능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생활권 안에서 문화예술을 비롯한 생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디오라이브러리, 시청각영상실, 문화정보자료실, 상담기능 등의 기능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넷째, 문화예술회관, 예총, 지방문화원, 공공도서관 등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문화관련 기관들간의 정보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재단의 문화정보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화 예술 및 역사 자원을 CD, 비디오 등 시청각 영상매체로 담아놓은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6) 지방도시의 문화환경조성

지방도시들을 역사와 개성이 있는 문화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시의 제반정책과 문화정책을 접목시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은 생활체육, 도시경제, 교통, 조정, 관광, 토

지활용, 건물환경, 주택, 도시설계, 도시안내, 도시이미지, 청소년 등 도시의 제반 계획에 문화적인 시각을 도입하여 추진하는 통합전략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서는 문화적인 도시건설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각 도시들은 우선 도시의 문화발전 중,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문화계획에는 기존의 문화자원에 대한 평가, 문화수요 파악 및 21세기 도시환경 전망, 혁신적인 문화사업개발 및 문화계획 구상, 집행계획 수립, 재정문제 해결 방안, 문화사업의 효과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과 문화계획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단계부터 문화복지와 이를 위한 문화인프라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도시계획 및 도시정책은 그 지역의 문화, 역사, 그리고 개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책 과정에 문화예술 부문의 인력이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공원, 공용광장(public space), 문화의 거리와 같은 문화 공간을 도심에 조상함으로써 생활공간과 문화환경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문화의 거리를 문화지구 개념으로 제도화하고 문화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진흥 전략과 문화지구 내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시의 문화환경 만들기를 위한 자발적인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시청사를 비롯한 공공건물의 문화화 운동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도시의 문화적 이미지를 창출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시청사는 도시주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쉽게 눈에 띄는 곳으로 도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시청의 공간을 문화적인 시각에서 새롭게 단장하는 사업, 시청에 지역의 각종 정보안내서비스 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5. 맺음말

문화복지라는 개념이 최근에, 그것도 중앙에서 시작된 만큼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아직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과 투자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다른 과제 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문화복지 정책이야말로 중앙보다는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지방화시대가 열렸음에

도 불구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진정한 기초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의문스러워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주민위주의 복지차원에서 문화예술, 체육, 관광, 그리고 청소년에 관한 정책 다루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는 더 이상 경제나 정치에 부속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뒤에 처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화 없이는 정치와 경제도 원활히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 문화에 관한 권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고유한 기본권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지방화시대에 진정한 지역자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문화복지 실천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하겠다. 비단 소득 만불시대에 정신적 측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무한경쟁의 시작을 의미하는 세계화시대에 우리가 생존하고, 또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문화복지의 실현은 반드시 필요하다. 문화복지의 이론과 그 구체적인 정책은 우리가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겠지만, 동시에 이를 실천시키려는 의지와 노력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과 성장 중심의 사고가 지배하던 시절에는 주로 근대와 전통의 이분법적인 구도에 의해서 지역문화가 이해되면서 지역 혹은 지방의 특성있는 문화 육성이라고 하면 대체로 전통문화 혹은 민속문화를 유지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간주하곤 했다. 물론 지역민의 삶속에 전승되어 오는 독특한 문화유산은 보존되어야 하며, 이는 문화정책의 중요한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에서의 특성있는 지역문화는 단순히 전통문화, 혹은 민속문화를 보존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창조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있는 지역문화의 창조와 육성은 중앙문화의 획일적인 수용을 거부하며, 지역의 역사, 전통, 정서, 그리고 여건에 맞는 문화발전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문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경제와 개발 중심으로 문화와 지역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일대 수정이 있어야 한다. 지방 자치가 실시된 이래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지역문화정책을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한 주민들의 문화향수 기회 확

대, 전통문화의 발굴과 계승, 부족한 문화공간의 확충' 등을 중심축으로 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주민의 생활 속에 녹아들지 않으면 지역의 문화정체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일회적인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여전하다.

지방자치제의 진정한 기반은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지역문화의 독창성 유지와 창조에 있다. 지역, 특히 중소도시의 문화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지만, 이 때 서울에서 이루어진 문화욕구가 지역의 사정과 관계없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식의 문화적 욕구 증가는 그 지역 주민들만이 보유한 고유한 문화적 삶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의 특성을 육성할 수 있는 거점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거점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삶이 다른 어느 곳과도 다른 특징있는 삶으로 탄생할 때, 지역문화는 형성되고 지역의 행정적 수단이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처럼 지역 문화복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기존 사고방식으로부터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여전히 경제 제일주의에 바탕을 둔 개발우선 정책에 매달리는 한,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면서 근본적인 지역자치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지역문화복지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지역자치 단체장의 문화의식, 효율적인 행정체계의 확립등과 더불어 지역주민 및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요구된다.

변화하는 세계를 주도적으로 헤쳐나가려는 의지의 한 표현이 되는 문화복지는 이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환경을 이루고, 문화생활과 여가생활의 활성화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는 목표를 향해 단순한 정책입안의 단계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시점에 들어섰다.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문화복지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이 글은 좀더 구체적인 토의가 진행될 것을 전제로 그 의의와 실천방향을 하나의 시론으로서 의논해 본 것이다. 계속적인 탐색이 이어질 것을 기대해 본다.

수 종 사

고 · 순 · 례
(구리문화원 사무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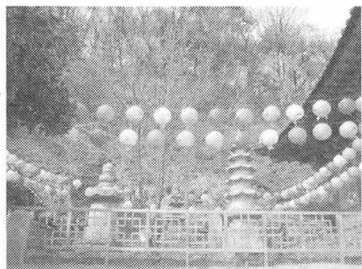
양수리 검문소에서 종합 촬영소 못 미쳐 왼 편으로 진중리 마을에 수종사 팻말이 보인다.

마을 입구에 차를 두고 등산을 하듯 쉬엄쉬엄 오르는 운길산 산턱에 수종사가 있다. 어떤 이는 이 절을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벅차다며 차로 올라간다. 차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는 현대인들의 성급함이 낡은 결과이다.

한 시간 넘게 오르는 이 길은 가파르고 굽이길이다. 이쯤이면 나오겠지 하는 수종사의 지붕은 여전히 멀리 보이고 호흡은 턱에 차고 다리를 후들거리게 한다. 보행자를 무시하고 거칠게 오르는 차를 보노라면 괜히 짜증도 나고 후회도 된다.

그러나 그래도 수종사는 걸어서 올라야 한다.

급하게만 살아온 일상은 마을 입구에 두고 천천히 오르는 것이 좋다. 산길을 오르며 나무라도 쳐다보고 하늘이라도 올려보며 자신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수종사를 오르는 길이다. 그리고 산 아래 펼쳐지는 강의 굽이를 감상하는 여유, 그 살아감의 여유를 느끼려면 수종사는 걸어서 올라야 한다.



〈수종사 연등〉

산 중턱을 넘어선 절 입구에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제법 있다. 전나무도 있고 금강송도 있어 은은한 나무 향을 즐길 수도 있다. 그리고 수종사가 있다. 수종사는 한국전 때 몽땅 불탔기에 불만한 고 건축은 없다. 다만 고려풍의 작은 석탑 하나가 유구한 역사를 말할 뿐이다.

또 하나 들라면 절을 창건한 세조가 심었다는 600년생 은행나무 두 그루다.

수종사는 피부병에 시달리던 세조가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던 중 아름다운 종 소리가 들려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바위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였다 하여 수종사(水鐘寺)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한다.



수종사의 볼거리는 절 자체보다도 절에서 내려 다보이는 경치다. 수종사에서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양수리)가 한 눈에 보인다. 약간은 좁게 그러나 힘이 넘치는 북한강과 넓고 장대한 남한강이 만나서 마치 호수를 이루는 듯한 곳이 두물머리다.

강과 강이 합치고 산과 산이 겹치고 강과 산이 어울려서 절경을 만들어낸다. 이젠 분명 절경이다.

서거정이 말한 “동방 사찰 제일의 전망”이라는 표현을 실감할 수 있다.

산과 강이 어우러진 절경, 그 절경을 발 아래로 굽어보는 즐거움이 수종사를 찾는 이유이다.

물길.... 강이 산을 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산이 강을 넘지 못했다는 한강의 물길.

산자락을 막으며 휘돌아 흐르는 강물, 그 물길을 수종사에서는 볼 수 있다.

그 물길은 도도하고 유장하다. 그 물길을 보면서 마종기님의 [우화의 강]을 중얼거리 본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물길을 튼다.....”



수종사 마당에는 그 물길을 보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삼정헌]이라는 찻집이 있다.

예불을 왔건 물길을 보러 왔건 남녀가 연애질 하러 왔건 가리지 않고 누구나가 차를 무료로 마실 수 있다. 중년을 넘기신 갸냘픈 보살님 한테서 차를 마시는 법과 차 맛 취기에서 깨어날 쯤 또 다시 발아래 펼쳐진 물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경다기 닦는 방법을 듣고 나서 마시는 차 맛은 정말 좋다.

차 맛 취기에서 깨어날 쯤 또 다시 발아래 펼쳐진 물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경치에 취하고, 그리길 반복하면서 느끼는 그 정취란.....

가슴이 아려온다. 내 삶이 무엇인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어느 덧 산그림자가 길어지기 시작한다.

아쉬운 발길을 돌리려 마당의 약수 한 모금을 들이킨다.

내려오니 무언가가 허전하다. 아마도 유장한 물길을 한껏 구경한 마음을 수종사에 두고 내려왔기 때문일 것이리라.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

한강 둔치



최·복·희
한국문인협회 회원

우편으로 배달된 지방신문을 펼쳤다.

첫 머리 기사에 '꽃의 향연이 그립습니다'라고 쓴 굵은 글씨가 내 눈길을 잡았다.

구리시 한강 둔치에 조성된 꽃 단지가 원상 복구된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아쉬움이 크다는 내용이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나 자신도 서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그곳을 갔을 때 느꼈던 아름다운 전경이 눈앞에 선하게 떠올랐다.

싱그러운 5월의 마지막 날이었다.

햇살은 눈부시고, 바람은 잔잔한 오후, 어린 외손녀를 안고 한강 둔치를 찾았다. 구리시 외각을 스치며 흘러내리는 한강의 둔치, 7만여 평의 아름다운 공간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잡초만 무성한 버려진 땅이었다. 그런 땅에 구획을 정리하고 각종 꽃들을 심어놓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름다운 꽃들로 카드섹션을 연출해 내고 있어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었다.

봄에는 유채꽃 축제와 함께 백일장이 열리기도 했다.

강물이 내려다보이는 곳에다 돛자리를 펴고 앉았다. 넓은 우산을 비치파라솔 삼아 남편이 들고 있고, 나는 외손녀를 데리고 그 그늘 안에서 행복에 겨웠다.

넓은 둔치 한 쪽에서는 학생들이 축구와 야구를 하고 있고, 그 뒤로 높직이 올라다 보이는 큰길에는 자동차들이 공중을 나는 듯 질주했다. 물비늘을 반짝이며 유유히 흐르는 강물 위로는 물새가 한가롭게 날고 있다.



얼굴을 스치는 강바람에 활짝 웃던 아이가 신기한 듯 눈을 크게 떴다. 아이의 시선이 닿는 곳에 나비가 날고 있었다.

꽃밭 사잇길로 거니는 연인들이 쌍쌍이 나는 나비 마냥 정겨웠다. 어찌다 우리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기를 보며 꽃처럼 예쁘단다. 그 말을 알아듣거나 한 것처럼 아이도 손 사례를 치며 답례를 했다.

내가 사는 고장에 이토록 평화롭게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니 고맙기 그지없었다. 피약별 아래서 꽃밭을 가꾸고 있는 공공근로자들의 노고가 또한 고맙게 느껴졌다.

내가 그곳을 처음 들렀을 때는 늦가을이었다. 수십 종의 꽃들이 꽃잎을 떨구고 따가운 가을벌에 씨가 여물고 있었다. 제 때를 못 맞추어 늦게 핀 꽃들이 수줍은 듯 낮은 자세로 드문드문 피어있어 더욱 청초해 보였다. 뒤늦게 찾아오는 우리를 기다렸다가 핀 꽃 같아 나도 허리를 굽혀 눈맞춤 했다. 그리고 잘 여문 꽃씨를 받아다 텃밭에 뿌려놓았더니 봄이 되어 형형색색 예쁜 꽃들이 피어나 한강 둔치의 꽃밭을 한 귀퉁이 떠다놓은 듯했다.

꽃밭마다 꽃말과 원산지와 자생력 등이 적인 팻말이 꽃혀있고, 그 꽃에 어울리는 시가 적혀있어 즐거움을 더해 주었다.

꽃이 피고 각종 곤충이 서식하고, 강물과 함께 시가 흐르는 그곳은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이요,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처다. 더욱이 시멘트 건물 속에 살며 흙을 밟을 기회가 많지 않은 도시인들에게 더 없이 좋은 산책 코스라고 생각된다. 강 건너에 있는 야트막한 산들이 물 속에 잠겨있어 한 폭의 그림이다.

큰 나무가 그늘을 드리우고, 새들이 노래라도 불러주면 오죽 좋으랴 싶었다.

그래도 내가 몇 해 전에 둘러본 프랑스의 세느강과 영국의 테임즈 강가가 부럽지 않았다.

내 부족한 필력으로 단번에 표현할 길이 난감해 두고두고 그곳을 자주 찾으며 아름다운 정경을 엮어보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미 조성되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꽃밭이 실정법을 어긴 일이라고, 다시 원상 복구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어찌 안타깝지 않았겠는가?

시민들의 그 마음을 당국은 헤아렸는가 보다.

얼마 후, 그 계획을 취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반가웠다.

기쁜 마음에 꽃샘추위도 아랑곳 않고 그곳을 찾았다.

얼었던 한강은 어느새 기지개를 펴고 숨을 고르며 유유히 흐르고, 그 위로 물오리 한 쌍이 정답게 노닐고 있다. 황색 휘장을 깔아놓은 듯한 넓은 잔디밭에는 따뜻한 봄볕이 내려 앉아 아지랑이를 피워내고 있다.

간간이 산책 나온 사람들이 눈에 띈다. 겨우내 움츠렸던 나도 가슴을 활짝 펴고 심호흡을 하며 힘차게 강가를 활보했다.

자연이 살아 숨쉬고 꿈과 낭만이 흐르는 그곳은 시민들의 영원한 심신의 단련장이요, 사색의 장이 되리라.



자원회수시설이 주민의 편의시설로

구리시의명물 **구리타워**



김·충·현

(중앙신문 편집국장)

구리를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리타워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다.

특히 밤에 보는 불 밝혀진 구리타워의 모습은 구리의 명물이 아닐 수 없다.

건물 30층 높이인 지상 90m 높이에 설치된 전망타워에 올라가면 아름답게 굽이쳐 흐르는 한강이 한눈에 들어온다.

한강너머로 하남시, 강동구를 비롯하여 잠실에서 종합운동장, 여의도 63빌딩까지 서울시의 모습이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돌아서면 구리시 전역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도심 가득히 밝혀진 가로등과 아파트 불빛들, 쪽 뺨은 고속도로와 강 건너 올림픽 대로를 오가는 차량들이 뿜어내는 환상의 라이트 불빛이 조화된 도심의 야경을 보고 있노라면 한없는 낭만에 빠져들게 된다.

전망타워 2층에 마련된 100여평의 레스토랑에는 외식의 즐거움을 맛보는 한가족의 단란함이, 연인들의 다정한 속삭임이, 친구들의 우정의 만남이 시간 가는줄 모르게 이어지고 있는 곳, 이곳이 하루 200톤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던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곧 쓰레기 소각장의 모습이다.

길이 25m, 6레인의 실내수영장에서는 수영 동호인들이 힘찬 물살을 가르고 가로 105m, 세로 68m의 국제규격으로 조성된 인조 축구장에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축구 동호인들의 열띤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

그 옆으로 조성된 농구장과 게이트볼장, 테니스장에서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저마다의 취미 생활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다.

이곳은 누가 봐도 스포츠 타운 그 자체일 것이다.

구리시자원회수시설은 구리시 토평동 6만8천㎡의 부지에 총 사업비 612억원을 들여 하루 2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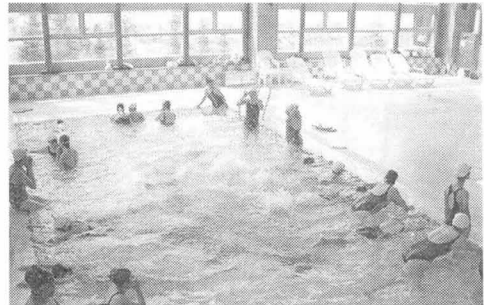


〈타워에서 바라본 구리시 전경〉
사진. 김응주 사진작가

협오시설로 여겨지던 쓰레기 소각장이
지금의 주민편익 시설로 탈바꿈하게 된
데는 공무원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다.

구리시자원회수시설 건립이 추진된 것
은 1995년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부터로 쓰레기 소각장이 주민 기피시설이
라는 어려움 때문에 타 시군의 경우 관주
도로 사업 결정을 내려 주민들과의 많은
마찰을 빚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입지선정
위원회에 시의회 의원2명, 주민대표3명,
환경전문가2명, 관계공무원2명 등 사실상
시민위주로 구성되어 추진 되었다.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
로 쓰레기 처리시설의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들을 참여시켜 쓰레기 처리
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시키
고 선진지 견학과 전문가들의 자문과 시
민들의 의견을 들어 최선의 방법을 연구
하던 중 주민 기피시설을 오히려 주민과
친숙한 주민편익시설로 승화시켜 지금은
구리시의 명소로 자리 잡게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실내수영장

시설규모 : 지상2층, 지하1층 (3,298㎡)
수영장 : 25m×6레인, 유아풀(2개소)
사우나 : 750㎡(남,여 각1개소)
1일 이용인원 : 1천여명



• 축구장

설치규격 : 106m×68m (국제규격) 인조잔디
관중석 수 : 1,200석
야간경기를 위한 조명탑 설치

쓰레기소각장은 건설 이후에도 현재 주민감시요원이 항시 배치되어 불량쓰레기 반입 방지와 쓰레기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내수영장 등 주민편익시설 등은 쓰레기 소각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운영되는 것으로 저렴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 결국 이익이 주민들에게 재분배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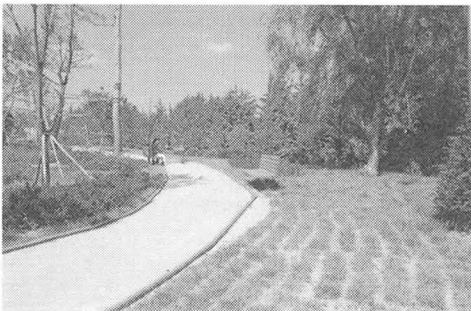
• 농구장

시설규격 : 50m×27m
롤러스케이트장 겸용으로 사용



• 게이트볼장

설치규격 : 23m×18m (3면)
인조잔디 2면, 마사토 1면
조명탑 설치로 야간경기 가능



• 녹지 및 산책로

녹지면적 : 35,120㎡(10.6245평)
산책로 : 폭 2m, 연장1.7km (마사토 포장)
노인을 위한 지압보도 설치



• 사우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서울 동북부 300만을 위한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이 97년도에 설립되어 올해로 만 6년이 되었다. 대지 186,575㎡, 건물 123,751㎡, 주차면 3,112면의 규모로 1,129억원의 건설비용 중 구리시가 77%, 서울시 2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리농수산물시장은 1일 2,389톤, 연간 청과 680천톤, 수산 156천톤의 물량을 수용하는 명실공히 수도권 동북부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자리 매김 됐다.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가락동을 위시한 타 도매시장과는 달리 중도매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시장원리에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

도매법인별 하역기계화 장비 확보, 지붕 있는 산물동 경매장시설, 저온저장고, 냉동창고 등 최신식 현대적 시설도 갖추고 있다.

경기동북부의 사통팔달 교통요충지로서 수도권외곽 순환고속 도로와 신내동에서 양평간 시장반입 도로가 인접되어 있어 신선도를 앞세워야하는 농수산물 유통이 용이하며 3천 여대의 차량을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 등 편리한 교통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은행, 편의점, 식당, 약국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24시간 출하상담실을 운영하며 관련상가동 건립으로 윈스톱 쇼핑을 할 수 있는 고객편의 제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구리도매시장은 반입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및 금속탐지기 검사 등을 통하여 식품위생상 안전성을 철저히 지켜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도매시장으로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여 국민건강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하여 수입 개방에 따라 무분별하게 국산농수산물로 위장 판매되는 저가 수입농산물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금 제2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현재 새로 건립된 수산2동에 상인이 입주되면 쾌적한 환경에서 활어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청과동도 재배치하여 고



〈신축된 수산 2동〉



〈사과경매 현장〉

객과 하주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환경적 측면도 중시하여 청결을 최우선재배치하여 고객과 하주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환경적 측면도 중시하여 청결을 최우선으로 시장내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시간 단축과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청과물 쓰레기는 파쇄압출기를 운영, 퇴비화하며 생선부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억제를 위해 밀폐보관 창고를 설치, 악취제거제를 살포하여 악취제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시장, 단지 거래만이 성립되는 시장이 아닌, 문화가 있는 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도 청결, 둘째도 청결을 강조하고 있다.

급격히 변하는 유통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농수산물의 유통정보, 가격정보 수집을 위하여 인터넷, 각종 대중홍보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있으며 자체 홍보 홈페이지(www.kamaco.co.kr)를 구축하여 무료인터넷 사용을 위한 '인터넷플라자'도 운영하고 있다. 신선한 농수산물 공급, 환경친화적 도매시장을 지향하고 있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로 구리시 위상제고와 함께 300만 서울동북부 주민의 농수산물유통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자유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놀이터

구리시청소년 수련관



안·윤·달
(전 구리중 교장)

아동기를 벗어나 청소년기를 맞으면 급격한 신체적, 성적 발달이 일어나는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고 사춘기에 겪는 신체적, 생리적 변화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안게 된다.

그래서 청소년을 '주변인'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린이와 어른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주변을 맴도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독일 레빈(Rewin)이 붙인 말이다. 때문에 사춘기의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고 자아정체감을 형성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련시설이 요구된다.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이 2003년 2월 28일 개관되었다.

95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2,219평 규모의 청소년 수련관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창작실, 실내체육 활동실 그리고 300석 규모의 대강당과 상담실, 컴퓨터실, 동아리방, 정보자료실, 취미교실, 예절교실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토록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유도하여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의식을 심어주는 수련시설이다.

청소년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는 참여시스템을 구축, 창의력 개발과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상담실에서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리검사, 자기표현훈련, 개인상담(전화, 면접, 방문), 학교 CA사업 및 동아리방 지원, 가족캠프, 성교육강좌도 계획하고 있어 청소년 정서 함양에도 기대가 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및 생활체육 시설을 제공하여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로서 세대간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생활권내의 수련시설이다.

>> 시설안내

지하2층 - 수영장, 안내데스크

지하1층 - 에어로빅실, 헬스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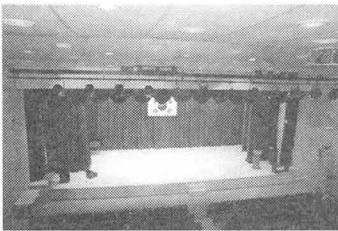
1층 - 사무실, 안내데스크, 자원봉사센터, 공연장

2층 -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카페,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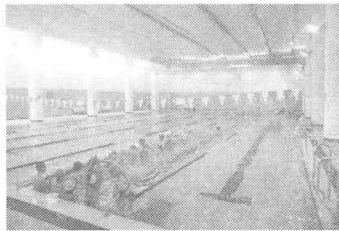
3층 - 일반강의실 4개, 컴퓨터실, 동아리방 3개, 정보자료실(비디오, 인터넷, 음반자료, DVD 등 감상가능)
다목적실(마루바닥, 전면 거울설치, 조명설치)

4층 - 일반강의실 2개, 보컬실(드럼, 베이스, 키보드, 앰프, 전자기타 등 설치), 풍물악기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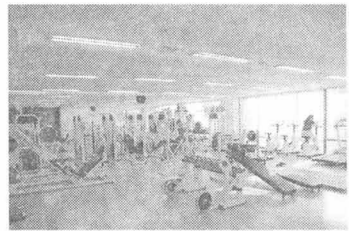
개인연습실 5개(2, 3번 방에 피아노 세팅), 음악교실, 식당, 정보자료실(3층과 연결)



<공연장>



<수영장>



<헬스실>

>> 문화사업

어린이 · 청소년 · 성인을 위한 문화 · 생활체육(수영, 에어로빅, 어린이발레, 째즈 / 힙합, 헬스 등)등 운영

>> 동아리지원

<수련관 소속 동아리 현황>

라밴드, 풍물, 연극, 영화제작, 댄스, 랩, 마술동아리등 다양한 분야의 9개 동아리가 현재 활동중

>> 학교 CA사업

힙합, 수영, 종이접기, 연극, 밴드, 게임, 풍물, 매직풍선, 마술 등의 14개 강좌가 7개의 중 · 고등학교의 요청으로 실시하고 있음.

>> 청소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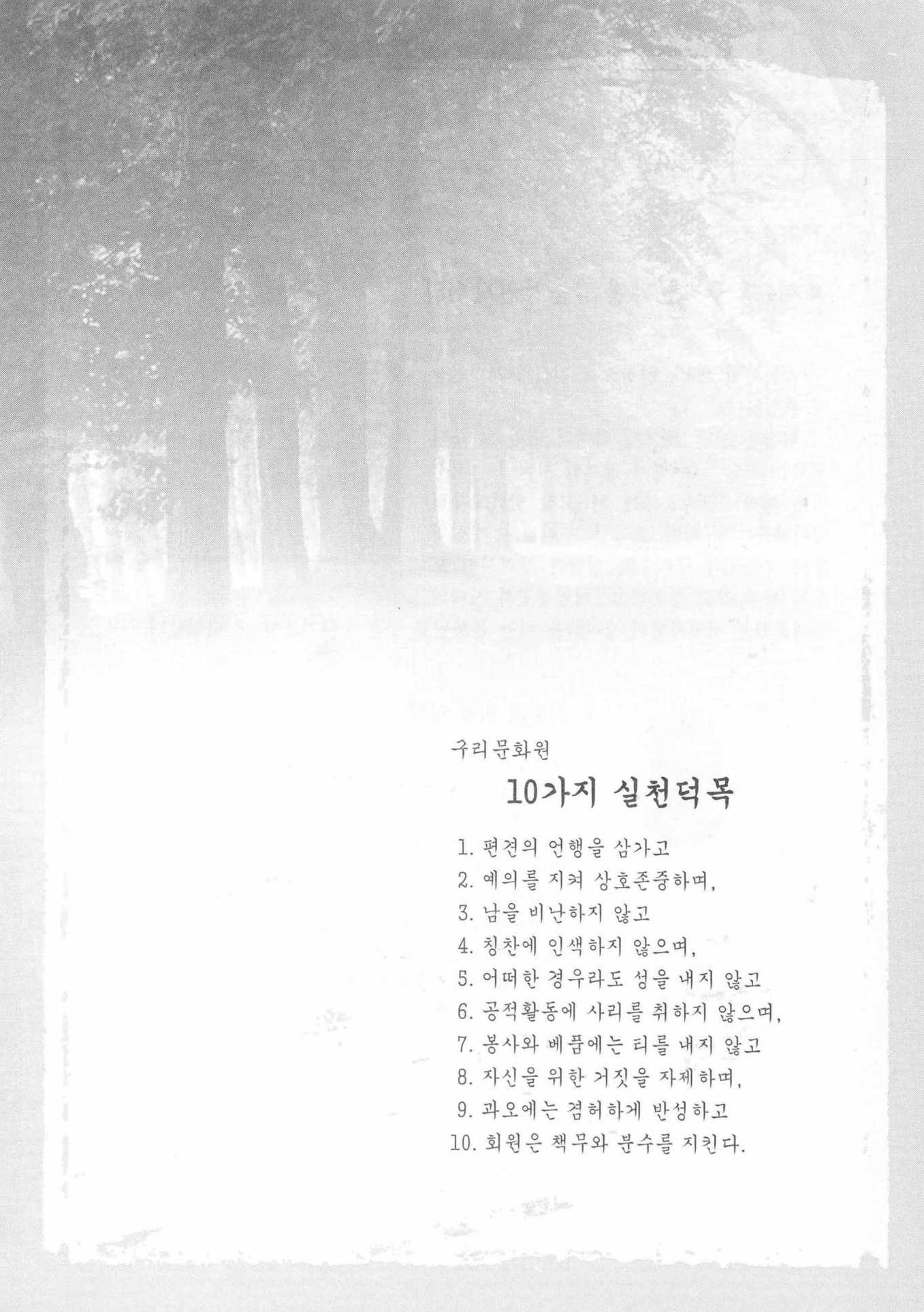
구리시청소년들을 대표해서 수련관에 청소년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건의할 수 있고 각종 다양한 행사를 준비, 진행, 평가까지 참여할 예정이며 청소년들로 구성

>> 이용시간

평일 9:00~21:00 / 토요일 9:00~20:00 / 일요일 10:00~17:00 / 기타 공휴일은 휴관

<정보자료실 이용시간>

화~토요일 11:00~20:00 / 일요일 11:00~15:00(월요일은 휴관)



우리문화원

10가지 실천덕목

1. 편견의 언행을 삼가고
2. 예의를 지켜 상호존중하며,
3. 남을 비난하지 않고
4. 칭찬에 인색하지 않으며,
5. 어떠한 경우라도 성을 내지 않고
6. 공적활동에 사리를 취하지 않으며,
7. 봉사과 배품에는 티를 내지 않고
8. 자신을 위한 거짓을 자제하며,
9. 과오에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10. 회원은 책무와 분수를 지킨다.

■ 제4대 구리문화원 김순경 원장 취임

구리문화원 제4대 원장으로 김순경(74) 원장이 취임했다.

김원장은 지난 2월20일 각계의 내빈 및 구리문화원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취임사를 통해 「구리문화는 이 고장 先代로부터 이어져온 “얼”이며 오늘날 우리들의 정신과 삶의 모습인즉 구리문화 창달은 구리시민 모두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지방분권화 시대의 참여문화로 시민화합의 장(場)을 여는 문화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김순경 원장 약력

- 1929년 구리시 수택동 출생
- (주)새한텅스텐 대표이사
- (주)새한마이크로텍 회장
- 초대 구리실업인 회장
- 구리시 장학재단설립 준비위원장
- 구리시 지명위원
- 도덕정치 국민운동연합 도덕교육위원장
- 3.1운동 기념탑 건립위원회 집행위원
- 동국역경원(팔만대장경역경) 후원회 부원장
- 구리문화원장(제3대)

■ 구리문화원 홈페이지로 오세요 www.gurimh.or.kr

구리문화원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다.

홈페이지는 구리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사이트, 특히 구리지역 역사·문화·교육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1. 구리시의 역사·문화·교육정보의 제공

- 구리시의 주요 문화재
- 주요 역사적 사례, 지명에 얽힌 유래 등
- 구리문화원 안내
 - 문화원 소장도서
 - 구리문화학교 강좌
 - 문화원 행사 및 구리시 주요행사안내
- 구리시의 문화단체 정보안내
- 구리관내 학교현황

2. 구리문화원 사이트 참여 및 의견수렴

- 시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사이트
- 구리시 주요 의제에 대한 온라인 설문운영
-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툴 활용한 의견수렴

3. 기타

지역문화를 홍보·조명하고 선도하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의 역할 담당



■ 구리문화원 일꾼들

• 2003 임원명단

원 장 김 순 경 (새한텅스텐 대표)
감 사 차 경 회 (무공수훈자구리지회장)
이 중 업 (세무사)
내무부원장 김 원 태 (전 구리신문 대표)
외무부원장 김 문 경 (원일건설 (주) 대표)
직능부원장 손 태 일 (동일전력(주) 대표)
총 무 이 사 고 준 선 (구리시소년소녀합창단단장)
재 무 이 사 박 석 윤 (상아탑학원 원장)
이 사 김 영 근 (미보건축 대표)
이 이 화 (역사학자)
안 영 기 (논설위원, 전구리시의원)
박 명 섭 (구리문화원 향토연구소장)
홍 도 암 (전 전국배드민턴회장)
최 예 환 (삼환정공대표)

이 사 이 상 운 (구리시의회 의원)
김 경 선 (구리시의회 의원)
정 성 배 (전 구리농협조합장)
심 홍 식 (구지환경 대표)
이 병 탁 (전 부양초교 교장)
김 응 주 (사진작가)
김 정 숙 (예원꽃꽂이)
신 동 영 (비디오작가)
홍 재 인 (구리서예원 원장)
윤 중 국 (무형문화제약기장)
김 충 현 (다솔기획 대표)
이 승 준 (송호물산(주) 대표)
과 장 고 순 례
간 사 김 욱 분

• “구리문화”誌 편집위원 명단

발 행 인 김 순 경 (새한텅스텐 대표)
편집위원장 안 영 기 (문화원이사, 전 구리시의원)
위 원 김 응 주 (문화원이사, 사진작가)
이 이 화 (역사학자)
이 병 탁 (전 부양초교장)
안 윤 달 (전 구리여중교장)
박 명 섭 (구리문화원 향토연구소장)
임 이 록 (경춘신문 발행인)

위 원 최 복 희 (한국 문인협회 회원,
한국수필가협회회원)
홍 재 인 (구리서예원 원장)
김 원 태 (전 구리신문 대표)
고 준 선 (구리시소년소녀합창단장,
전 구리시의원)
박 석 윤 (상아탑학원장)
김 충 현 (다솔기획 대표)
진 화 자 (한국문인협회 회원)

• 구리문화원 후원회

최광민(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장)
오병제(이화염직 대표)
김중태(동원건설 대표)

김순경(구리문화원장)

백남일(우진프라스틱 대표)
김문경(원일건설 대표)
강예석(경호엔지니어링 대표)

• 문화학교 운영위원

교장 : 김 순 경

운영위원장 : 김 영 근

운 영 위 원 : 김 원 태 · 고 준 선 · 박 석 윤

■ 2003년도 제8기 구리문화학교 개설

2003년도 구리문화원 문화학교가 3월19일 개강식을 가졌다.

제1학기에는 4개월 과정으로 3월19일(수)~7월 20일까지.

제2학기는 3개월 과정으로 8월20일(수)~11월 20일까지

도합 7개월 과정으로 개강되는데 200여명이 수강신청을 했다.

개강과목으로는 사진, 미술, 무용, 민요, 풍물, 스피치, 단전호흡, 스포츠댄스, 다이어트요가, 풍수지리, 컴퓨터반등 11개반으로 구성되었으며, 대부분이 주부들인 수강자들은 20대에서 75세의 고령에까지 이르고 있다.

지난 95년 제1기로 개설된 구리문화학교는 문화예술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 국민들의 문화향수기회 확대로 문화복지의 실현
-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습득 및 감상능력의 제고
- 지역간 문화불균형 해소로 문화균등화 도모 등 시민의 문화예술진흥과 보급을 위해 1995년 처음으로 개설됐다.

특히 이번 구리문화학교는 시민의 문화향수를 내실 있게 충족시키고 보급시키기 위해 문화원 이사로 구성된 문화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 강사를 공개채용하여 수강생들에게 알찬 강좌를 제공토록 운영해 왔다.

2003년도 제8기 문화학교는 7개월 과정의 수강이 끝나면 수료식과 함께 연말에는 문화학교 학생들의 작품발표회도 갖는다.



문화학교 안내

• 미술반 (제1강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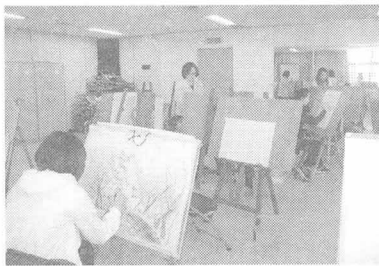
월요일, 초급-9:30~11:00 · 중급-11:30~13:00

배순덕

-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 동아미술제(국립현대미술관)
- 동방의 빛전(예술의 전당)

교육내용

- 기초이론 및 덧셈
- 연필 정물화, 풍경화
- 수채화



• 풍수지리 (문화교실) 월요일 13:30~15:00

최광의

- 고려풍수지리학회 초급 수료
- 고려풍수지리학회 중급 수료
- (사)충청노인복지개발회
청주노인복지마을 "풍수지리과" 강사

교육내용

- 음택론(묘소)
- 패철론
- 명당과 명혈론 등 습득

• 스피치(문화교실) 수요일 10:30~12:00

탁인경

- 경희대학교 대학원 언론 정보대학원
스피치토론학과 졸업
- 와우스피치 영상교육 팀장
- 한국 언어문화원 이사

교육내용

- 음성개발과 기본자세
- 정확한 발음 구사법, 호흡
- 명연설문 실습
- 3분 스피치 실습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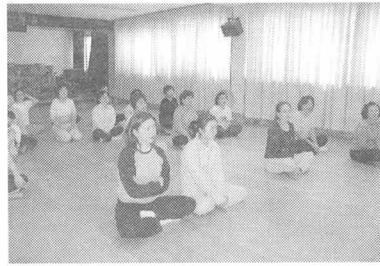
• 요가다이어트 (제2강의실) 화, 목 14:00~15:00

설경희

- 대한생활체조 강사자격취득
- 요가지도자 자격증 취득
- 생활체육지도자 국가자격 취득

교육내용

- 유산소, 신체균형 운동
- 다이어트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는 요가
- 스트레스, 변비해소등



• 무용반 (제2강의실) 화요일 10:00~11:30

이현숙

- 구리무용제출연(1996-2002)
- 한국무용협회 구리시지부 사무국장
- 무용학원 강사

교육내용

- 굿거리, 자진모리 기본
- 부채춤
- 살풀이

• 스포츠댄스 (제1강의실) 금요일 10:00~11:30

최정숙

-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사
- 한국댄스스포츠 교사협회 회원
- 국제교사자격증소지(영국발행)

교육내용

- 모던댄스
(왈츠, 탱고, 비엔나왈츠, 슬로우폭스트롯,
퀵스텝)
- 라틴댄스
(룸바, 차차차 자이브, 삼바)

문화학교 안내

• 사진반 (제1강의실) 화요일 10:00~11:30

중급 : 이덕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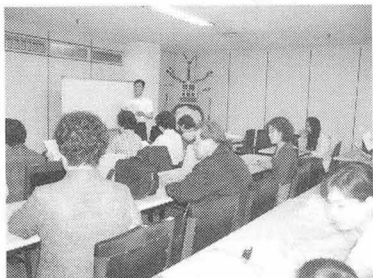
-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 사협전국회원전 10결상 수상
- 사협창작 분과위원

초급 : 이영천

- 한양대학교 사진예술과
-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 사진예술프리즘 회장

교육내용

- 아나로그(필름)카메라사진
- 디지털영상사진
- 실전촬영중심교육
- 풍경사진, 인물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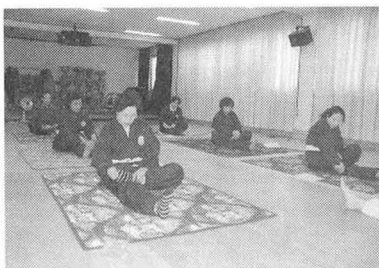
• 단전호흡 (제2강의실) 목요일 10:00~11:30

이창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국선도 제3급 사범자격증 취득
- 서울시35년봉직(서기관)정년 퇴임 (녹조근정훈장)

교육내용

- 조신법 전·후편 - 단전행공
- 강정법 - 오기법 - 정화법



• 풍물반 (제2강의실)

초급-수요일 10:00~11:30 · 중급-금요일 10:00~11:30

이용신

-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가무단 단원
- 무형문화제 강릉단오제 추진위원장
- 서일대학 강사

교육내용

- 설장고 기본장단
- 삼도풍물놀이
- 옷다리가락



• 민요반 (제2강의실) 월요일 10:00~11:30

강정자

- 한국국악협회 정회원
- 광남중학교 명예교사
- 동국대학원 한국음악 석사 과정전공

교육내용

- 국악이론 및 장단에 따른 민요 익히기
- 굿거리장단, 자진머리장단, 세마치장단, 중머리장단에 따른 민요 익히기
- 경기12잡가, 잡가, 선소리 익히기

• 컴퓨터 (제3강의실) 화, 금 9:30~12:30

김덕배

-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정보검색사 2급
- 현 컴퓨터 강사

교육내용

- 윈도우, 한글, 엑셀
- 인터넷 정보검색
- 초급, 중급

민선3기 I♥(love) Guri 운동전개 삶의 질 향상 시키는 쾌적한 21C형 도시건설 구상

민선3기 구리시는 「샘솟는 희망 발전하는 구리시」의 슬로건 아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쾌적한 21C형 도시건설을 위하여 I♥(love) Guri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리시는 I♥(love) Guri 운동의 일환으로

- *. 21C 구리시의 Vision을 제시하고
- *. 600여 공직자 참여 운동을 전개하며
- *. 시민 자율 참여 시민정신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 *.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21C형 도시
- *. 샘솟는 희망, 발전하는 21C 새로운 모습의 구리시 건설
- *. 누구나 머무르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도시
- *. 20만 시민이 다함께 화합하고 단결하는 시민정신 문화운동으로 승화 시킨다는 것이다.

I♥(love) Guri 운동의 계획을 보면 먼저 「구리Vision 2006」으로 2006년까지 이면도로 환경정비, 무질서한 주정차 문제해결, 공원 등 시민휴식공간 확대, 자전거 도로 등 레포츠시설 확충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살고싶은 도시를 만들고 초등학교 무료급식 실시, 특수목적고교 설립, 청소년 수련관·인창도서관 개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를 통하여 청소년의 희망과 꿈을 마음껏 키우는 선진 교육도시를, 구리·남양시장의 현대화 개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갈매동-첨단산업시설, 사노동-화훼생산단지 등)로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과 유통중심의 도시를, 장애인 복지단지 조성,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 확대, 소외 계층을 위한 진료서비스 확대, 어려운 이웃을 내 가족 내 이웃 같이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도시를, 문예회관 조기건립, 인창1호공원 개발, 구리·동구문화제 통합추진,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 개발로 삶의 질이 높은 친환경 구리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3년도 G1계획, 2004⇒G2, 2005⇒G3, 2006⇒G4 계획등 4단계로 추진계획을 세워

제1단계로는

공직자 구리사랑 운동으로 600여 공직자가 I ♥ G를 Guest 로 시민을 고객으로 모시고 사랑하며 20만 시민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테마를 발굴하고

제2단계로

내 가정 → 내 이웃 → 내 직장 → 내고장 구리시 사랑으로 확산하는 시민정신문화 운동의 전개

이러한 I ♥ GuRi (Guest)운동 참여 실천프로그램으로 구리시는 다음과 같이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공모하고 있다.

- 공직내 부서별 토론회
 -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개최로 토론문화의 정착
 - 인터넷 및 반상회를 통한 구리사랑(I ♥ GuRi)운동으로 시민실천 과제 공모
- 사회단체에 각 1개씩 구리사랑 운동실천 및 인센티브 부여 등 구리사랑 운동을 전개하여 공직자 및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입선작



작가. 우인 홍재인

대한민국 서예대전 입선
대한민국 서예고시대전 특선
한국 인터넷 서예 초대작가
구리서예원 원장
글핀샘 동인회장
구리문화원 이사

誰家玉笛暗飛聲
散入春風滿洛城
此夜曲中聞折柳
何人不起故園情

李白詩一首 壬午孟夏 于憲洪在仁

李白詩 春夜洛城聞笛 · 35×135

누가 부는가 어두움에 살며시 들려오는 저 피리소리
봄바람 타고 서낙양성 도처에 흐트러져 퍼지어라
오늘밤 따라 이별의 곡을 읊조리니
뉘라고 향 그리움이 아니 알겠는가

제12회 백일장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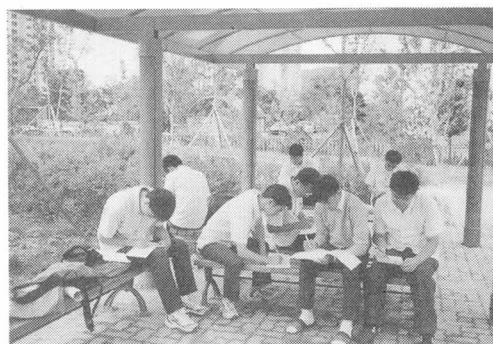
사진. 김응주

연꽃 위
고사리 손이 배를 띄운다.
종이배
엄마랑
아빠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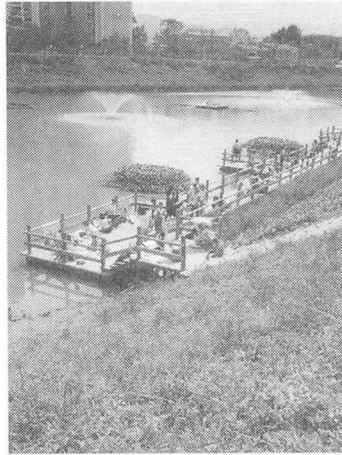
2002

장자못 백일장 대회에서

사진으로 보는 백 · 일 · 장



사진으로 보는 백·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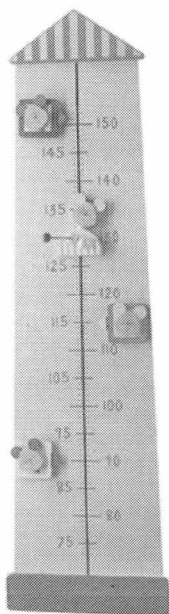
초등부 최우수(시)
김필주(백문초 2-4)

키재기하자

아빠하고 나하고
키재기하네
난 아빠보다
크게 보이려고
까치발 드네
하지만
동생한테 걸리네

동생하고 엄마하고
키재기하네
엄마는 동생과
키가 똑같이 보이려고
다리를 구부리네
하지만
나한테 걸리네

우리가족 모두
키재기하네
원래는 아빠가 제일 크지만
엄마는 동생을 안아
제일 크다고 하네
치잇~ 치잇~ 치잇~
나쁜 엄마





초등부 최우수(시)
황예슬(백문초 4-2)

물놀이

물살이 하얗게 '샤르르'
소리내며 밀려온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꼭 누가 손가락으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모습이 떠오른다

누가 저렇게 큰 손가락으로
떠 먹는 아이스크림일까?

얼마나 달콤하길래
금방 '쓰르르르~' 녹아 내릴까?

물놀이를 다녀온 날은
나도 아이스크림을 떠 먹고
싶어진다.





초등부 최우수(산문)

황하정(구리초 6-1)

엄마의 손

내가 엄마의 손에 대해서 생각을 한 계기는 시민 백일장에 서였다.

이번 글쓰기 대회로 새삼 엄마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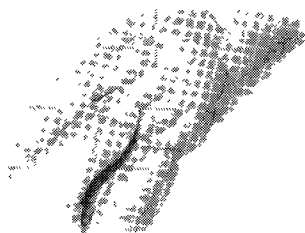
엄마의 손은 정말 나에겐 없어서는 안되는 것 같다. 내가 엄마의 손을 필요할때가 많기 때문이다. 내가 혼자 공공거리며 아플때 엄마의 손은 바쁘다. 약을 사와 먹여주어야 하고, 열의 온도를 재기 위해 엄마의 손은 내 이마로 간다. 또, 내가 무서울때 엄마의 손을 잡을때면 어느샌가 안심 이 된다.

엄마의 손은 마법의 약 같다. 손의 모습은 온갖 잡일 덕에 거칠고 못생겼지만, 속의 모습은 따뜻 하고 나를 위해 어떤 일이든 모두 해주니 말이다. 시간이 지나면 내손도 못생기고 거칠어질 것이 다. 하지만 내손도 엄마의 손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질 손이기 때문에 다른 예쁜 손을 부러워 하 고 싶지 않다.

그리고 보면 우리 엄마 손보다 예쁜 손이 있을까? 좋은 옷이 아니더라도 '옷이 반듯해야 사람 이 반듯해 보인다' 면서 항상 새옷처럼 깨끗이 빨아서 주름하나 없이 다려주는 우리 엄마의 손 때 문에 학교에서 단정한 어린이가 되었다. 생각해보면은 나는 우리 엄마의 손이 가장 더럽다고 많 이 느꼈던 것 같다. 내가 버리지 못하는 음식물과 쓰레기도 버리고, 더러운 때가 묻은 옷도 빨아 주시니깐 말이다. 그에 반면 내 손은 깨끗한 피아노 건반을 치거나, 연필을 쥐고 하얀 종이에 예쁜 글을 쓰고 손톱에는 온갖 색색의 메니큐어가 자리잡고 있고 예쁜 반지들도 끼어져 있는 멋쟁 이 손이기 때문이다. 내 손이 못하는 일을 엄마 손이 해주고 엄마 손이 못하는 일을 내 손이 해 주는 친구같은 손이 너무나도 좋다.

10년 후, 엄마 손은 내 신랑 손을 잡고 있고 내 결혼 예물들을 손수 마련해 주실 것 같다. 그리 고 15년 후, 엄마손은 맛있는 음식을 많이 했다면 거저가서 먹으라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싸주고 계실 것이다.

내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돌보아 주시는 엄마의 손, 시간이 흘러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엄 마의 손 나는 그런 엄마의 손을 사랑한다.





중등부 최우수(산문)

백수진(인창중 1-8)

고향가는 마음들

“아이구 바쁘다 바빠”

명절날이 다가오면 우리 엄마께서 항상 내뱉으시는 말이다. 홀로 계신 할아버지를 뵈러가기 위해서 우리가족은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우리 아빠는 1남 9녀라는 대단한 가족관계에 그 1남이자 장남이시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잘 안하시던 김장김치에 여러가지 반찬들을 듬뿍듬뿍 준비하시고 우리 아빠는 항상 늦게 퇴근하셨는데 이날만은 일찍 오셔서 집을 나르신다. 트렁크에 짝 찬 음식들과 할아버지를 위한 선물들, 짐들처럼 내 마음도 기대감으로 듬뿍 차올라 있었다.

거의 땅 끝인 전라남도를 찾아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조금 트일라치면 물려드는 차 때로 우리 가족은 점점 지쳐가지만 할아버지댁과 가까워지면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에 다시 힘을 낼 수 밖에 없다. 살랑거리면서 우리를 반겨주는 갈대밭, 고개속여 나에게 인사하는 노랑게 익은 벼들 때문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세월이 흘러 하늘만 높아가고 반기는 사람은 없다며 조금 아쉬워하고 섭섭해 하시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시는 것 같았다.

꼬불꼬불 울퉁불퉁한 험한 길을 지나가면 할아버지댁이 조금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나는 “다왔다”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착하자마자 내려 풍경을 본다. 우리 할아버지댁은 동구밭 토담 돌맹이들은 우리 할아버지의 손때로 반질거리고 여러 나무들이 우뚝 솟아있는 사이로 따스한 햇빛이 나를 알아보듯 비추어준다.

“할아버지”하며 조그마한 문을 벅차고 들어갔다. “오냐 잘 왔니/”라며 주름살이 더 늘어버린 얼굴로 환하게 웃어보이려는 할아버지…….

내 뒤를 이어 아빠께서 들어오셨다. 아빠께서는 반가워하는 얼굴로 환하게 웃으셨지만 아빠의 그림자 뒤로 어린시절 불던 풀피리가 그리워 찾아왔건만 검던머리 어디가고 흰 가발 무거워 굽어진 허리에 곧게 펴지 못한 할아버지 앞에서 할 말을 잃은 아빠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렇지만 고향은 고향이라고 아빠께서는 여러 곳을 돌아다다하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옛 이야기를 해주셨다. 하지만 난 느낄 수 있었다. 아빠께서 속으로 한숨을 깊게 쉬시며 아쉬움을 달라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할아버지 댁에서 나올때는 홀로 우리를 또 기다리실 할아버지를 뒤로한채 와야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무거웠지만 여기 우리 할아버지 댁에서만 볼 수 있는 한 폭의 수채와같은 풍경들 황금빛 벼들 사이에 나를 닮은 허수아비, 그리고 송알 송알 열려있는 과일들을 따 먹는 재미때문인지 다가오는 추석이 많이 기다려진다.



가만히 앉아 눈을 감으면……

들릴듯 말듯 작게 들려오는 싸늘한 가을 바람소리. 메아리 울리듯 컷가를 맴도는 풀벌레 울음소리. 행복 가득, 꿈 가득한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눈을 감으면 들린다. 조금만 더 귀를 열면 들려온다. 파란 하늘도, 푸르른 대지도 볼 수 없지만 난 느낀다. 이 세상이 너무도 아름답다는 것을…… 그냥 듣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보물. 가장 소중한 것, 그건 바로 내가 느끼는 이 모든 것.

너무 바쁜 생활속에서 난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여유라는 걸 잊었는지도 모른다. 계속 반복되는 학교 공부와 학원 보충에 질렸다는건 분명 잠시 공부에 지친 학생의 의미없는 투정에 불과하겠지만. 하지만 속도가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21세기에 이런 투정은 말 그대로 ‘한 순간에 불과한 투정’에 그쳐야만 했다. 잘 짜여진 시간표대로 반복하는 일상은 분명히 지겨운 구속이었다. 목표는 오로지 성적의 상승이었고 잠시 주어지는 여가시간에도 몸은 휴식을 즐길망정 머릿속은 온통 시험과 성적이라는 단어가 가득 차여 있었다. 가끔은 너무 힘든 마음에 눈물까지 쏟아지지만 그저 미래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갔다.

“난 최고의 과학자가 될거야!”

친구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 맞은 기분이었다. 친구는 이미 저 높은 하늘로 비상하기 위한 날개짓을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나아가지? 그저 좋은 대학가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였고 꿈이었다. 난... 무엇을 바란거지? 순간 머리가 텅 비어버렸다. 내게는 인생의 버팀목은 있었지만 그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후 나는 목표가 바뀌었다. 인생의 성공은 내가 꿈을 이뤘을 때 얻게 되는 보너스에 불과했다. 나는 새 목표를 위한 늦었지만 힘찬 몸짓으로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파...랳다. 이렇게 하늘이 높은지, 햇빛이 따사로운지 몰랐다. 손을 힘껏 뻗어도 잡지 못하지만 괜찮다. 몸을 뒤로 기울였다. 중심이 뒤로 쏠려 넘어가자 까칠한 풀이 등에 닿았지만 상관없다. 옷이 더럽혀지면 꾸중 들겠지만 그것도 좋다. 살짝 눈을 감으면 들려오는 이 모든 소리가 좋다. 특히 머릿속을 울리는 나의 목표가 너무 좋다.

이제 완벽해지려 발버둥치지 않는다. 그건 마치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으니까. 하지만 나는 또 발버둥 친다. 끊임없이 움직인다. 새로운 내 꿈을 위해서, 나는 세상을 사랑한다. 또 내 자신을 사랑한다. 그로 인해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하더라도 난 그것들을 사랑한다. 그건 내가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나의 모든 것이니까. 나를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이기에……



중등부 최우수(산문)

배화연(구리여중 3-4)

아빠의 고향길

작년 겨울의 일이다. 우리가족은 모처럼만에 시골 고향을 방문하였다. 그때 아버지는 가는 내내 할머니 얘기만을 하셨었다. 오랫동안 할머니를 뵙지 못하셨던 아버지..... 할머니를 그리워 하시는 마음이 역력하게 베어 있으셨다.

우리가족이 할머니댁에 거의 다 왔을때 아버지는 ‘하나도 안 변했어’라는 말을 되풀이 하셨다. 아마 아버지가 그리워했던 풍경들이 고스란히 눈에 비추어 지셨었나 보다. 아버지가 버스 안에서 신기해 하셨던 그 표정을 일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보기 힘든 표정이었다. 또 기억나는 장면은 바로 아버지와 할머니가 만났었던 장면이다. 할머니는 아버지의 얼굴을 어루만지시며 눈시울이 붉어 지셨었다. 그 때 아버지의 눈가에도 눈물이 서려 있었던 것을 나는 보았다.

우리가족이 도착했던날,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빙어를 잡아 주신다며 밤 뉘시를 떠나셨다. 물론 큰딸인 나도 함께 말이다. 아버지는 뉘시를 하러 강가를 가는 동안 내 손을 꼭 잡아주시며 옛날에 이 시골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얘기해 주셨었다. 지금 그 모든 이야기들이 떠오르진 않지만 무척 슬펐던 이야기들로 기억하고 있다. 그때 아버지의 표정은 웃고 계셨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그 강가에서 큰 수확은 할 순 없었지만 아버지는 할머니께 드릴 무언가가 있으시다며 기뻐하셨다. 아버지의 할머니에 대한 사랑들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가족은 그렇게 할머니댁에서 하루를 지새웠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버지의 직장일 때문에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만 했다. 할머니는 못내 아쉬우셨었는지 아버지를 뚫어져라 바라 보셨다. 나는 그 여행길에서 아버지의 진심과 애정을 느꼈었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

그때의 그 여행이 나에게 깨닫게 해준것은 참으로 많았다. 지금의 내 나이에선 느껴볼 수 없었던 것이 더 많았겠지만 그때의 느낌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이 백일장의 시제때문에 우연하게 생각난 그 날의 추억..... 지금 떠올리니 그리 많지 않은 일들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리 많게 느꼈었는지, 이상하게 느껴질 따름이다.

그때 그 장면들, 마치 사진 몇 장을 내 머릿속에 박아 놓은듯하다.

요번에 우연히 참가하게 된 백일장..... 그리고 아빠의 고향길이란 시제로 떠올릴수 있었던 내 옛 추억.....

만약 이번 계기가 아니었다면 이 기억은 다시는 떠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떠올리게 된 내용이 나에겐 얼마나 큰 추억거리였고 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했는지 새삼 이 글을 쓰며 느꼈다. 나도 나중에 그런 날들이 오면 그때의 아버지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



겠지…… 아무튼 이 글을 쓰며 또 한번의 느낌과 또 한번의 아버지 얼굴을 떠올릴수 있어서 좋았다. 요번 백일장은 그냥 글을 쓰는 하나의 대회가 아니였다. 적어도 나에겐……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하나의 행사 같았다.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떠올려 새삼 이 글을 쓰며 느꼈다. 나도 나중에 그런 날들이 오면 그때의 아버지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겠지……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떠올려 볼 수 있었고, 다시금 고향이란 정겹고도 아름다운 곳을 떠올리수 있게도 해주고 말이다.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이 다가온다. 하지만 요번에도 아버지는 가지 못하신다고 한다. 언제쯤이면 설날, 추석같은 연휴에 아버지와 고향길을 떠날 수 있을런지…… 아버지에게 하루빨리 즐겁고 기대가 될 수 있는 연휴가 다가왔음 좋겠다.

아버지의 그리운 고향길이 아니라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아버지의 고향길이 다가오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칠까 한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며…….





고등부 최우수(산문)

진성지(토평고 1-11)

휴전선에 눈이 내리면...

또 한 번의 가을이 찾아왔다. 가을은 쓸쓸한 계절이며 고독의 계절 외로운 계절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리 쉽게 말하는 그 외로움은 가족을 잃고, 고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더 절게 드리운다. 50여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그저 언젠가는 다시 만나지 라는 믿음으로 기약도 없는 기다림에 숨이 막혀가는 사람들. 그저 한반도를 가로지른 휴전선과 이북의 고향땅을 바라만보며 한 맺힌 가슴으로 눈시울을 적시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말하는 그 외로움에 가슴치며 살아가고 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그 다음에 다시 겨울이 와서 그렇게 사계절이 흘러만 가도 끝내 보지 못하는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다 된 그들의 마음을 나는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건지 반성하게 된다.

남·북한의 두 정상 만나고, 금강산으로 향하는 뱃길이 열리고, 몇몇의 사람들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도 만났다. 이제 통일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싶더니 불과 몇달전에 서해교전으로 도 한 번 젊은 영혼들이 잠들면서 허무하게도 다시 아군이니, 적군이니 하는 일이 다시 찾아왔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애만 타는데 어찌 하늘은 그리도 무심한건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저 함께하고 싶은 마음뿐인데... 그게 그리도 큰 욕심이 되는 건지...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건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그들을 감싸 안은 것이다. 내가 그들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쟁의 아픔을 직접 겪은 세대도 아닐 뿐더러 헤어져있는 가족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족의 아픔을 모를 순 없는 일이다.

하나이기에, 비록 지금은 둘이지만 우린 어쩔 수 없는 하나이기에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그 쓸쓸함을 배우는 것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단군 이래 하나로 살아온 우리 한 민족이 잠시 위기를 맞은 것 뿐이라고 생각하기에 비록 아직은 철없는 한 청소년일 뿐이지만 미래의 내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에 대해 말하고 싶다.

누구보다도 아픈 그 사람들의 심정을, 그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고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 역시 민족간의 화합과 사랑을 절실히 바라고 있기에 이 땅에서 젊은 피를 갖고 있는 나이기에 그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도 그들의 외로움에 힘이 되리라 믿는다.

비단, 나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민족이 하나라는 확신을 갖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려 한다면 그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

시간은 계속 흘러만가서 분단후 50여년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 또 한 번의 가을이 찾아왔다. 시간이 얼마나 더 흘러야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을진 막연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 서



로를 그리워만은 앓을 날이 반드시 오리라 확신한다.

지금의 가을은 또 다시 가고 곧, 겨울이 올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차갑고 쓸쓸한 들판에 하얀 눈이 내려 한반도를 따뜻하게 감싸안을때, 우리는 함께 아픔없는 하얀 눈발을 걷게 될 것이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사람들과 함께 말이다. 그때쯤이면 여지껏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휴전선도 눈에 녹아 그 모습을 감출 것이다.





고등부 최우수(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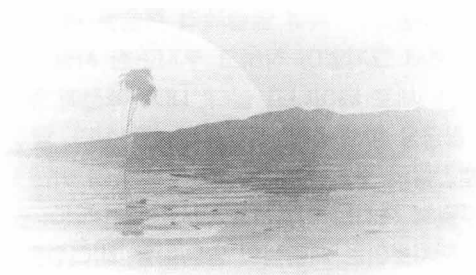
이혜란(도평고 2-6)

새벽, 밤 그리고 노을.

새벽이 좋다. 햇님이 얼굴을 들면 밝아서 좋다. 우리 사는 동네는 밝지만, 아직 별님이 물러가지 않은 새벽이 좋다. 부지런한 사람 눈 앞을 밝혀줄 가로등이 켜져 있는 새벽이 좋다. 한밤의 정적과 어둠을 몰아버릴 새벽이 좋다. 불켜지기 시작하는 새벽 아파트가 좋다. 달님을 흐리게 만들 부드러운 햇살이 좋다. 몇 시간후면, 그 햇살에 잠이 깰 나의 가족이 좋다. 새벽이면 편안한 침묵 가득한 우리집이 좋다. 새벽의 시작과 끝이 잘 보이는 내방이 좋다. 이런 새벽을 기다릴 수 있는 나의 지독한 불면증이 아주 가끔은 좋다.

날이 어두워지면 학교갈 걱정을 하는 밤이 싫다. 수면제를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과 잠을 자야 된다는 생각이 엇갈리는 밤이 싫다. 눈을 감으면 부끄러운 일들이 떠오르는 밤이 싫다. 밤새 비라도 내리면 나의 창가를 두드리는 어두운 빗방울이 싫다. 으스스한 손길에 가슴을 조이는 가위가 싫다. 무서운 꿈을 꾸고나서 흘리는 식은땀이 싫다. 저녁공기를 울리는 귀뚜라미 소리가 싫다. 밤이 되면, 외국에 계신 아빠 생각에 눈물짓는 내가 싫다.

노을은 아름다웠다. 아빠와 차를 타고 달리던 들판 건너 보이는 노을은 아름다웠다. 바다에서 우정을 약속하던 늦은 오후, 노을은 아름다웠다. 한가위날, 한아름 따온 밤바구니를 안은 할머니의 등뒤로 보이던 노을은 아름다웠다. 하늘에 양떼가 가득하던 날, 양을 붉은빛 꽃으로 물들인 노을은 아름다웠다. 친구를 하늘로 보내던 날, 그의 외로운 길을 밝혀줄 노을은 아름다웠다. 그래서 아들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눈물은 서러웠다. 파란 가을하늘 보라빛으로 번지게 하는 노을이 아름다웠다. 축복속에 태어난 나의 동생을 보기위해 뛰어가던 그날, 노을은 아름다웠다. 해가 질 때쯤이면 땅에 감도는 차가운 바람이 좋다. 노을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감사해하소 대견해하는 내가 좋다. 노을 앞에서, 나에게 했던 수많은 약속, 맹세. 그리고 남겨질 기다림까지도 아름다웠다. 이제 나의 삶에도 해가 지고, 노을이 말갭게 번져가면 나도 아름다워질 것이다.





나의 자리

삼십하고도 반이나 훌쩍 넘어선 나이에도 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존재의 유무조차도 알 수 없는 무한대 공간의 터널을 무작정 내리 치달기만 했을 뿐이다.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고 그 어른이 또다른 옆구리의 혹은 하나 붙이며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 다인줄 알았다.

다람쥐 쳇바퀴 같은 현실을 잘 살아내야 하는 것만이 내가 가야될 유일무이한 통로일거라 그렇게 믿었다. 십삼층 고층 성냥갑에 들어앉아 모든 것에 시들해져 옷에 묻은 김칫국물쯤이야 대수롭지 않은 펄퍼짐 삼십대 아줌마도 때때로 목젖까지 치미는 소리없는 울음들을 제껴 아련해진 기억페이지 넘겨가며 그리움의 대상들을 형체조차 알 수 없도록 차근차근 지웠다.

이것만이 최선인양 스스로 자위하며 내가 살아내야할 뒤편에 대한 일말의 자괴감도 허용하기 싫었다. 저 맑디 맑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고픈 내 날개는 힘센 현실에게 이미 꺾어져 있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내일 내일 하기에 몰렸더니 밤을 자고 동틀때 내일이라고 읊었던 어느 시인의 말처럼 느낌표 없는 내 생활에 헛된 물음표 따위 찍어내고 싶지 않았다. 시간의 흐름을 단순히 눈밀의, 목덜미의 주름살로만 인식하며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잃어지는 것들에 대에 철저히 무관심으로 대처하며 내 자신의 용벽을 그렇게 하나둘씩 쌓아갔었다. 두 아이의 엄마 한 사람의 아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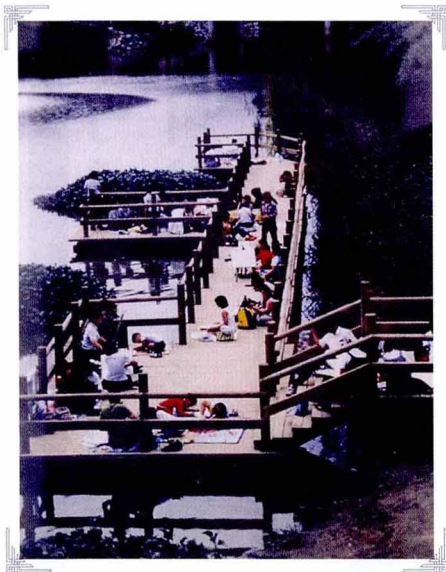
그러나 어느날 문득 고개들어 하늘을 보니 하늘이 너무 멀어져 있었다.

제멋대로 흩어지고 모아지는 구름들을 보며 숲을 만들어내고 친구들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 성 하나를 지어 백미탄 왕자님과 나쁜 괴물들을 몰아내던 그런 내 하늘이 이젠 빨래를 널어도 되는지, 제갈길을 위해 아침 걸음을 종종거리는 이들에게 우산을 들려 보내야할지 말아야할지, 이 하늘에 어울리는 식탁거리가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할지만을 고민한다. 아름다운 시어들이 가득한 시집 한편보다 아이의 참고서에 더 먼저 손이 가고, 계절의 순환에 맞춰 피어나는 꽃들보다 노점상들이 펼쳐놓은 나물 하나가 우선되고, 신문사이야 꺼오는 백화점 광고 전단지에도 걸려있는 경품 하나에 나와 같은 또다른 아줌마들에게 혹여 밀릴세라 목숨을 건다. 어찌다 가끔쯤은 억지웃음으로 마려된 얼굴 하나를 내보이면서 그지없이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 흉내를 내기도 한다.

이젠 그만 벗어나버리고 싶다. 새로 태어나고 싶다. 내가 예전에 꿈꾸었던 하늘을 보고 싶다. 꺾어진 날개로라도 저 푸르른 창공을 향해 힘껏 발돋움해보고 싶다. 옆구리에 매달린 반쪽인생을 위한, 새끼손가락 끝에 매달린 빨간실의 주인을 위한 그런 날개짓이 아닌 나를 위한 내 자리를 위한……

바다를 가련다. 바위에 부딪혀 깨지는 아픔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파도의 용트림을, 홀로 있어도 그 자리가 한 없이 꽉차보이는 외딴섬의 당당함을, 바다위를 나는 갈매기의 쉼 없는 날개짓의 진실을 내 품안에 품어보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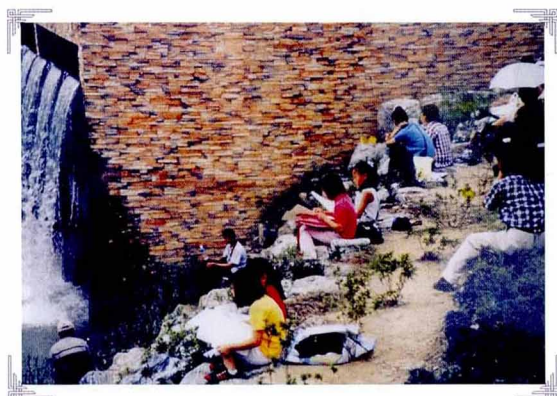
백일장 수상작품(사진)



최우수
김영정(교문동 동방A 102-1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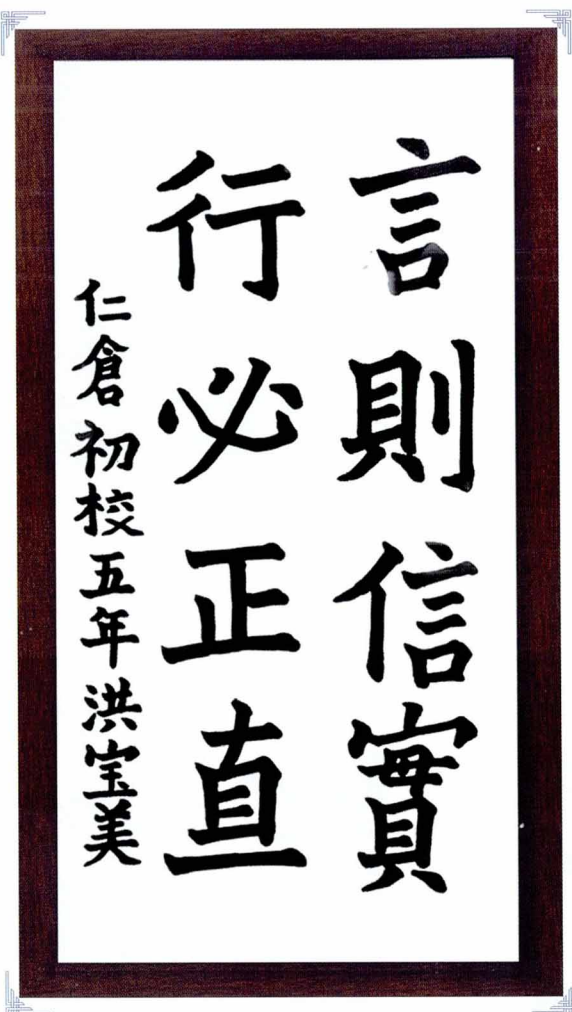
최우수
조한윤(장자중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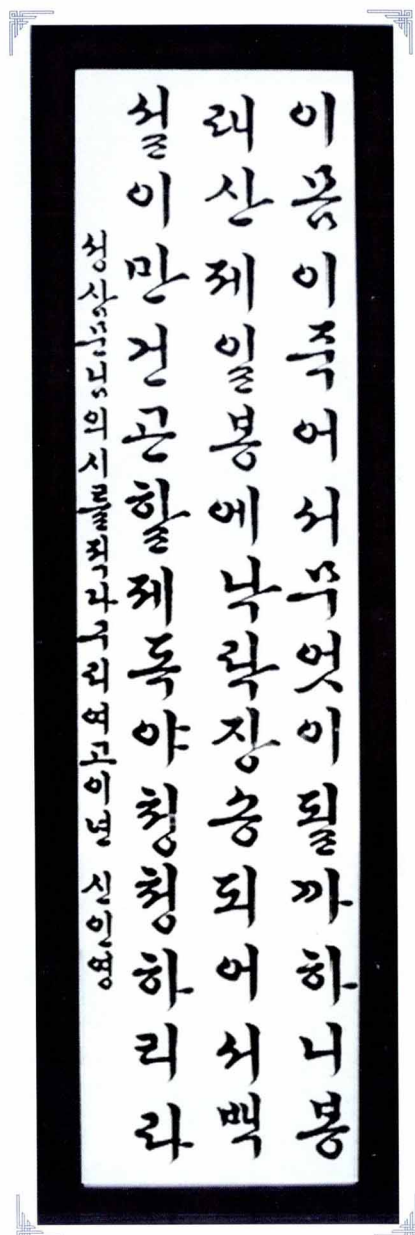
우수
이현미(강남구 도곡2동 삼성A b-302)



우수
서경분(수택2동 589-5)



홍보미
(인창초5)



신인영
(구리여고 2)

백일장 수상작품(그림-최우수)



신다인
(동인초 1-8)



김종윤
(부양초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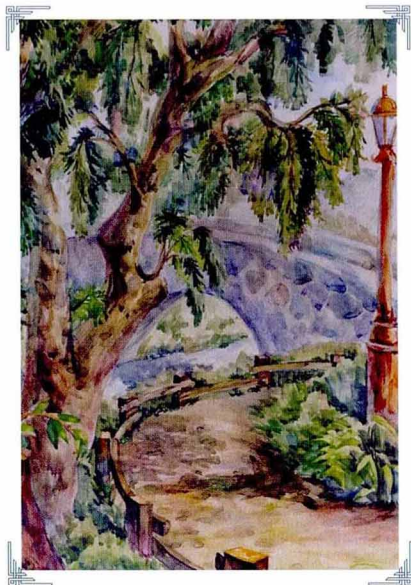


김희인
(교문초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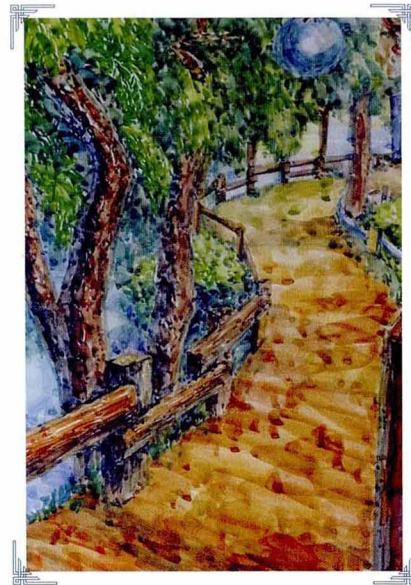


정현주
(구리여중 1-3)

백일장 수상작품(그림-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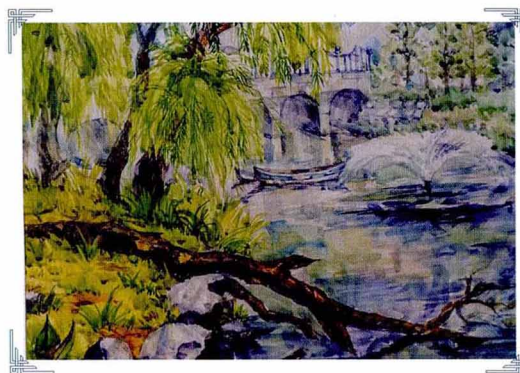
이단혜
(장자중 2-6)



정유미
(구리여중 3-6)



김민정
(구리여고 1-10)



김지은
(구리여고 2-12)

구리문화 제1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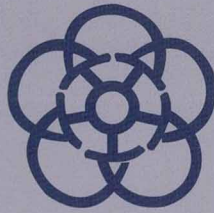
발 행 처 : 구리문화원

발 행 인 : 김순경 문화원장

편집위원장 : 안영기

기획·인쇄 : 도서출판 현기획(031-555-0203)

발 행 일 : 2003년 5월 20일



구 리 문 화 원

구리시 인창동 128번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A동 3층
(031)557-6383